

# 어사매

旌

旆

戛

제 11 호



황성문화원

< 序詩 >

산 그리고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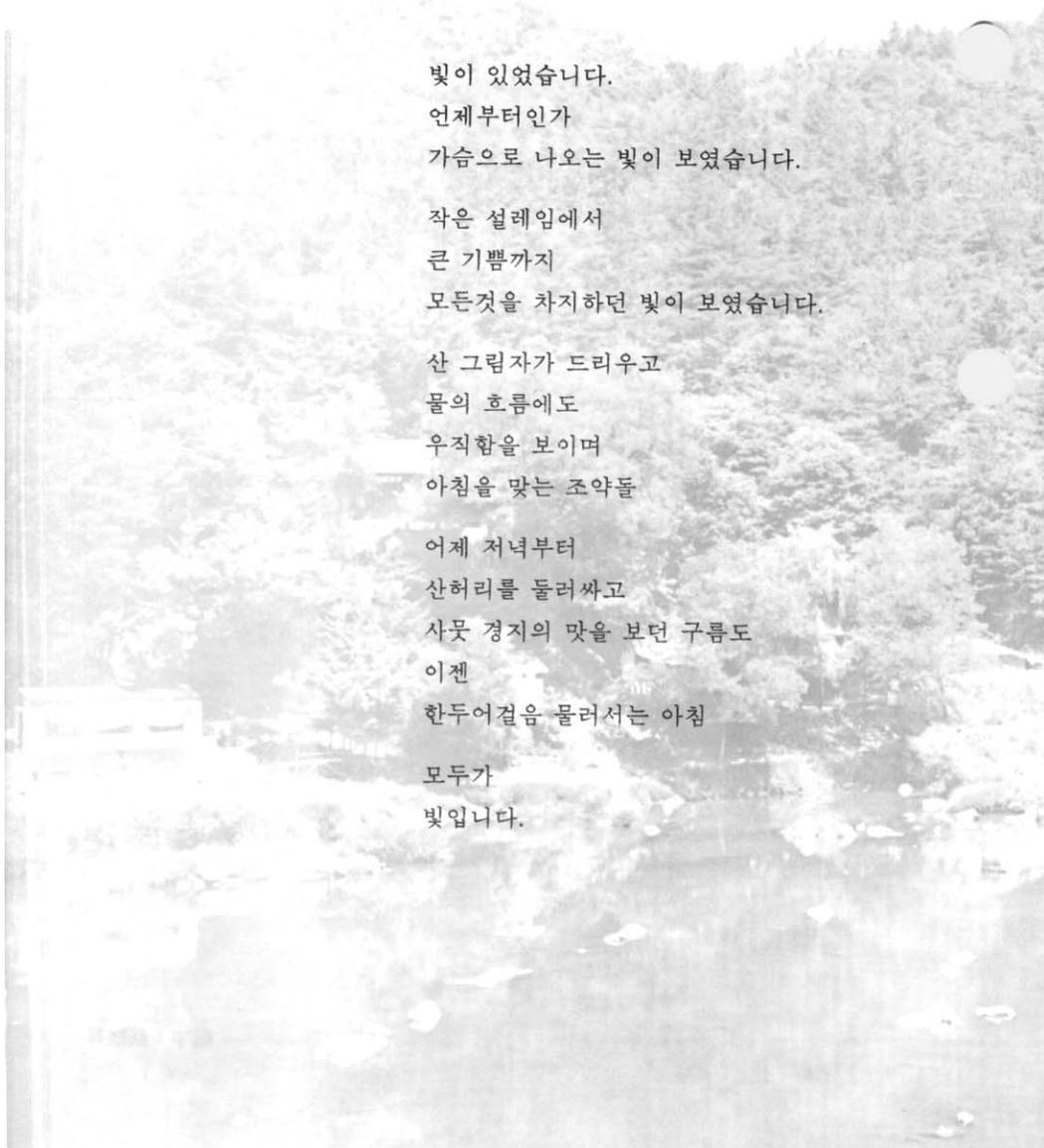
빛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으로 나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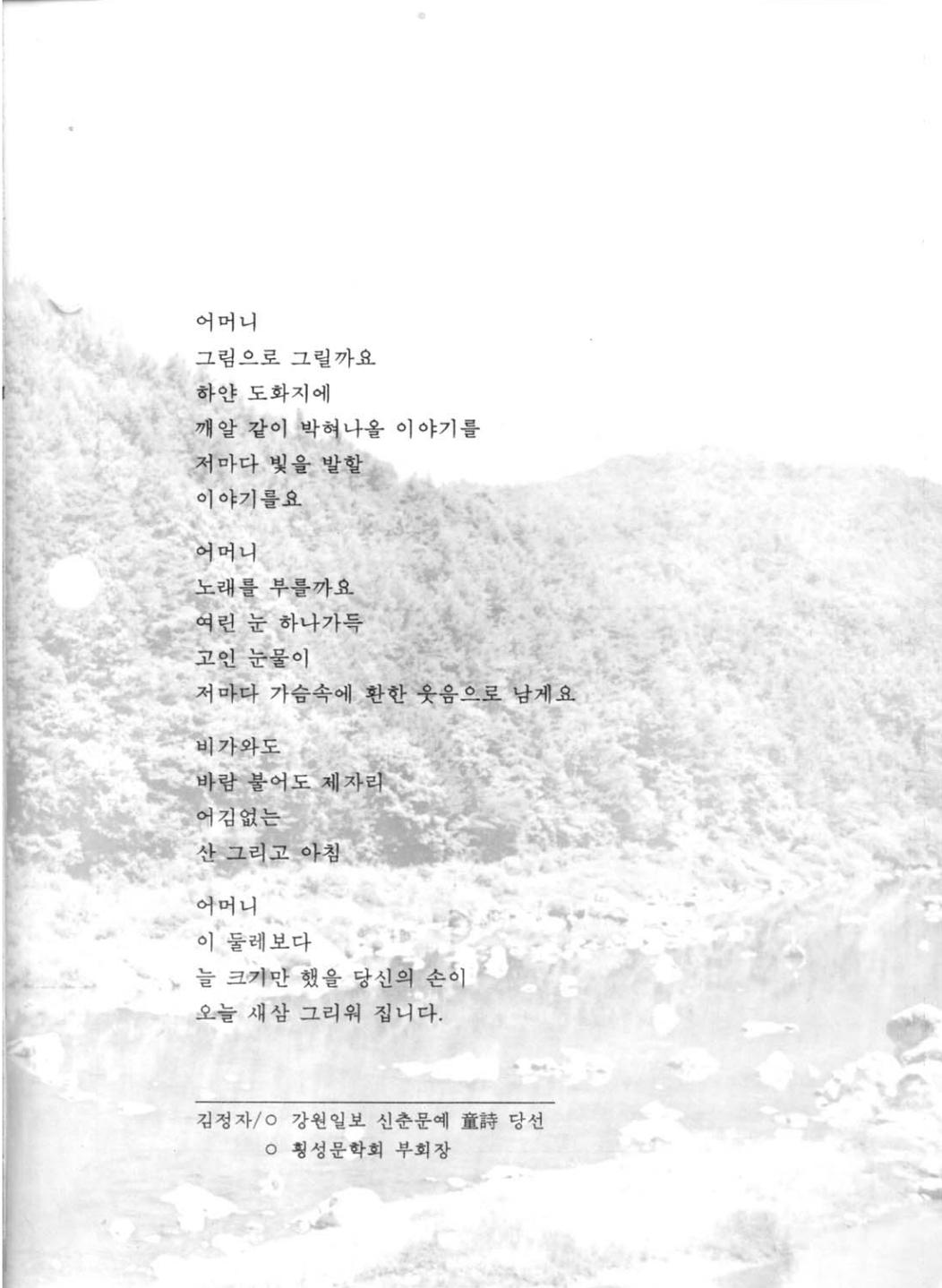
작은 설레임에서  
큰 기쁨까지  
모든것을 차지하던 빛이 보였습니다.

산 그림자가 드리우고  
물의 흐름에도  
우직함을 보이며  
아침을 맞는 조약돌

어제 저녁부터  
산허리를 둘러싸고  
사뭇 경지의 맛을 보던 구름도  
이젠  
한두어걸음 물러서는 아침

모두가  
빛입니다.





어머니  
그림으로 그릴까요  
하얀 도화지에  
개알 같이 박혀나올 이야기를  
저마다 빛을 발할  
이야기를요

어머니  
노래를 부를까요  
여린 눈 하나가득  
고인 눈물이  
저마다 가슴속에 환한 웃음으로 남게요

비가와도  
바람 불어도 제자리  
어김없는  
산 그리고 아침

어머니  
이 돌레보다  
늘 크기만 했을 당신의 손이  
오늘 새삼 그리워 집니다.

---

김정자/○ 강원일보 신춘문에 童詩 당선  
○ 횡성문화회 부회장

##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 橫城의 象徴



郡의 꽃 : 작약 (함박꽃)



郡의 새 : 白鷺



郡의 나무 : 느티나무

## 횡성군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뻗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횡 성 - 교 빛 겨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뻗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뵈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후렴]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횡 성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의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어사매  
荏 斯 豆

제 11 호

황성문화원

# 어사매

11호/1994



■ 발간사 .....	심진황
■ 축사 .....	조태진
■ 축사 .....	정우화
■ 축사 .....	김순렬

## 詩

선달 그믐 .....	김정자 · 18	무제 .....	정혜경 · 27
송능 한 대접 .....	강정식 · 21	만남 .....	박상희 · 29
도배를 하며 .....	강정식 · 23	이리 못 떠난다오 .....	김종구 · 31
섭리와 인연 .....	권용환 · 24		

## 漢 詩

어사매 충효정신 .....	학산 김종만 · 34
독 독립사 유감 .....	남은 조광식 · 35

## 특 집

횡성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	정재영 · 37
---------------------	----------

## 수 필

길 .....	이금자 · 80	어느 촌부의 소망 .....	이옥순 · 84
여름 손님 .....	이정예 · 82	존경받는 부모 .....	정진철 · 85

## 동 화

거만한 코대왕 .....	김양수 · 87
---------------	----------

■ 표지사진 작가소개 / 박만규 (1927년생)

- 제1회 "화양의 미" 「노을전」 1987년
- 백로사진전 (10회 개최)
- 제11회 백로사진전 (1994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



**주부문에**

자화상 .....	안은자 · 94	우리 아이 .....	이정재 · 103
우리 아이 .....	임희경 · 95	자화상 .....	김정순 · 105
질서 .....	이효자 · 96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에게 ..	박선희 · 107
자화상 .....	김흥기 · 98	감사와 기쁨이 있는 얼굴 ..	윤남이 · 109
우리 아이 .....	박명순 · 99	자화상 .....	이인숙 · 111
자화상 .....	이희숙 · 101		

**학생문에**

정월 대보름 .....	최윤경 · 114
오곡밥의 악몽 .....	이지혜 · 116
연에 마음을 담고 .....	박혜빈 · 117

**회 곡**

꿈으로 가는 열차 .....	이병복 · 119
-----------------	-----------

**황성의 문화유산**

황성의 소리 모음 .....	정금민속예술보존회 · 155
-----------------	-----------------

**부 록**

대례 친영 홀기 .....	어사매 편집실 제공 · 164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식사예절 .....	어사매 편집실 제공 · 171

**황성소식**

문화동향 .....	174
회원명부 .....	176

## 發 刊 辭



橫城文化院長 沈 辰 漢

지금 우리 사회는 科學의 發達로 民族과 國境을 超越하여 世界化되어 가는 이 시대에서 각종 外來文化는 洪水같이 밀려와 드디어는 우리의 안방까지 넘치고 있어 文化의 뿌리 의식이 사라져 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文化 同好人은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地方文化를 仁, 義, 禮를 根本으로 하여 先祖들의 傳統인 美風養俗과 道德性을 回復시켜 鄉土文化를 繼承 發展시켜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於斯買' 第11號는 우리 고장의 唯一한 橫城文化院의 鄉土誌로서 地域文化의 獨創性을 살리고 鄉土 文化의 發展 方向을 提示하여 橫城郡民들의 鄉土 文化 藝術 發展 能力 高揚과 밝은 文化 暢達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出鄉人士님들에게는 故鄉의 消息誌로서 접할 수 있도록 最善의 勞力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本誌 '於斯買' 發刊에 玉稿를 보내 주신 文學人! 그리고 生業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編輯을 맡아주신 編輯委員님들의 勞苦에 감사드립니다.

## 祝 辭



橫城郡守 趙 泰 鎮

지방 郷土文化의 脈을 이어온 郷土文藝誌 「於斯買 第11號」의 發刊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우리 橫城郡은 上古時代 마한의 영역에서 三國時代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정점의 중심지로서 高句麗, 新羅 혹은 百濟의 영역이 되기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橫城은 新羅때에는 「於斯買」라고 하였고, 高句麗의 땅이었을 때는 「橫川」으로 稱하기도 하다가 統一新羅 景德王때에는 「潢川」으로 改稱하였고, 高麗時代에 와서는 다시 橫川으로 하였다가 후에 現在 이름인 橫城으로 바뀌어 오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璽성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요함이 순박한 인심과 어우러져 우리 지역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희망의 땅입니다.

우리지방 선조들은 산자수명한 자연을 벗어나며 그 속에서 삶의 여유와 풍류를 즐기면서 독특한 문화를 후대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후손들은 이 훌륭하고 값진 문화의 전통을 무관심속에 소홀히 다루어 기억에서 멀어지고,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아름다운 문화유적과 빛나는 전통민속을 아끼고 맥을 이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할 보람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故郷을 사랑하고 아끼는 文化同好人들이 뜻을 한데모아 「於斯買 11號」를 발행하게 된 것은 우리 고장의 문화적 가치를 귀중하게 정리하는 기회는 물론 참으로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於斯買 11號」發刊을 계기로 우리 橫城地方의 아름다운 전통과 민속문화가 생명력을 지닌 생활의식 문화로 發展되고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郷土愛와 文化의 情熱이 합쳐진 우리 橫城人의 文藝誌를 發刊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주신 橫城文化院 관계자와 「於斯買」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感謝와 더불어 「於斯買 11號」發刊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祝 辭



橫城郡議會議長 정 우 화

사랑의 달 오월의 푸르름과 함께 어사매 제1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유일한 향토 문예지인 “어사매”가 제11호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높은 일, 보다 높은 정신, 보다 높은 문화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며, 이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곧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될 때 국가가 중흥되고 문화가 타락되었을 때 나라가 흥하지 못하고 온갖 범죄가 성행하며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우리 사회가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밀려오는 서구문화를 아무 준비도 없이 받아 들임으로서 퇴폐문화가 국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현 실정에서 우리의 올바른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어사매 제1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며 본 “어사매 제11호”가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과 정신문화를 신장시킴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문화역량을 결집하여 향토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월의 푸르름과 같이 전 군민이 어사매 제11호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정취와 희망을 가지고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건강한 문화발전이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사매 제11호 발간을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江原道橫城教育廳教育長 金 順 烈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본군 향토지 어사매 1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횡성은 우람한 태기산의 기상과 유유히 흐르는 섬강의 정기를 이어받아 도내에서 가장 먼저 항일투쟁의 깃발을 올린 3.1운동의 발상지로 구국정신과 애항심이 남다른 군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향토지를 발간 군민에게 배포하므로서 군민의 정서와 화합을 다지고 애항심을 고취시키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교육도 '95년도를 맞아 세계화를 주도할 능력과 인성을 갖춘 애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애항3운동 및 푸른횡성 가꾸기, 횡성군을 널리 알리는 관광요원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95강원도소년체전에서도 우승 3연패를 차지 횡성군민의 긍지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화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애항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사매 등 향토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화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발전되길 바라며, 본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詩

- ♣ 선달 그믐 / 김 정 자
- ♣ 송농 한대접 / 강 정 식
- ♣ 도배를 하며 / 강 정 식
- ♣ 攝理와 因縁 / 권 용 환
- ♣ 무제 / 정 혜 경
- ♣ 만남-와해를 겪은 여성들을 위하여 / 朴 尚 姬
- ♣ 이리 못 떠난다오 / 김 종 구

## 설달 그믐



김 정 자

임자

어젯밤 비오는 소리 들었는가  
갈그랑 갈그랑  
뜨락에 내려설랑  
목마른 우리애기 적셔주고 가더이

신발하나 채인 그 물이  
빗물이 아니라 그 애기라니까

황금 물결과 높은 빌딩  
내기 술값과 등록금……  
어제 그 비는  
오래 참음과 굳센 의지로만  
잡초처럼 그렇게 자라라 하더이

임자

우리에게 걸음마 시작하는 봄과  
푸른 빛만 반사하는 여름이 있고  
채색된 온갖 들과 산  
그리고 하얀 애기로 들끓는 겨울이 있어도  
그것은 눈으로만 들어와  
항상 눈병을 앓았지

## 詩

---

막내의 운동화 한 켤레가  
둘째 시집보내는 일이  
아내의 신경통 약이  
항상 마음에 걸리면서도  
입자 우린 또 새해를 맞는구먼

선달 그믐  
실시렁 돌아가는 멧돌이  
어쩌면 모든 아픔을 없애버리듯  
시원했는지 몰라

선달 그믐  
입던 옷 깨끗이 빨아  
머리맡에 두고 자던 자식들의 설빔  
아직도 들린다네  
제 어미 고무신 하얗게 씻던  
막내의 씨근덕 대던 소리가

## 詩

---

임자

그래도 쉬운편이지 우리 새해는  
널뛰고 연 날리고  
팽이채 권 모습이  
복엔들 있을라구

때때웃 입고  
세뱃돈 받고  
떡담아 들고 이웃찾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겐 없을라구

임자

그래도 그제 아닐세  
우리 그네들 복까지  
그네들 뭉까지  
오는 초하룻날엔  
복조리 두개를 마련해 둬세



---

김정자/○ 강원일보 신춘문예 童詩 당선  
○ 횡성문학회 부회장

## 승냥 한대접



강 정 식

무쇠 술에 태운  
승냥 한대접이  
내 잊었던 입맛을 되찾아 준다.

평생 동안  
허리가 굽도록  
부뚜막 못 떠나던  
어머니는 승냥 한대접으로  
아침 자주 때우고  
밀밭 보리밭 김을 매었지

의식주가 골고루 부족한  
난리 직후 살림은  
있는 집 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았는데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집안 형세를  
유년의 나는 겪었고

## 詩

---

세월이 갈 만큼 간  
이 시점에서  
한대접 승능에 담긴  
지난 시절을 음미한다.

- 
- 강정식/○ 황성군 공근면 상동리 271번지에서 출생  
○ 생년월일 : 1941년 6월 20일  
○ 90년 월간 "한국시" 및 "한맥문학"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흥천문협상임부회장  
○ 농협중앙회 흥천군청 출장소 소장 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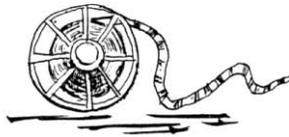
詩

---

## 도배를 하며

강 정 식

시간을  
바른다  
지나온 세월이  
남은 기간 보다 긴  
이 시점에서  
생활에 그슬린 벽에  
도배를 한다  
낙서로 가득찬  
내 일상적 흔적을  
점점으로  
전부 바른다.



## 攝理와 因緣



권 용 환

攝理와 因緣으로  
따뜻한 보금자리에  
魂을 앞세우고  
가장 작게 만났다

攝理와 因緣으로  
血球와 사랑을 먹고  
벌레에서 人間을 追求하며  
씨 뿌린이를 닮아 갔다.

攝理와 因緣으로  
열달만에 하늘과 땅이 보고 싶어  
거꾸로가 싶어 발길질을 했다  
꼬부렀던 四肢를  
허리와 함께 폈다

攝理와 因緣으로  
미끈한 노란물 토하고  
胎를 그리 쥐었다  
구겨진 허파가 퍼지는 苦痛  
울 수 밖에 없었다.

攝理와 因緣으로  
五官이 열리고  
五臟六腑가 運氣되어  
喜怒哀樂은  
주름과 핏줄이 드러나  
괴롭게 해를 지웠다.

攝理와 因緣으로  
自己닮은 새끼를 보며  
大地를 맘의 소금물로  
피쉬인 눈물로  
흠뻑 적시었다.

## 詩

---

攝理와 因緣으로  
가죽이 밀리고  
근육이 풀어지고  
樂이 메말라  
虛無에 눈망울이 움푹 패이면  
짚었던 지팡이 나 뿔군다.

攝理와 因緣으로  
바람 지나간 뒷자리  
어제 그 하늘  
어제 그 바위  
어제 그 물  
어제 그 흙



---

권용환/○ 한울림 예술연합회 회장  
○ 횡성문학회 회원

만남 - 이해를 넘어  
무 제

정혜경

이대로  
죽는다 한들  
그 많은 사연  
어찌  
두고 갈까나  
내 몸 죽어 혼백되어  
두고 두고  
되짚을 때  
어느 귀가 들어줄까  
어느 몸이  
멈춰 줄까  
  
흐느적 거리는 인생의 고뇌가  
한줌의 흙가루가 되어  
열풍을 일으키고  
  
높이 쌓은 생명의 숫자가  
하나둘 떨어져  
나 뒹구는 구나

무

모진 광풍을 어찌 막으리요  
흙먼지로 달려와 엉켜붙는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마른다.

모질게  
다가오는 시련이  
고통의 파편이 되어  
나의 삶속에 꽃으로  
피어 오른다.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아픔이여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아  
나의 삶속에서  
마음껏 사랑을 노래하게  
해다오

## 만남－와해를 겪은 여성들을 위하여

朴 尚 姬

江아

쉬지 말고 기다려주구

세월 들수록 꿈은 설익어

海原 어귀에서

자주 자주 되돌아보며

만삭의 배를 안고 너를 떠난다

아직도 어둠

아직도 어둠

몸속에 가라앉는 어둠의 고살길로

차츰 내딛는 조그만 날빛손

어머니적부터 흐른 신화가 환생되어

삼신 할머니는 엉덩이를 칠석이며

자줏색 땃줄을

하늘에 드리우고

너는 숨 터지듯 분분히 울리라

詩

---

江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울어 주러므나

은 산천이 깨어나

절망을 배울 때까지

은 천공이 일어나

절정의 만남을 이룰 때까지



## 이리 못 떠난다오



김종구

맑은 새벽 공기에 창문을 열면  
산신령이 타시던 흰구름이  
수리바위 산 허리에 걸려있네

개건너 동산에 울긋불긋 꽃잔치 연 다음  
온갖 산새들 지저귌 때면  
콩, 옥수수, 고추, 참외가 문전옥답 만드네

여보소 빨래하는 아낙네야  
이동에 져 가는 효자택 어느 집인가?  
저 산 돌아 굶이굽이 수아지 길 끝  
경섭이네 찾아 가소

溪川 냇물에 발가벗은 저 객들은  
여름내 노닐고도 길 떠날줄 모르는가?  
큰집 작은집 서른 여나쁜  
용기종기 모인 인심좋은 초현마을과  
알내물이 좋아 이리 못 떠난다오

김종구/○ 현재 청일면사무소 근무

# 漢 詩

♣ 於斯買 忠孝精神 / 金 鐘 萬

♣ 讀 獨立史 有感

— 毅庵 柳寅錫 先生 / 趙 廣 植



## 於斯買 忠孝精神



鶴山 金鐘萬

於斯文化擅吾東  
惟孝惟忠感是風  
鄒魯衣冠塵世遠  
漢唐日月古今同  
遺蹟昭昭千載積  
瑾花歷歷萬年紅  
溫良行跡隨時暢  
恭儉仁聲永未窮

### 於斯買 忠孝精神

어사매(횡성)문화가 우리 동녘 동운에 오르지 하니, 오직 효도와 오직 충성이 이 바람풍자에 감동하도다.

추나라 노나라 의관(풍습)은 이 세상에 멀어가고, 한나라 당나라의 날과 달은 옛과 지금이나 같도다.

꺼친 사적은 밝고 밝아 천년이 가도 쌓여 있고, 무궁화꽃은 지내고 지내 만년이 돼도 붉고 있도다.

온양한 행적은 때를 따라 빛나니, 공검한 어진 소리는 길이 궁하지 않다.

- 鶴山 金鐘萬 / ○ 본적 :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29번지  
○ 출생 : 1913년 5월 19일  
○ 한시 백일장에 다수 입상(전국)  
○ 저서 : 학산한시집(93년)  
○ 주소 : 원주시 태장2동 우성아파트 101동 408호

# 讀 獨立史 有感

— 毅庵 柳寅錫 先生 —



南隱 趙 廣 植

先生大義聞吾東	선생대의천오동
追慕于今感想通	추모우금감상통
執念恒存開聖學	집념항존개성학
雄圖尚在掃獐風	웅도상재소영풍
文章百歲詩中赫	문장백세시중혁
名望千秋史上紅	명망천추사상홍
回億當時倭襲擊	회억당시왜습격
賴斯光復樂無窮	뢰사광복락무궁

선생의 큰 의기 동방에 빛났으니  
추모하는 마음 지금도 감회가 새롭구나  
그의 장한 집념 성현의 가르침이었고  
웅장한 계략은 왜병을 물리침에 있었도다  
문장은 백년이 지나도 글속에서 빛나고  
명예와 덕망은 길이 역사에 남았도다  
왜병을 물리친 지난날을 생각하니  
그의 위엄 광복의 영광이 되었도다

南隱 趙廣植 / 橫城郡 橫城邑 靑龍里

「特輯」

## 橫城의 文化遺跡을 찾아서

정 재 영



횡성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248호 백로. 왜가리 번식지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 사진작가 박만규 작품 -)

## 橫城의 文化遺跡을 찾아서



정 재 영 (小說家, 文化院理事)

### 답사를 시작하며

지금 우리는 문명의 先進化에서 적지 않은 成功을 거두었으나 文化의 先進化에서는 失敗를 거듭하였다.

文化는 價値의 論理다.

日帝에서 隸屬과 左右葛藤이 힘의 論理를 選好하도록 誘發시킨 것이다.

感情的 추동이 힘을 키우고 문명의 발전을 가져 왔다. 그 대신 우리는 道德과 價値를 잃었다.

문명의 世界에서는 한없는 貪慾을 불러 일으킨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옷과 享樂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人間의 眞正한 幸福은 남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眞正한 意味의 主體性과 道德性은 바로 남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文明國家를 만들려고 努力하기 보다는 文化國家를 만드는데 더 힘을 쏟았다. 그것이 우리민족의 生活능력이요 生存능력이었다.

일찌기 백범 김구(金九)는

「나는 우리 나라가 世界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 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 한 바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 나라란 삼천만 민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文化국민 만이 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문화의 현주소를 찾아서 발로 우리땅을 누비며,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역사의 숨결을 전해 주는 뜻깊은 작업을 곳곳에서 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來日로 이어지는 길목인 同時에 來日을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고장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일일 것이다.

이런 趣旨에서 鎭성문화원은 좀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고장의 향토문화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기 위해, 鎭성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원지인 「어사매」에 每年 持續적으로 그 記錄들을 싣고 各種映像매체에 담아 保存키로 했다.

## 橫城 文化遺跡의 現住所

文化財란 保存의 價値가 充分히 있는 民族文化의 유산이다.

우리나라의 文化財는 國家지정文化財로 하여 種類別로 細分화하고 있으며, 文化財는 具體的으로 “國寶, 古蹟, 名勝, 天然기념물 其他 이에 준하는 것과 演劇, 音樂, 무용, 미술, 공예, 民俗등이 有形 無形의 文化的 유산으로서 특별히 保存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國寶, 寶物, 사적 및 명승, 天然기념물, 重要無形文化財, 重要民俗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市, 道 지정문화재는 有形문화재, 無形文化財, 記念物, 民俗자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밖에 市, 道 단위로 지정하는 문화재 자료와 市, 郡 단위로 지정하는 鄉土 유적이 있다.

현재 鎭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國家지정文化財를 보면 有, 無形文化財는 한점도 없고 書院面 압곡리에 있는 천연記念物 248호인 「왜가리, 백로 서식지」만이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있을 뿐이다.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國寶와 寶物 사적이 모두 58점이나 되는데 鎭성에는 단 한점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한 실정이다.

정말 우리 고장 鎭성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는 것인지, 어찌어찌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가지정문화재가 한점도

없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진흙속의 옥이라도 그것을 흙에서 꺼내고 갈고 닦을 때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고장의 문화재도 바르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다는 한단계 아래라 할 수 있는 강원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중금리 3층 석탑을 비롯해서 9점이 지정 돼 있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금의 횡성회다지소리가 유일하게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횡성군이 지정한 문화재 자료는 태종대와 운암정 횡성향교등 3점이 지정돼 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이 보유한 유수한 문화재가 올바른 대접을 받기 위해, 군민 모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國家指定文化財 現況

종류 시군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천	연	중요무형	중	요	계
							명	승	기념	물	문화재	민속자료		
전국 계	281	1,184	381	6	7	283	96	226	2,464					
강원도 계	7	47	4		1	24	2	10	95					
횡성군 계						1			1					1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재지 주소	지정일	관리 단체 관리 의무자	비 고
천연 기념물	248	횡성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사유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186의 2	1973. 10. 1	횡성군	

강원도 지정문화재 현황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계
105	5	64	1	175
횡성군 9	1			10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 재 지 주 소	지정일	관리단 체관리 의무자	비 고
유 형 문화재	19	중금리 삼층석탑	2기	국유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484	1971. 12. 16	횡성군	
	20	상동리 석불좌상	1구	"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95-1	"	"	
	21	상동리 삼층석탑	1기	"	"	"	"	
	22	읍하리 석불좌상	1구	"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8-1	"	"	
	23	읍하리 삼층석탑	1기	"	"	"	"	
	60	횡성신대리 삼층석탑	1기	봉복사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239	1979. 5. 30	봉복사	
	65	육절여	1동	사유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산 11	1981. 8. 5	서만경	
	69	횡성풍수원 천주교회	1동	사유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	1982. 11. 3	천주교 재단	
	110	문정공 조충지석	1점	횡성조씨 대종회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207-1	1989. 5. 1	횡성군	
무 형 문화재	4	횡성 회다지소리	선소리	양중하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1984. 12. 28		

문화재 자료

지 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소유자	주소지	관리 단체 지정일 관리의무자	
16	태종대	1동	횡성군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1984. 6. 2	횡성군
17	운암정	1동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산 7-1	1984. 6. 2	횡성군
100	횡성향교	1원	전 교	횡성읍 읍상리 산 12-2	1985. 1. 17	전 교

## 운곡(耘谷)의 발자취를 따라서

(강림의 문화유적 답사기)

지난 여름 어느날이었다.

경기 넘버를 단 승용차 한대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아저씨 구림 갈려면 어느쪽으로 가야 합니까?」

「구림이요? 그런곳은 황성에 없어요.

혹시 행선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치악산 밑에 있는 부곡을 갈려고 해요.

여기 지도에 분명히 구림리를 지나질 않습니까?」

나는 그가 내민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도에는 분명히 강림리가 구림리로 표기 되어 있었다.

「지도에 지명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구림리가 아니고 강림리예요. 안흥 가는 길을 따라 가다 안흥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에서 우회전 해서 강을 따라 죽 내려 가세요.

그러면 강림시장이 나오고 다시 그곳에서 비포장 도로를 4km 따라 올라가면 치악산 기슭 부곡리가 나와요」

난 그 잘못 표기 된 지도가 내탓이나 되듯 그 사람에게 미안해 했다.

그리곤 집으로 오는대로 집에 있는 지도들을 다 찾아 봤다.

아불싸!

우리 집에 있는 어느 지도에도 강림리는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원리(烏源里)는 조원리로, 속실리(粟實里)는 울실리로, 우용리(右用里)는 석용리로, 두곡리(杜谷里)는 우곡리로 오기(誤記)되어 있었다.

모두다 한자를 우리말로 바꿀때 한자음을 바르게 읽지 못한 결과에서 이런 엉터리 지명이 탄생한 것이다.

지도의 생명이 첫째도 정확성이고, 둘째도 정확성 일진대, 무려 한郡의 地名에서 이렇게 많은 엉터리 지명이 記錄되고, 매년 찍어내는 地圖마다 아무런 수정없이 이런 지도가 양산된다니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고장의 올바른 地名이 地圖에 바로 記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努力을 競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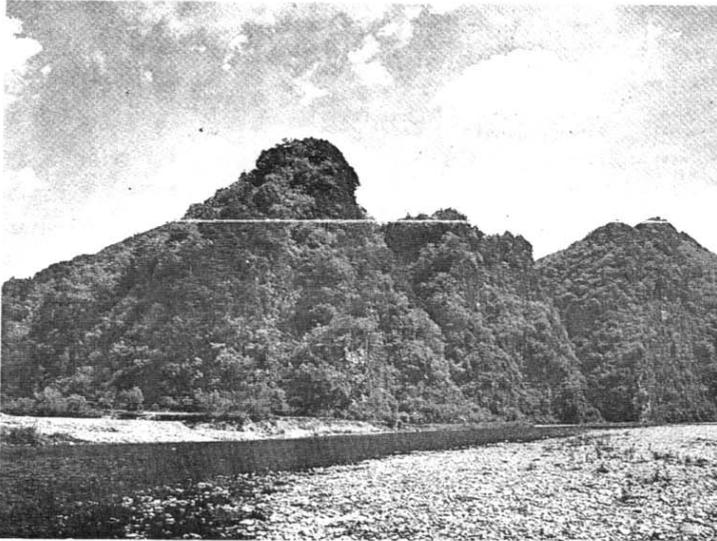
황성지방의 지명이 誤記된 지도.  
오원리(조원리), 속실(율실), 두곡(우곡)등 엉터리 지명이 곳곳에 보인다.

강림은 황성에서 32km 떨어진 치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지금이야 42번 국도인 새말 안흥간 도로가 포장되어 운행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황성서 강림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였다. 거기다가 전차가 중간에 턱 버티고 서 있어서 눈이라도 내렸다 하면 많은 차들이 고개 넘기를 주저 했었다.  
 안흥에서 강림에 이르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천강을 따라 나 있다. 그래서 운치가 있다. 예전에는 황성지방에서 손꼽히는 청정지역이었지만 안흥 위쪽의 축사와 유가공 공장의 폐수

로 수질은 많이 악화 돼 있었다.

안흥에서 2km에 이르면 삼형제 바위가 강가에 우뚝 서 있다. 바위산 셋이 어깨를 견고 있는 모습이 마냥 정겹기만 하다.

여름철이면 이곳은 서울 경기차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안흥에서 감람가는 강가에 있는 삼형제봉. 마치 삼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형상이 이름 그대로다. 돌속이 흰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강물이 맑다.

그런 연유로 이곳 주민들이 외지 차량을 보는 눈이 곱질 않다. 아무리 많은 외지 차량이 들이닥쳐도, 그들에게 돌아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고 남는 것은 각종 쓰레기와 썩썩한 위화감 뿐일테니까. 아무튼 10월의 주천강 상류는 그런 시골벽적이 없어서 좋았다.

강가에서 죽대를 든 마을 사람 몇이 돌을 들춰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 모습도 한가롭기만 했다.

「고기를 잡는 소리가 가고 오면서 애내곡을 부르니 어랑(고기 잡는 총각)의 흥치가 스스로 분명하더라 때에 사람은 나의 즐기는 것을 꾀히 강을 낀 나라의 생애가 세정이 아니더라.」

누구 작품인지 알 수 없지만 가천 마을에 내리는 안개비를 읊은 『住川 細雨』란 빼어난 시문(詩文)이 이곳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강림면은 면으로 승격된 지 얼마되지 않는다. 몇 년전까지는 안흥면의 일부였다. 그래서 면의 소재지는 작고 아담했다.

원래 계획은 강림의 유래가 된 覺林寺(講林寺)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부곡으로 들려고 했는데, 강림 의병총(義兵塚)이 먼저 강림 입구에 버티고 서서 발길을 멈추게 했다.



강림면 강림리 강림 의병총. 의병대장 민궁호와 이룡모를 무연고 의병들이 잠들어 있다.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월현리를 바라보고 있다.

강림 의병총은 강림 중학교 바로 위 길가에 위치해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얇은 산자락 양지바른 곳에서 그네들이 최후를 마친 월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병총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의병총을 오르는 계단 옆의 금송화가 늦가을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연스런 몸짓으로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다. 이름없는 의병들의 넋이 잠든 의병총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1908년 2월 29일! 그때도 주천강은 얼어붙고 매서운 추위는 의병들을 괴롭혔으리라.

의병대장 민궁호(閔肯鎬)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원주 주둔 제1진위대 제5대대 소속 특무정교로 항일전에 종군 했으며, 1907년 8월 10일 창의군의 관동대장으로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인영 의병대장과 서울에 있는 일본 통감부를 쳐 부수기 위해 서울로 진군했다. 그때 의병들이 소지한 실탄이 40,000발이나 되었고, 소총만도 1,200정이나 갖췄다고 하니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도 일본의 신무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서울 진격이 좌절된 민공호 의병장은 그후 계림라전으로 전환해 100회의 전투에서 수없이 일본군을 괴롭혔다.



강림 의병총 오르는 길. 안흥 소수력 발전소 협찬으로 제작된 듯 싶다. 비교적 주변경관이 잘 정리 되어 있으며, 오르는 계단 옆의 한열기 금송화가 곱기만 하다.

그후 60명의 의병들을 이끈 민공호는 1908년 2월 29일 원주군 소초면에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중 부상을 입게 된다. 그들은 다시 치악산을 넘어 월현리 하고비덕이라는 마을의 허모 이장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마을의 불순분자의 밀고로 영월의 관헌과 일본군의 기습을 받았다.

민공호는 주천강을 배수진으로 치고 분전했으나 민공호를 비롯한 다섯명의 의병들은 장렬히 전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일본관헌의 눈을 몰래 피해 하고비덕에다 이들을 장례 지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의병들의 묘는 세월 속에 묻혀 버렸다.

1984년 10월 10여곳에 산재 해 있던 의병들의 분묘가 발굴 수습되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의병총 주위의 운치 있는 노송 몇그루도 보기 좋았고 누가 했는지 금초도 깨끗이 되어 있었다.

각림사는 규모도 방대 했었지만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이 절에서 운곡 원천석 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웠던 것으로 더 유명하다.

『신증 동국여지승람』46권에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전 이곳 각림사에서 修學했다고 전하고 있다.

절의 규모는 문헌으로 미루어 치악산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거찰(巨刹)로 동국여지승람이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크게 번창했던 모양이다. 아무튼 이 절이름으로 인해 이곳 지명도 각림리로 부르게 되었으며 나중에 강림리로 개칭 되었다.

이절은 고려때 고승(高僧)인 나옹(懶翁)대사가 이곳에 와서 지형을 살핀후 이곳에 지팡이를 꽂고 절을 짓고, 농토 개발을 위해 치악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에 보를 막고, 인공소(人工沼)를 만들었다. 이때 만든沼 이름이 나옹소인데 그일로 인해 이곳에 農耕地가 개간 됐다고 한다.

실제로 나옹소 밑에는 제법 규모가 큰 논들이 꽤 여러마지기 됐다. 또한 마을 사람들 입을 빌리면 이 인공소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는 흙물이 흐를것이라고 나옹대사가 예언했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6·25사변 때 이 인공소에서 흙물이 흘러 내렸다고 한다. 또한 기록에는 태종이 왕이 된 후 이곳 절을 지나다 수레를 멈추고 늙은이들을 불러다 위로 했고, 이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으며 아울러 州의 관헌에게 명해 조세와 부역을 면해 줬다고 하니 이 절이 태종의 각별한 사랑과 지원을 받아 번창 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 절이 언제 어떤 연유로 폐사가 되었는지는 확실한 연혁지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일설에 의하면 평창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가 빈대가 심해 퇴락하자 불을 질러 없애고 이곳의 각림사를 헐어다 상원사를 복원하는데 썼다고 하나 어떤 문헌에도 그런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조선조 초엽의 문사 변계량(卜季良)은

『치악산이 동해 지방에 이름이 높고

이 산의 사찰 중에서 각림사가 가장 좋다.

구름, 연기, 바위, 동학(洞壑)이 몇천년이 되었는가?

땅의 신령한 기운이 천룡(天龍)의 모임을 웅위 하였네』라고 읊었다.

치악산 주위에는 수 많은 사찰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그는 이 각림사만을 으뜸으로 쳤던 것이다. 그런 명찰(名刹)의 흔적은 지금 아무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절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주변에서 고려말부터 조선조 시대로 들어 오면서 썼다는 평와(平瓦)가 다수 출토 됨으로 절의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옛날 번성했던 각림사지 터에는 지금 강림 우체국과 강림 성결교회가 들어서서 부처님 말씀대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종대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였다.

좁고 구불구불하고 흙먼지 풀색이고 명색이 치악산 국립공원인데 어쩔 이곳은 원주쪽 구룡사에 이르는 치악산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전 그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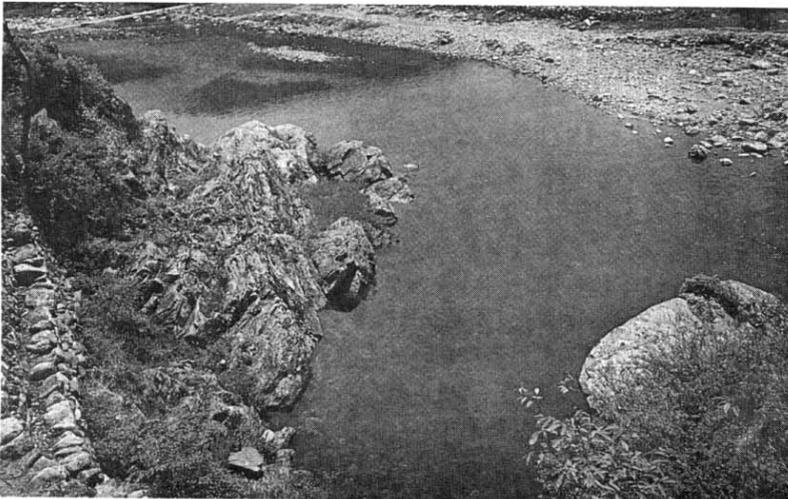
청정지역을 지키려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애뜻한 배려(?)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이 원주땅에 있어서 인지 이곳 치악산 자락은 철저히 소외 돼 있었다. 하긴 도로포장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갑천면 병지방 사람들은 군당국의 도로포장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포장이 곧 오염이라는 등식을 그네들은 여러곳에서 보아 왔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이곳 자연 모습은 현대문명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구연(驅淵)은 강림면 사무소에서 부곡리 가는길로 2km 정도 올라가 길가바위 벼랑밑에 위치해 있었다.

안내 표식판이 전무 해 그냥 차나 타고 획 지나가면 지나치기 십상일것 같았다. 나 자신도 태종대까지 올라 갔다가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되짚어 내려 와서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운곡 선생의 주요 유적지 일진데 안내 표지판 하나 세우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이런 일은 운곡의 유적지인 태종대, 변암, 횡지암, 누줄재 등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안내표지판은 없었다.



치악산 노고소



“구연”이라고 바위에 새긴글이 선명하다.

구연 : 운곡 선생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강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손님이 나의 간 곳을 묻거든 이 강물을 따라 갔다」고 대답하기를 당부하고 사실은 시루봉 300m 아래 변암으로 올라 갔다.

할머니는 백성으로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한 자책감으로 투신자살한 곳. 일명 노구소(老嫗沼)라 하며 예나 지금이나 물의 깊이가 같다고들 한다.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일면 노구소라고도 불리는 구연은 개울물이 갈수기에 해당하는 10월 입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물이 소를 이루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었지만 검푸른 물 빛깔로 미루어 주변 어느곳 보다도 깊은 것 같았다.

이곳 사람들 얘기로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사철 물의 깊이가 같다고 했다. 그런데 구연 바로 밑에서는 개울을 가로 지르는 교량 가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교량가설 공사로 이제 구연의 물깊이는 달라질 것이다.

교각을 세우느라고 구연 밑에는 여러개의 물웅덩이가 파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위한 필요불가분의 교량가설이겠지만 하필 역사적인 유적지 바로 밑에다 꼭 교량을 가설해야 하는지 묻

고 싶었다.

제자였던 태종 이 방원이 이곳을 찾아 오리라는 것을 운곡 선생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凡人이 아니었기에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는 마침 노구소 주변에서 빨래를 하는 노파를 발견했다.

노파도 운곡 선생을 잘 아는 터수였다. 운곡 선생은 대쪽같은 충절과 됴됨이로 인근 주민들의 흠모를 한몸에 받는 어른이었다.

「할멈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찾거든 내가 왼쪽 강물을 따라 갔다고 가리켜 드리게 알리지」

그리고 운곡은 할멈에게 부탁한 방향과는 반대인 시루봉 300m에 있는 변암(弁岩)으로 횡 하니 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으리으리한 행차가 할멈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빨래를 하고 있던 할멈에게 운곡 선생의 거처를 물었다. 할멈은 운곡선생과의 약조가 있었기에 변암의 반대인 횡지암(橫指岩)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켰다.

할멈 말만을 믿고 태종은 7일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만나길 바랐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나중에 임금을 속인 죄에 괴로워 하던 노파는 빨래하던 바위 꼭대기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투신했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할멈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제사를 지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끊어지고 만 모양이다. 안타까운 지고.

서울을 향해 발길을 돌린 태종은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후로 그곳은 배향산(拜向山)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원통한 마음으로 고개를 넘었다는 「원통재」, 고개마루 소나무에 곤룡포를 걸었다는 「대왕재」, 또 대왕의 수레가 넘었다는 수레넘이가 이곳 일대에 자리잡고 그 때 태종이 스승을 찾았다는 부동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태종이 7일 동안 머물렀다는 태종대는 노구소에서 30m 위쪽에 위치 해 있다.

태종대는 멀리서 보아도 깎아지른 듯한 벼랑위에 의연히 서 있는 모습이 결코 범상한 정자가 아님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운곡 선생을 만나기 위해 7일 동안 태종이 머물렀던 태종대 전경. 깎아지른 절벽위에 노송 몇 그루, 바람에 날리는 단풍잎, 그리고 절벽을 감돌아 흐르는 부곡천이 자못 멋스럽기만 하다.

길에서 오르는 길은 무척 수월했다.

계단에는 푸른 이끼가 역사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다.

나는 한계단 한계단을 오르며 운곡 선생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다.

운곡 원천석 선생, 과연 그는 누구인가?

태종의 방문을 물리칠 정도로 의연했던 만고의 충신.

무려 1144수의 한시를 후세에 남긴 당대 최고의 문학가. 또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

를 쓴 위대한 시인.

일찌기 부인을 사별하고도 80평생을 홀로 산 휴머니스트.

그리고 누출재라는 누추한 누옥에서 자연과合一되어 치악산의 일부분이 된 自然人. 그러나 용렬한 내 언어로는 우뚝 선 산봉우리로 다가오는 선생의 거대함을 더이상 달리 표현할 능력이 없었다.

태종대는 강원도 지정 문화재 자료 16호이다. 이 정도의 역사적 유적이 문화재 자료 감 밖에 못 된단 말인가?

도대체 문화재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잣대로 등급을 매기는 걸까?

그러나 그런 답답함도 잠시, 계단을 다 오르고 앞을 내다 보자,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에 난 절로 탄성을 질렀다. 길에서 오를 때는 별로 였는데 정자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가히 절경이었다. 30여 m는 실히 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주위에는 노송 몇그루가 개울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에 싹누런 솔잎을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횡지암 골짜기와 부곡에서 내려 온 개울과 합류한 부곡천은 곳곳에 돌에 부딪쳐 흰 포말을 푸른 하늘로 고기비늘처럼 뿜겨 올리며 도도히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거기다가 물살을 따라 떠 내려오는 오색의 단풍들. 태종대는 장정 수십명은 충분히 거 할 수 있는 커다란 바위위에 단아하게 앉아 있었다.

정자 안에는 7일동안 태종이 머물렀던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 「주필대(駐蹕臺)」와 태종대를 건립하게 된 경위를 적어 높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태종대 안에 있는 주필대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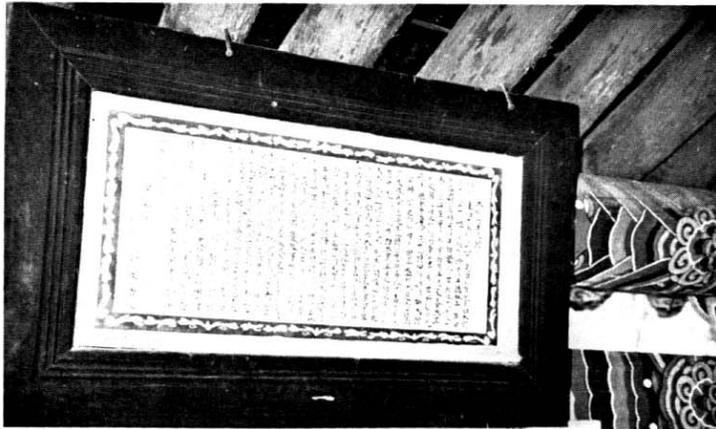
태종대

태종대 : 조선조 3대 태종(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찾아 7일간 머무르던 곳으로 운고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1723년 여름에 - 석벽에 새김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지금의 태종대는 쇠락한 건물을 1967년 중수도색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벌써 30여년이 흐른 탓인지 건물의 도색이 많이 훼손돼 있었다. 지붕에 군데군데 난 잡초가 푸르르기만한 하늘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가파른 절벽의 석벽에는 1723년 이를 새겼다는 「태종대(太宗臺)」란 글씨가 선명히 각자(刻字)되어 있었다.

노파가 태종에게 운곡의 거처를 잘 못 가르쳐 줬다는 횡지암은 태종대 바로 위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 고시 돼 산림이 훼손 되지 않고 사람의 내왕도 뜸했던 관계로 그 골짜기는 원시림 상태 그대로 였다.

꽤꼭히 들어 찬 나무들 사이로 창설모와 다람쥐가 낮선 방문객은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가로이 노닐고 있었다. 가도 가도 골짜기는 그 모습으로 이어져 있었다.



태종대의 건립 취지를 소상히 기록한 태종대 사적 현판

이 골짜기를 태종의 부하들이 7일 동안 운곡 선생을 찾으러 온산을 이잡듯 뒤졌겠지. 운곡 선생은 저 건너편 산 꼭대기 변암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었을 테고.

그때 운곡 선생 마음은 어떠 했을까?

나야 말대나 횡지암 골짜기를 나름대로 헤집고 다녔건만 횡지암이라고 짐작 될만한 바위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횡지암은 이 골짜기 전체가 해당 될지도 모를 일이다. 늦가을의 해는 그리 길지를 앓았다. 웬만하면 운곡 선생이 태종을 따 돌리고 기거 했다는 변암을 가 보고 강림기행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는데, 동행한 강림면 여직원은 '고갈바위(변암)'엘 가려면 전문 등산인도 하루해가 걸리는 난코스의 치악산 꼭대기라며 오늘은 어림도 없다는 투였다.

할 수 없었다. 다음을 기억하는 수 밖에 난 그 대신 변암에 새겨진 탁본 한점과 운곡선생이 주로 머무르며 시를 짓고 자연을 노래 했다는 누졸재(陋拙齋)의 탁본을 입수 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산을 내려 오며 운곡 선생의 대표적인 시조 한편을 읊조렸다. 고등학교 국어 책에 실린 선생의 대표작이다.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秋草로다.

오백년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그러자 동행했던 여직원도 대귀하며 한수 읊었다.

「눈맞아 휘어진 대를 뒤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節)이던 눈속에 푸르르라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참 좋은데요. 선생님」



운곡원전석 유적지 안내도

## 鶴마을과 취석정을 찾아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지기위해 길을 떠나기도 하고, 역사의 숨결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 떠나기도 하고, 또 화끈하게 놀아 볼려고 길을 떠나기도 한다. 또한 자녀들을 동반해서 자연을 배우고 가족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요즘 신세대 가장들은 여가시간을 활애하기도 한다.

서원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와 「취석정」기행은 부담없이 가족동반으로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 선뜻 추천할 만하다.

횡성에서 불과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하루 코스로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다. 준비품으로 가끔적이면 성능이 괜찮은 카메라와 쌍안경을 지참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답사길이 될 것이다.

원래 서원면(書院面)은 지금은 원주면에 편입된 칠봉서원(書院)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서원면은 조선 말엽까지는 고모곡면(古毛谷面)으로 원주군에 속해 있다. 1895년 횡성으로 편입되어, 면 이름도 칠봉서원의 명칭을 따 서원면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현리, 매호리, 압곡리 일부가 원주군에 편입되는 바람에 면이름만 남고 알맹이는 빠져 나가는 우스운 꼴이 됐다.

그래서 서원면은 面勢도 다른면에 비해 약하고 인구도 적다. 취석정 가는 길은 풍류시인이 은거하던 곳이라 그런지 웬지 멋스럽다. 우선 횡성에서 양평에 이르는 국도에서 서원면으로 꺾어 들면서 포장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은 1차선 도로였다.

요즘은 하다못해 마을 진입로도 2차선으로 포장되어 시원스레 달리는 편인데 항차 먼소재지 가는 길이 1차선이라니.

그래도 여유를 갖고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풍경이 차창을 스친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멋을 갖춘 개천이 도로를 따라 쉬임없이 흐르고, 산밑에 웅기 종기 정겹게 자리한 집들도 보기에 좋다.

그런 도로를 6km 정도 달리면 서원면 압곡리 물골이 나타난다. 물가에 있는 동네라 그런 이름이 붙여진 모양이다. 취석정 진입로는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이 진입로에 세워져 있다.

취석정까지 승용차도 드나들 수 있게 임도가 잘 닦여져 있다. 그러나 웬체 길이 좁고 포장이 안된 상태라 서로 길에서 만나면 교행하기가 힘들고 주차 공간도 원만치 않다.

취석정은 그렇게 물골 냇가를 따라 1.5km 정도 내려간 물가에 위치해 있다.

계곡은 언제봐도 아름답다. 봄에는 요염스레 바윗가를 불태우는 철쭉이 좋고,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속에 흐르는 물소리가 일품이고, 가을이면 처연한 몸짓으로 온산을 불태우는 단풍이 절경이다. 겨울은 겨울대로 한폭의 동양화처럼 안온한 설경이 좋다.

원래 취석정은 지금 있는 취석정 건너편 계곡 위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각아지른 절벽위에 위치 했으리란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저편 절경에서 술과 시를 벗삼아 평생을 이 계곡에서 보낸 멋쟁이 詩人 醉石公 崔文潑을 나는 머릿속에 그리며 취석정엘 올랐다.

술에 취하고 詩에 취하여 自然에 취하고. 그리고 보면 우리 황성은 가히 풍류를 아는 멋스런 분들이 많이 기거했던 고장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이다. 운곡 원천석 선생은 치악산 자락인 부곡에서 천여수가 넘는 시를 빚어 냈고, 취석 최문발 선생은 동시대는 아니지만 이곳 물골 취석정에서 600여수의 詩를 빚어 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천면 정금리 사람들이 소리로 전국을 제패하고.

취석정 앞에는 웅만한 동네는 몽땅 나와 천렵을 해도 자리가 남을 너래바위가 있다.

바위에는 취석 詩人이 새겨 놓았다는 醉石이란 글씨가 큼지막하게 새겨 있다. 돌이 술에 취하는 걸까? 사람이 그곳에 걸터 앉으면 취하는 걸까? 아무튼 사람이 아닌 자연이 취한다는 발상이 재미 있기만 하다.



서원면 압곡리 물골 계곡의 너래석. 취석 詩人의 친필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그러고 보면 詩人 崔석공도 문학의 마지막 경지라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무위자연에 들었던걸까?

아무튼 험차고 유려한 글씨로 써진 崔석의 친필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을안 저절로 피어나는 안개속에  
소당(小堂)이 동편 언덕에 새로이 지어졌네  
잔 띄울 물에는 물결도 잔잔하고  
승학대 절벽아래 崔석바위 높네.  
한낮에 팽택 버들 무럭무럭 자라니  
푸른봄이 이 무릉도원으로 다 들어 온 듯  
이미 산에 사는 즐거움을 얻었으니  
세상의 험뜯음을 면할까 하네.」

시 제목이 「水洞 溪上 結 小亭」으로 보아 崔석정을 산위에 짓고 흥에 겨워 읊은 詩 같다. 崔석정이 처음 지어진 것은 崔석의 나이 34세 때 일이었다. 崔석이 1607년에 태어났으니 1641년이 된다.



崔석 詩人이 詩와 술로 여생을 보낸 崔석정 전경.  
1984년 문중에 의해 복원됐다. 원래 위치는 지금 장소의 건너편 산 중턱이었다.

이 정자가 언제 없어 졌는지 확실한 연대를 아는 이는 없다. 그러나 횡성의 많은 향토지에는 이 정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84년 지금의 자리에 취석정을 복원했다. 취석은 유고집 『醉石詩集』에 595수의 주옥 같은 詩를 남겼다. 취석의 詩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에도 그의 詩는 없다. 그것은 그가 이렇다 할 벼슬을 하지 못하고, 그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질 않고 문중으로만 전해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詩의 물량면에서도 압권이지만 한수 한수가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한 것들이어서 한시의 문외한인 나같은 사람에게도 한귀절 한귀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취석정 옆에는 취석의 詩碑가 자연석과 오석이 조화를 이루며 단아하게 서있다. 문중에서 세웠든 어쨌든 우리고장에서는 유일한 詩碑임에는 틀림없다. 詩碑에는 『山中 偶吟』이 새겨져 있다.



취석정 옆에 세워진 취석 詩碑

詩人は 가고 없어도 그가 남긴 수많은 詩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이다.

새로 지은 취석정은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산 교육장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몇년내로 이곳의 임도가 원주 용곡과 산현으로 이어지면 이 계곡은 휴식과 배움을 함께 한 그런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곳은 이번 여름에도 어찌나 사람이 많이 몰려 왔는지 주차할 공간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자리잡을 공간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곤 했다고 한다.

한 여름에는 이곳 계곡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돼 약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푸른산에 마치 옥암목을 넘어 놓은 듯 백로 왜가리마을의 장관.

이곳 황성 사람들은 압곡리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 백로, 왜가리가 사는 학마을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인다.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 한점이 바로 이 압곡리의 「왜가리, 백로 서식지」이다. 이나마 없었으면 황성은 국가지정문화재하고는 영 인연이 全無할 뻔 했다. 그래서 황성군은 郡鳥로 백로를 지정했다. 한마디로 이곳 학마을의 백로는 황성의 자존심이랄 수 있다.

이곳이 천연기념물 248호로 지정된 것은 1973년 10월 1일이다. 학마은은 취석정이 있는 곳에서 서원면 면사무소 쪽으로 불과 70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물골에서 서원쪽으로 1차선 포장도로를 죽 따라 가다 보면 동화속의 학교 같은 작고 아름다운 압곡분교가 나오고, 거기서 눈을 들어 왼쪽의 야산을 바라보면 온통 산전체가 하얗게 물든 백로산이 보인다.

백로산은 높이가 50m가 채 안되는 얇막한 야산이다. 원래 백로와 왜가리는 일부러 인가가 가까운 야산에 둥지를 튼다고 한다. 영물로 알려진 이 새들은 인가 가까이 둥지를 틀면서 큰 산에 서식하는 삼팽이나 독수리 같은 천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이 산에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망이 산을 빙 둘러 쳐져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철망이 설치돼 있질 않아 산란기때 이 새들이 알을 낳아 놓으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다리키를 들고 들어가 한다리키씩 알을 꺼내 갔다고 한다.

어떤 목적에 의해 꼭 안으로 들어 가고 싶으면 사전에 군수님의 출입허가증을 발부 받아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탁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探鳥의 기회를 줄 양이면 철망 밖에서 사진 찍고 쌍안경을 이용해 관찰해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의 백로 사랑은 각별하다. 가끔 욕심이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래 산에 올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분이 못 돼 사람이 쫓아 오고 마을 스피커로 방송을 한다.

그야말로 점잖은 체면에 개망신 당하기 십상이다.

이 새들은 용케도 낯선 사람이 올라오면 온산 전체의 새들이 소릴 지르며 하늘로 날아 오른다. 그런 터수니 아무리 몰래 올라 간대도 새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일테니까.

이곳에 언제부터 이 새들이 날아 왔는지는 문헌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마을 사람들 얘기로 한 400년 전부터 이곳에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 들었다고 한다.

다른 문화유적지처럼 언제 찾아 가도 이 새들을 볼 수 있는건 아니다. 백로나 왜가리는 둘다 여름 철새이다. 그러니까 3월 초순에 새들이 날아와서는 여름을 나고 10월 중순이면 전부 이동한다. 조류학자들 얘기로 이새들이 필리핀까지 날아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날아 온다고 한다.

이곳에는 주로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끔 황로와 쇠백로도 눈에 띈다.

이곳 백로의 진면목을 볼려면 산란기가 끝나는 5·6월경이 될 것이다. 그때는 솜털에 덮힌 새끼에게 날아와 제 뱃속에 넣어 둔 먹이를 먹이는 사랑스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좀 지나면 새끼들의 앙징스런 비행연습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미기에 수컷의 구애 장면도 멋스럽다. 한껏 멋을 낸 수컷이 발정기가 되면 머리에 관 같은 털을 치켜 세우며 암컷을 유혹하는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은 몇시간이고 한자리에서 움직일 줄 모른다.

그런만큼 웬만큼 사진을 찍는 사람은 이곳 압곡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갈수록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먹이의 서식상태가 나빠지니 자연히 이곳을 찾는 새들의 숫자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

작년엔가는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부근의 묵은 고래실 논을 임대 해, 횡성군 일대의 율챙이들을 수집해다 개구리 사육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홍천에 사는 사진작가 「박만규」씨의 이곳 백로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각별하다. 그는 이 새들을 새로 보지 않고 자신의 분신처럼 대하며 사진을 찍고 백로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압곡분교에는 백로 응급약이 구비된 백로 병원이 개설 돼 있다.



천연기념물 248호 백로, 왜가리 보호 학교 압곡분교.  
이 학교에는 백로병원 간판도 걸려 있다.

압곡리 마을 한복판에는 횡성지역에서는 단 하나뿐인 노뚝돌이 있다. 노뚝돌은 노두돌이라고도 불리는 하마석(下馬石)으로 옛날 말을 타고 내릴때 쓰였던 큰 돌로 대문 앞에 놓여졌던 큰 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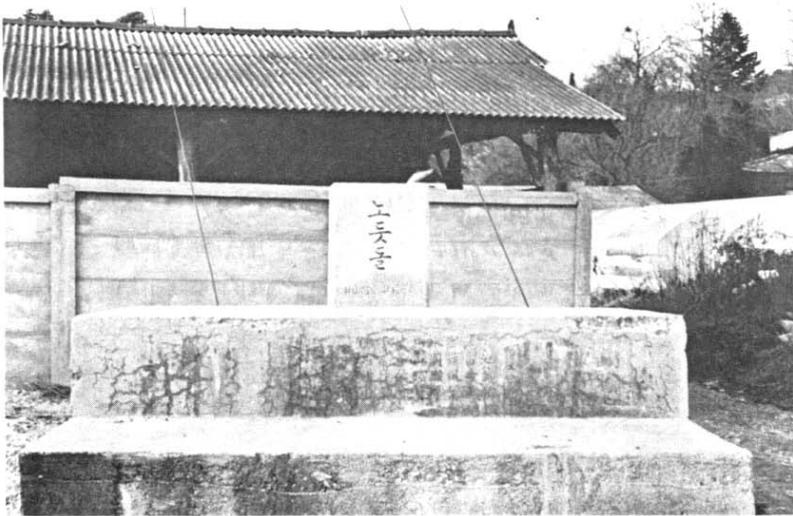
지금 압곡리의 노뚝돌은 옛날 사용했던 노뚝돌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감싸 대를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물건은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압곡리에는 집수만큼이나 자동차가 많다. 노뚝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 이 노뚝들위에는 취석의 시가 한 수 각인 돼 있어 이 고을이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성촌임을 말해주고 있다.

취석공은 술과 시로 여생을 보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닌다면 사대부 집안 아니면 어렵도 없을 터수였으니.

일설에 의하면 옛날 마을사람들은 정월 대보름 날 이 돌위에 올라서서 동쪽산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일년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한다.

노뚝들에서 동쪽산을 바라보면 산형세가 V자를 닮았는데 그 V자에 보름달이 밀므로 뜨면 물이 귀해 흉년이 들고 위로 뜨면 물이 흔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이런 풍습은 횡성 다른 고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달불근놀이」라고 열나흔날 수수깡을 반으로 쪼갠다음 이곳에다 콩알 열두개를 박은 다음 단단히 합쳐서 우물에 담근 다음 다음날 일찍 그 수수깡을 꺼내 보고, 콩이 많이 붙은 달은 물이 흔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물이 귀할 징조라고 장기 기상예보를 했던 것이다.



취석공 후손들이 많이 사는 압곡리 마을에는 말을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쓰였다는 하마석인 노뚝들이 있다.

이런 풍습들의 사실여부를 떠나 농경민족인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기상변화에 관심이 많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dut돌 표석에는 취석 詩人의 詩 八景이 새겨져 있는데 취석 詩人이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못 둔지에서 오리가 놀고  
범수산에서 두견새가 운다.  
굴아우굴의 붉은 단풍  
물골의 여울 소리  
마산의 넘어 가는 달.  
용곡의 돌아가는 구름.  
거멍터에서 약을 캔다.  
덕고개에서 밭갈이」

하루쯤 짬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 다녀와 볼만한 곳으로 이곳을 다시한번 권해 보고 싶다.



노dut돌에는 압곡의 경치를 예찬한 취석 詩人의 詩 八景이 새겨져 있다.

## 영원한 聖地 풍수원성당을 찾아서

「강원도 천주교발상지, 강원도 최초의 고딕식 건물, 우리나라에서 서너번째로 먼저 세워진 성당, 그리고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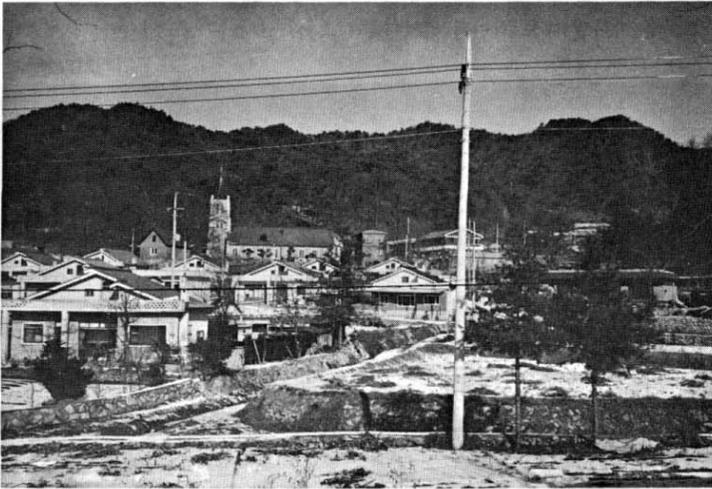
이런 진기한 기록을 가진 풍수원성당이 하필이면 그 당시로서는 산간오지였던 궁벽한 외진산골 풍수원에 자리했을까? 나는 답사를 떠나면서 내내 그 생각 뿐이었다.

지금이야 서울가는 국도변이라지만 문헌에 보면 지금부터 100년전 이곳은 우마차 길도 없는 소로길로 사람들이 왕래했을 뿐이라고 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풍수원 끝자락에 붙은 고개는 험하기로 소문이 났었고 오죽하면 도둑이 자주 출몰해 도둑머리 고개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읽은 「천주교 박해사」에 내가 품었던 의문이 명료하게 풀림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지형적인 악조건이 바로 이땅에 천주교인들이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해 준 셈이었다.



풍수원 성당은 서원면 유현2리 있다.  
불란서 2층 집들이 고딕 양식인 성당과 썩 잘 어울린다.

그들은 이땅에 피바람을 몰고 온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의 천주교 박해로 오

직 천주님을 향한 신앙심 하나로 관의 눈을 피해 숨어 살만할 곳을 찾다가 이곳이 적지임을 알고 하나둘 모여 들었으리라.

풍수원 성당은 서원면 유현2리 1097번지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 성당을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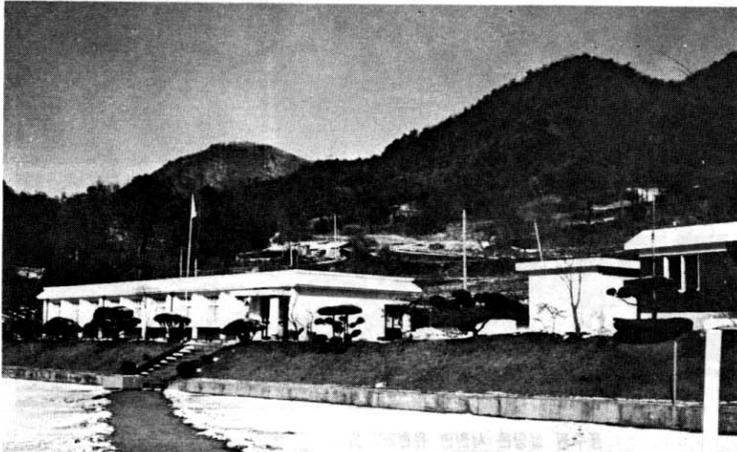
아마 강원도에서 최초로 지어진 고딕 건축 양식과 강원도 최초의 천주교 발상지였기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곳은 횡성에서 하루에도 꽤 많은 수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서울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에 속했다.

성당은 길에서도 얼른 알아 볼 수 있도록 동네에 우뚝 솟아 있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은 사압력(斜壓力)을 輕感시키기 위해 지골공룡, 버팀도리, 첨두아치를 조직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그래서 지붕 끝은 피뢰침을 영상할 만치 하늘로 솟아 올랐고, 벽면이 될 수 있는 한 줄어들었고 자연히 많은 창문이 생기게 된다.

이런 연유로 고딕식 성당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풍수원 마을은 생각처럼 그리 크지 않다. 1개리라고 하지만 40호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은 고딕식 성당을 중심으로 40여호의 고마고마한 집들이 그림처럼 둘러 쌓여 있었다.

공교롭게도 마을의 집들은 하나같이 불란서 2층집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당과 썩 잘 어울렸다. 나는 성당에 들르기 앞서 마을 입구에 있는 광동분교에 먼저 들렀다. 이곳 학교도 다 큰 농촌학교처럼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다.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였던 광동분교. 지금은 이농현상의 여파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돼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이곳이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였는가? 학교는 방과후인지 운동장에는 한명의 아이들도 없었다. 일없는 동네개들 서너마리만 낮선 방문객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학교에는 방학중이라 당직 선생님 한분만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배려로 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빛바랜 학교 연혁지를 들춰보며 100년의 학교 역사를 되짚어 나갔다.

꼭 100년전 지금의 성당을 피와 땀으로 건축한 정규하 신부는 강원도 최초로 『성심서원』이란 간판을 걸고 척박한 이땅에 교육사업을 시작한다.

학생수는 30명. 교회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교직원이 구성되었고 학생들은 신학문인 한글과 수학을 배웠고 한문도 배웠다.

해방 다음해 학교 이름은 광동국민학교로 바뀌어 졌고, 1972년 천주교재단에서 황성군 공립학교로 변경인가 되었다.

그후 학생수 감소로 1982년 국민학교 간판을 내리고 이웃 유현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지금 이 작은 미니학교의 학생수는 12명이다. 한교실에서 3개 학년이 한 선생님의로부터 복식 수업을 받고 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령화는 이렇게 멀쩡하던 학교들을 문닫게 하고 있다.

흰눈이 희끗희끗 깔린 성당은 정갈하고 더 한층 장엄했다. 정규하 신부가 심으셨다는 성당 마당의 두그루의 느티나무가, 의연한 자세로 겨울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정수리에 까치집 서너개를 이고 서 있었다.

화단가에 가즈런히 심어져 있는 산수유나무에는 철지난 빨간 산수유열매가 눈속에서 꽃처럼 피어 나고 있었다.

먼저 성당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 성당 출입문을 들어섰다. 성당은 양쪽으로 6개씩 모두 12개의 8각 나무 기둥이 성당을 떠 받들고 있었다. 보통건물은 통상 기둥이 벽에 밀착되기 마련인데 이 건물은 기둥이 건물 안쪽에 위치해 있어 이런 건물에 익숙치 않은 방문객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다.

또 8각형의 나무 기둥은 회색바탕에 벽돌 무늬가 새겨져 있어 흰색의 실내에 안정된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의 눈을 끈 것은 정면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뿜어 나오는 현란한 빛의 향연이었다.

햇살을 받은 스테인드글라스는 오색영롱한 빛들을 성당 마루바닥에 되 받아 비춰주고 있었다.

역시 고딕식 성당의 압권은 벽면에 위치한 스테인드글라스였다. 이 건물은 서울명동 성당을 본 떠 정규하 신부가 손수 설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양식 건축기술자를 직접 데려

다가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 벽을 쌓는 벽돌은 옹기가마를 만들고 진흙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건축 자재인 목재, 백회, 함석등을 서울에서 이곳 궁벽한 산골까지 운반하는 일이었다.

서울서 양평까지 소금배로 운반된 건축자재는 양평서부터 이곳까지 소와 신자들의 인력이 주된 수송 수단이었다.

신자들은 농사일은 한쪽 켠에 밀어 놓고 손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는 대역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고된일에도 신바람이 났고 농사도 천주님의 도움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은 이곳에 우뚝하게 설 수가 있었다.

지금 이곳 성당 근처 유현리 사람들은 90%이상이 천주교 신자이다. 또한 이 성당 출신 신부만도 30여명이 넘게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런일은 우리나라 어느 천주교 역사에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이 성당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성당 뒤편의 피정의집에는 이 천주교 유적지를 보기 위해 순례객들이 일년내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우리고장의 영원한 천주교 聖地풍수원 성당. 종교 유무를 떠나 한번 다녀 와 볼만한 곳임에 틀림없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69호인 풍수원 천주교회 전경.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가 고딕양식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

## 돌부처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은 이곳의 행정구역 이름인 상동리 보다 「부체이」라고 해야 더 잘 안다. 옛날 안내양이 있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부체이 간다고 하면 금방 알아 듣고 요금을 계산 했지만, 상동을 간다면 거기가 어디냐고 오히려 되물곤 했다.

부체이라는 동네이름은 부처에서 유래된 말이다. 동네 이름이 말해주듯 이 동네는 부처와 탑 그리고 절에 관한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돌부처거리는 바로 이 마을의 자연부락 이름이다. 흥천군 좌운 저수지에서 발원하는 규모가 꽤 큰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경계로 마을이 부창리와 상동리로 나뉜다.

아마 횡성 어느 마을도 이곳처럼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곳에는 돌부처거리에 있는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0호와 21인 상동리 석불과 석탑이 있고, 횡성군청 느티나무 밑에 있는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2호와 23호인 읍하리 석불좌상과 삼층석탑도 이곳에 있던것을 일제때 지금의 장소로 옮긴 것이다.

또 마을 윗쪽 「삼원수굴」은 횡성의 대표적 인물 「조충」의 생가터와 그의 사당 「세덕사」가 있었다.

세덕사는 근년에 횡성조씨 문중의 집성촌인 횡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로 이전 되었지만 세덕사가 있던 그 자리에는 조충의 유적비가 서 있다.



상동리 마을전경 「석불교」란 다리만 건너면 상동리 이다. 사람들은 상동리보다 돌부처거리래야 더 잘 알아 듣는다. 멀리 석탑과 석불이 보인다.

상동리는 횡성군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 상동리 뒷동네에서 개울 하나만 건너면 홍천군 좌운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옛날 교통이 불편했을 때는 횡성장 보다는 홍천 좌운장을 더 많이 이용했다.

요즘도 이곳 사람들은 떡을 하거나 기름을 짜기 위해 홍천 좌운장 나들이를 자주한다.

이곳을 찾아오는 길은 외통길이다. 다른 우회로가 없다.

횡성에서 춘천 방향으로 7km 위치 한 공근면 소재지에서 900m 올라가 좌운 방향 표시판을 보고 우회전에서 곧은길로 10km 올라가면 바로 상동리가 나온다. 석불과 석탑은 바로 부창리와 상동리의 경계면에 위치한 시멘트 다리 건너 논 한가운데 있다.

향토역사지에는 이곳을 석불평(石佛坪)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억지추향으로 한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곳 사람들은 그저 부체이나 돌부처거리 래야 통한다.

이곳 탑과 석불도 물론 문헌에는 없다. 언제, 누가 창건 했으며 절 규모와 정확한 위치도 문헌으로 전하는 바는 없다.

다만 문헌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향토역사지인 「횡성군지」, 「횡성의 맥」, 「고향」에서는 한결같이 지금의 석불과 석탑 주위에 큰절이 있었으며 마을 부근에 여러개의 작은절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석불과 석탑 양식으로 보아 사찰은 신라중기 이후에 창건되었을 것이며 절이름은 성덕사(成德寺)였었다.

그리고 절 주위는 숲이 무성해서 앞쪽의 금계천과 더불어 제법 운치있는 고찰(古刹)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절 成德寺가 삼원수굴 만태산 중턱 굴바우 근처로 옮기게 된 것은 조선시대 태조 때였다.

조선시대 들어 급격히 인구가 늘고 농지개간의 필요성에 따라 급기야 이 절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비운을 맞게 된다.

아마 표면적인 이유는 농지개간 이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조의 「승유배불(崇儒排佛)」정책이었을 것이다. 비단 절이 마을에서 산속으로 쫓겨나게 된 것은 이곳 한군데 뿐이 아니었다. 전국의 마을 한복판에 있던 절들은 하루아침에 산속으로 쫓김을 당했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 절을 세운 사람은 대학사(大鶴師)였다고 한다. 그리고 만태산으로 옮겨진 성덕사는 줄어 든 규모로 근근히 유지되다가, 조선 중기때 불탔다고 한다.

지금은 굴바위 내부를 수리하고 굴암암(窟岩庵)으로 명명(命名)해 성덕사의 전통은 근근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돌부처거리에 큰 절이 있었다는 것은 요즘도 이곳 땅속에서는 절 지붕에 얹었던 기와 파편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석불이 있던 곳에는 돌을 네모나게 잘라 길에 칸 돌통행로가 땅

속에 묻혀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상동리 삼층석탑과 석불좌상 공근면 상동리 석불교 건너 길가 눈에 있다.

이곳 석탑은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1호로 지정 받았다. 그리고 군에서는 다음해 철책을 두르고 철계로 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세웠다. 지금 이 탑은 기단부(基壇部)의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어 상대갑석(上臺甲石)과 면석(面石)의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서 정확히 기단부를 파악할 수 없지만 건축양식으로 미루어 또 하나 하대(下臺) 기단부가 있으리라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탑은 탑두부 부분이 전혀 없다. 아마 이 탑이 훼손되어 뒹굴 때 없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이 탑은 밑부분과 꼭대기 부분이 없다. 탑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작품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다. 즉 사분원(四分圓)과 각형 받침 위에 탑신은 3층으로 세워져 있는데, 1층의 옥신(屋身)과 옥개(屋蓋)에 비해 2층과 3층의 옥신과 옥개는 현저히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실측 결과 1층의 옥개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90cm인데 비해 2층과 3층의 옥개석의 길이는 각각 77cm, 60cm였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이 탑이 신라 하대의 작품이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다. 기단부의 갑석 귀퉁이도 조금씩 깨어져 있고 탑신부의 옥개석의 귀퉁이도 깨어져 나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탑은 볼 때마다 보는이로 하여금 장중함과 듚직함을 느끼게

한다.

이 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다. 또한 이탑의 어느 부분에도 문양은 없다. 그런 꾸미지 않은 순수함이 또한 이 탑만이 지닌 소박한 아름다움 일런지 모른다.

그리고 이 탑의 3층 옥신부는 필자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제치가 아닌 듯싶다. 이것은 이 탑을 이곳에 옮겨 온 그 당시의 마을 사람들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 탑이 지금의 장소에 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곳 주변은 개울을 끼고 굉장한 산골이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석불과 탑의 기단부만 땅에 묻혀 있었다.

때는 1949년. 그 당시만 해도 광복은 되었지만 좌우익의 대결로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뜻있는 마을의 젊은 사람들로 조직된 청년단이 마을의 질서를 지켜가고 있었다.

이름하여 한국청년대. 이 청년대의 열정으로 이 탑은 소멸의 위기에서 다시 역사의 무대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1호를 지정된 삼층석탑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꾸미지 않은 순수함이 좋다.  
기단부 일부와 탑두부를 볼 수 없는게 안타깝다.

그때 이 마을의 간이학교 교사로 있던 마을 청년대 대장 이상준(현재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1반 거주, 75세)씨는 마을 청년들과 뜻을 모아 근처에 나뭇가에는 이 탑의 잔해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역사학도도 아니었고 관의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이 사는 고장 선조들의 손길이 닿은 역사적 산물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찾으려 했고 복원시키려 애를 썼다.

그들은 개울가에 뭇가에는 탑신의 옥개를 찾아다 목도로 이곳까지 옮겨다 놓았고, 논 귀퉁이에 뭇가에는 옥신 덩어리를 목도 해다 이곳으로 옮겨다 이 탑 기단부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탑신 위쪽의 탑두부는 찾을 길이 없었다. 그들은 근처 땅을 파 보기도 했다.

그러나 땅속에도 탑의 탑두부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땅속에 난 돌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곳에 큰 절이 있었다는 요지부동의 증거물이었다.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된 상동리 석불좌상  
중후하고 온화한 부처의 모습에서 신라 미술의 사실미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역사적인 지식이 없던 그들은 옛날에 절에 드나들기 좋게 깎아논 돌길이었거나 생각만 하고 더이상의 발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흙이 덮여지고 논의 되어 버렸다.

탐 오른쪽에 있는 석불좌상은 역시 같은 날 도로부터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20호로.

이 불상 역시 신라시대의 작품이다. 왼쪽의 석탑과 마찬가지로 이 불상(佛像) 역시 어떤 문헌기록도 전하지 않고 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 불상이 발견된 것은 일제 침략기였을 때였고 논밭을 갈다가 발견이 된 모양이다.

이때 발견된 부처가 男佛과 女佛이었는데, 사람들은 두 불상을 한 장소에 모셔 놓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밤새도록 두 불상은 싸움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부처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괴이하게 여긴 주민들은 이 두 불상을 찾으려 온 동네를 핀담했는데, 여불은 파위에 밀렸는지 이곳에서 500m 떨어진 버섯소에 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남불은 산을 하나 넘어 앞산 골짜기에 가 있더라는 것이다. 몸은 온전했으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어떻게 산을 넘어 그곳까지 갔는지 정말 희안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남불(男佛)이 이동했다는 골짜기 이름은 지금 수골이라고 불리고 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얘기에 불과하지만 이 얘기 속에는, 부처를 향한 경외감과 부처만이 지닌神通력이 얘기 곳곳에 붙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때 두 불상중 하나는 6.25직후 황성읍 3.1공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공원을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온화한 미소를 던져 주고 있다.

왜 두 불상중 하나가 황성읍으로 옮겨졌는지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알 길이 없다.

두 불상이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떼어는 건지?... 이 불상은 발견 당시부터 광배(光背)가 파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상을 받치는 대좌(臺座)와 불신(佛身)은 완전한 모양이었다. 신라 말기의 불상이 더 그러하듯 이 불상도 신라 전성기의 불상답게 이상적인 사실미(事實美)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뚜렷이 솟은 육계(불상의 머리 부분), 촘촘한 나발(螺髮)의 머리칼, 둥글고 북스러우면서도 온화함과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당당한 가슴과 잘숙한 허리, 강마촉지(降魔觸地) 자세의 두손, 결가부좌의 흐트러짐없는 자세, 심지어는 불의(佛衣)의 유려한 옷주름 까지도 사실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역력히 엿볼 수 있다.

불상을 떠 만들고 있는 대좌는 8각형의 연꽃이 새겨져 있고, 하대는 땅속에 묻혀 있어 그 모양새를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윗부분 상대는 양련(仰蓮)을 새겼으며, 중대의 8각 간석에는 안상(眼象)을 새겨 전형적인 9세기 불상 대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련의 특징을 미루어 이 불상은 8세기의 불교 양식을 잘 계승한 9세기 신라 불상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이 불상의 노출된 부분은 약 180cm쯤 된다.

1000년 세월을 증명하듯 불상 곳곳의 푸른 이끼는 보는이로 하여금 다시한번 세월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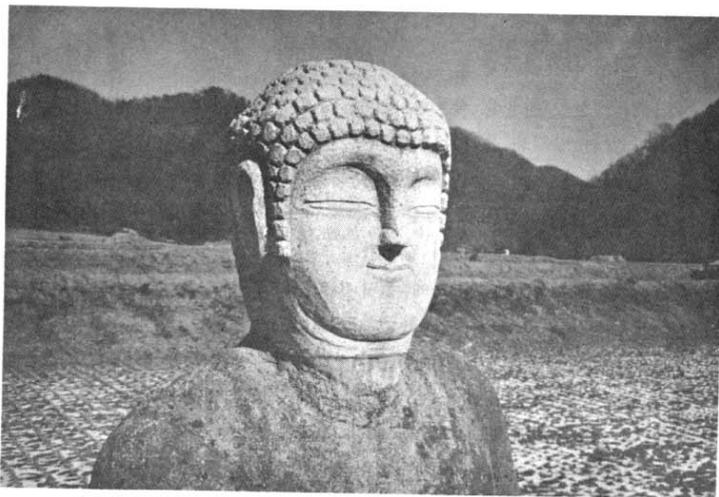
천년 풍우와 인고의 세월속에 늘 우리곁에 있던 이 불상은 또 한번 시련을 겪게 된다.

1989년 10월 21일!

밤사이 부처의 머리가 사라졌다.

주민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아무리 갈데까지 다 간 요즘이라지만 부처님 머리를 훔쳐 가다니...



물지각한 인간에 의해 은화롭고 자비롭던 부처의 머리가 도난 당하고,  
지금은 어색하기만한 부처의 머리가 시멘트로 붙여져 보는이로 하여금  
씁쓰레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한번 사라진 불상의 머리는 되찾을 방법이 없었다.

어쩌면 불상의 머리는 도굴꾼들에 의해 돈많은 집 정원석에 장식품으로 전락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어느 골동품 가게의 한 귀퉁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신을 사갈 주인을 기다릴런지도 모른다.

졸지에 불상은 머리를 잃고 불성 사나운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안스러워 차마 그 불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해야만 했다.

기다려도 잃어버린 머리가 되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군당국에 대용품이라도 좋으니 불상의 머리를 복원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렇게 해서 9세기의 몸통이에 21세기의 머리가 합쳐지는 기묘한 미술품이 태어나게 되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모양새부터가 그게 아니었다. 육계도 나발도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외관이 그러하니 자비롭고 온화한 부처님 얼굴이 나오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요즘 세태의 한 단면인 빨리빨리의 행태에 씩스레함을 느끼게 된다.

이왕 잃어버린 머리를 복원할 양이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갖고 비슷하게나 만들었어야지. 먼저 모습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놓고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새 머리의 부처 모습에서는 어디에도 예전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없었다.

거기다가 머리를 몸통과 이은 부분은 임시변통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시멘트로 접속을 시켜 놓다니. 이래도 되는건가?

나는 저녁놀이 지는 서쪽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며 앉아있는 돌부처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서글픔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는 돌부처거리 석불좌상에서 받은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전환시킬 겸 그곳에서 금계천을 따라 500m 아래에 위치한 선강정(仙降亭)을 찾았다. 풍류시인 김삿갓도 이곳의 빼어난 절경에 매료돼 시 한수를 남기고 길을 떠났다지 않는가.

과연 선강정은 그런 칭찬을 받을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선강정이 있었다는 자그마한 동산에 올라 보니 정자가 있었던 흔적은 한군데도 없었다.

하다못해 정자를 지을 때 썼음직한 머리돌이나, 깨진 기와장도 눈에 띄질 않았다. 나는 동산 끄트머리에 앉아 물아래를 내려다 봤다. 15m는 실히 돼 보이는 절벽 밑 개울물은 하얗게 쾅쾅 얼어 붙어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다.

선강정 주위에 몇그루 있는 노송은 금계천에서 불어오는 실바람에 솔잎이 바스락 거리고 주변의 노거수들도 푸르른 녹음으로 한껏 치장하고 멋스런 몸짓으로 너울 거릴테고, 절벽아래 깊은 소에는 가끔 이곳을 찾는 물오리떼가 물속의 물고기를 따라 바쁜 몸짓으로 자맥질을 하고, 언덕 위 정자에서는 화문석 돛자리에 누워 도연명이나 두보의 시를 한껏 멋을 부려 낭랑한 목소리로 시조창을 뽑아 올리고...

아마 이 정자가 지어 저 이 일대의 글 꽤나 한다는 선비들이 모였을 때는 그러 했으리라.

이 정자는 조선 숙종 때 유수천이 낙향하여 산수를 벗 삼으며 書亭으로 쓰기 위해 이곳에 지었다고 한다.

훈학(訓學)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고 여름철이면 이곳 개울에 낚시를 드리우며 멋스런 생을 보냈던 모양이다. 아무튼 여름철 한번 이곳을 다시 찾아봐야겠다.



조선조 숙종때 유수천이 낙향하여 書亭으로 지었다는 선강정  
지금 정자의 흔적은 찾을 길 없고 마을 서낭당이 그자리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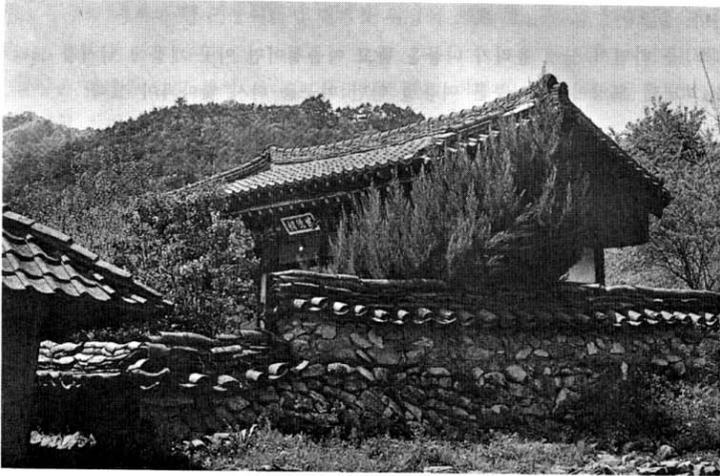
조충 장군으로 더 잘 알려진 삼원수란 동네는, 돌부처 거리에서 2km 위쪽에 자리잡은 동네이다.

행정부락명은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3반이다. 진입로는 잘 포장된 2차선 도로라 횡성에서 승용차로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삼원수(三元帥)란 글자 그대로 원수 벼슬을 한 세사람이란 뜻이다. 누구에 의해 세워 졌는지 마을 입구에는 큼직한 자연석으로 삼원수란 글씨가 멋스럽게 새겨진 마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우선 마을에 조충 장군의 후손이 살고 있나 해서 수소문을 해 봤지만 횡성 조씨는 한사람도 없었다.

조충(趙沖)의 아버지 조영인은 횡성 조씨의 증시조이고 조충의 아들은 조계순으로 바로 이삼대가 고려시대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을 다 거쳤다는 것이다.



세덕사 거란족을 무찌르고 「거란장」을 연 고려시대 조충 장군과 그의 아버지와 아들등 삼원 수를 지낸 조씨 일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세덕사」 세덕사는 횡성읍 정암리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는 「세덕사유적비」가 새로 세워져 있다.

몇 십대를 내려 가면서 판서 한사람 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노릇인데 항차 삼대에 걸쳐 원수를 배출했다니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조충은 원래 문관출신으로 상장군을 겸했던 고려 역사를 통털어 보기드문 文武 겸직의 위인이었다.

특히 그의 공적 중 역사에 길이 남는일은 거란족을 토벌하고 그들에게 살 자리를 제공해 준 보기드문 휴머니스트라는 점이다.

바로 그 거란유민의 삶의 터전이 거란장이었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들도 고려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박애주의가 바탕이 돼 거란장은 만들어 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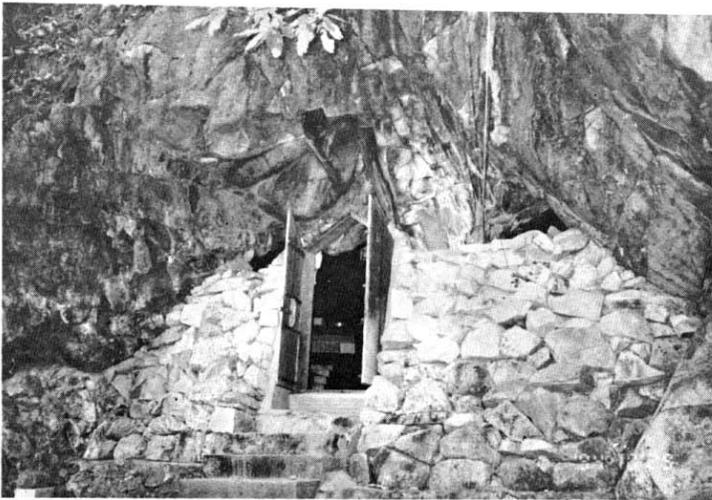
그 거란장을 만들어 준 조충 장군이 오늘을 살았다면 노벨평화상은 따 논 당상이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나는 먼저 세덕사(世德祠)가 있던 곳을 찾아 올라 갔다.

세덕사는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세덕사가 있던 곳에는 조충 장군의 뜻을 기리는 신도비가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져 세워져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있던 세덕사는 후손들이 봄, 가을로 제향을 올렸다고 하는데, 신문(神門)은 소슬 3문이고 신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이었다고 한다.

76년 개축을 했고 1988년 횡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로 옮겨져 새로 지었다.



옛날 세덕사가 있었다는 굴바위 조충 장군이 어릴적 공부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작은 암자가 하나 자리잡고 있었다.

조충 장군이 어릴 적 공부를 했다는 굴바위는 송낙봉 아래 만태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바위굴은 경사가 꽤 심한 바위길을 한참 오른 곳에 있었다. 이곳이 바로 돌부처거리에 있던 성덕사가 옮겨 온 절터이다.

그리고 조충 장군이 어릴 적 공부를 했다는 초가집터에는 지금도 집터의 흔적인 주춧돌이 보이고 곡식을 가공했던 맷돌이 보였다.

지금 이곳 바위굴은 암자로 변해 있었다. 더군다나 굴속을 잘 다듬고 나이롱 자리까지 깔아 놔 옛날 조충 장군이 학문을 연마했던 흔적은 쉬이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옛날 조충 장군이 공부를 하면서 마셨다는 석간수는 오늘도 쉬임없이 맑은물을 종일 뿜어 내고 있었다.

女僧들의 모자를 만들 때 재료로 쓰였다는 소나무겨우살이 송낙(송라)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송낙봉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으나 가끔 참나무나 밤나무 겨우살이는 눈에 띄었지만 송낙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솔잎혹파리에 혼줄이 난 소나무들만이 겨울나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동지를 꽤나 지났지만 겨울해는 짧았다. 나는 송낙봉 산등성으로 내리 덮히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하산길을 재촉했다.

돌부처거리의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기를 머릿속에 그리며...

# 隨筆

- ♣ 길 / 이 금 자
- ♣ 여름손님 / 이 정 예
- ♣ 어느 촌부의 소망 / 이 옥 순
- ♣ 존경받는 부모 / 정 진 철



이효석 생가를 찾아서 (황성문학회 문학탐방)

## 길



이금자

지난해 초여름의 어느날 나는 생소한 길을 가 보았다. 운전 연습 겸, 길 눈 익힐 겸 택한 한적한 시골길이었다.

비포장 도로라 자갈이 많았고 오랜 가뭄 탓에 먼지도 많았다.

길옆마다 뿌옇게 먼지를 쓴 채 그래도 한껏 6월의 신록을 뽐내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나무들, 풀들.

어린 시설에 은단꽃 따서 입에 물고 오가던, 또 진달래 한아름 꺾어 안고 내려오던, 그리고 짙레 열매 잘근잘근 씹으며 사이다병 가득 메뚜기 잡아 넣어서는 해질녘에야 돌아오던 그 산길을 담았다.

왼 편으로는 산을 끼고 오른 편으로는 계곡을 끼고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노라니 새 차를 탔다는 안일한 기분 탓인지 창밖의 풍경이 영화의 장면처럼 현실감이 없고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한참을 덜컹덜컹 가노라니 시멘트로 포장한 그 역시 자그마한 길이 나선다.

작은 마을이다.

사람 사는 곳이다. 개 한 마리가 서성거린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편리한 생활 환경이 꾸며지는 이 놀라운. 옛날 옛적에는 이 곳에도 길이며, 밭이며, 논도 마을도 없었을 테지 생각하니 아득해진다.

차는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행진해 나간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힘겨워 하다가 포장 도로를 만나더니 기분 좋은 소음을 내며 편안해 한다.

음악을 틀고 볼륨도 높여 본다. 제법 좌우로 눈길도 돌린다.

잘 정리된 논과 밭에서 농부의 부지런한 노고가 파랗게 줄지어 위로위로 발돋움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더 파랗게 짙어 크거라 나는 마음 속으로 응원을 보낸다.

상큼한 산소를 훌쩍 마시기 위해 유리창을 스르륵 내린다. 신선한 공기 내음과 풀 향기가 물씬 풍겨온다. 목구멍과 머릿속이 시원해진다. 그러자 고마운 마음이,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

---

면서 양처럼 순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샘솟는다.

어디가 끝인 줄도 모르게 길은 계속 이어지더니 산 위로 비스듬히 오르막을 이루고 드디어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포장길은 이미 끝났고 왼 편 너머도 산이고 오른 편 너머도 산이다.

차를 멈추고 망설인다.

알 수 없는 저 두 갈래의 길!

저 길 너머에는 어떤 모습의 세계가 있을런지 가 보지 못했기에 미지의 세계는 궁금하다. 거기 우리 한국이요, 같은 산이고 물이며, 사람 사는 곳이라 무에 그리 다를까마는 알 수 없기에 더욱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무심코 택했던 심사숙고하여 택하였던 저 길 어딘가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푹 빠져버릴런지도 모르고,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져 오도가도 못하게 발목잡힐런지도 모르는 일 아니야 더 넓은 마을을 만나게 되어 차 돌리기 쉬울런지도 몰라.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나는 되돌아선다. 어쩐지 자신이 없다.

벌써 석양인데 어둠이 짙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소심한 나는 더 이상의 모험은 할 수가 없다.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이라 눈에 익다.

그새 운전도 늘었나 보다. 차는 씩씩하게 잘도 굴러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되돌아 갈 수 없음이니…….

판단도 잘하고 선택도 잘 할 일이다.

부질없는 후회는 금물이다.

저 멀리 내 집으로 들어서는 낮익은 길이 보인다. 마음이 놓인다.

돌아가 편히 쉴 집이 있다는 것.

그곳은 언제나 나를 필요로 하며 나를 기다려주는 곳, 그곳에서는 나의 자리는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러므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 곳. 그곳을 나는 '나의 보금자리라 불러야지'

가 보지 않았기에 때로는 동경해보기도 하는 수많은 저 다른 길들은 마음속에 접어 두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 한 하루였는가 자문해본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 여름 손님

이 정 예

우리집엔 유난히 손님 출입이 잦다.

아장 서서 일하기 좋아하는 남편은 주위에서 띄워 주는 감투를 마다않고 잘 받아쓰는 편이다. 그런 관계로 찾아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시댁이나 친정을 대표해서 시골에 사는 우리집엔 일년내내 손님 끊일 날이 없다. 무쇠골이라는 좁지만 꽤 깊은 골짜기 입구쯤에 목장이 있고 언덕아래 개울에는 험하긴 하나 삼칸짜리 빈집이 있다. 장작때는 옛날집인데 옛주인이 목수라 꽤 꼼꼼하게 지어 아직 쓸만하다. 철따라 창호지 바르고 나무며 꽃등을 손보아 빈집의 허허로움이 덜하다. 올해도 빈집 덕분에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다. 목부없이 칠십여마리의 소를 거두는 형편이라 올 여름손님은 받지 말자고 남편과 어설픈 약속을 하긴 했으나 막상 오겠다는 전화를 받고서는 박절하게 대해지지가 않았다. 식사는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다짐을 단단히 받아 두었지만 으레 한끼 정도는 해내게 된다. 또한 그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오길 했지만 빠뜨리는 일용품이며 부식들이 있어 그에 대한 시중을 틈틈히 들게됐다. 유례없던 혹서로 소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우리 부부에게 손님은 큰 부담이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은 밤 아홉시가 되어서야 끝나고 낮의 더위에 지쳐 피곤한 몸은 짜증만 일궈냈다. 퇴약별 가르며 허우적대고 살아도 그들처럼 여유롭게 피서한번 못 가보고 거름냄새속을 헤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처량맞게만 생각됐다. 풀물 배고 절은 작업복 걸치고 목장을 오가는 내 모습에 비해 그들은 한가롭고 부유했다. 남자손님들은 자기 자식과 아내를 신주 받들듯 위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해 주는 그들은 내 심술을 부채질 해댔다. 따지고 보면 사돈의 팔촌쯤이라도 되는 형편이니 뒤틀린 내 심사를 내 비칠수도 없고 내 집에 온 손님 홀대했다 소리 들을까 옥수수 찌고 칼국수 끓여 이고 개울집으로 가면 내 꼴은 더더욱 엉망이 된다. 검게 그을린 팔이며 몽독하게 깎인 손톱이 뽀족하게 잘 다듬어 진 그들 손에 비해 십년은 늙어 보이고 흙 물에 절은 천원짜리 내 나이롱 슬리퍼는 자꾸만 얼굴을 붉힌다. 지난 말복날 새벽에 새로 맞은 조카사위가 친구 여섯가족을 데리고 피서를 왔다. 명색이 백년지객이니 암탉을 잡아 주어야 하겠으나 닭은 없고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조카딸이 보신탕 운운

---

하는 것이 우리 누렁이를 노리고 온 것 같았다. 결국 그들은 소수 한팍과 누렁이로 몸 보신을 하고 잘 먹었다는 인사만 한 바구니 쏟아 놓고 갔다. 정 들여 키운 누렁이가 아깝기도 하고 시골의 것이라면 거저 생기는 것처럼 여기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여간 섭섭한 게 아니다. 밭에서 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지 알뜰한 젊은 주부들은 고추며 옥수수들을 따가겠다고 나선다. 그 집 안주인 못 쓰겠다 소리 듣기 싫어 마지 못해 내어 주긴 하나 내가 나서서 챙겨 준 것만 같지가 않다. 그들에게 한 번이겠지만 내어 주는 사람은 여러 번이 된다. 그들이 간다기에 배웅을 갔더니 개울집으로 가는 길 옆 옥수수밭에 옥수수대가 부러지고 토생이가 많이 비었다. 그들이 버터 발라 구어 먹었다는 마음 같아선 눈물이 짙게 나오게 야단을 쳐 주고 싶었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누그러트렸다. 해가 갈수록 여유롭고 넉넉해져야 할텐데 내 속은 갈수록 접시바닥이 되어간다. 마음 좋은 시골 아줌마가 되고 싶은데 해가 갈수록 심통맞은 아낙네가 된다.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농촌에 몸담고 살다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에 젖어드나보다 회색 콘크리트속에 갇혀사는 도회지 사람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텐데... 올 여름 다녀간 손님들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유난히 짜증났던 여름을 되짚어본다.



## 어느 촌부의 소망



이 옥 순

잔뜩 널어놓은 빨래 걱정을 하면서도 한바탕 소나기라도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처럼(?) 하늘을 보게 된다. 수시로 변해가는 구름과 손만 뻗으면 잡힐것만 같은 색색의 잠자리며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대는 매미들의 날개짓 소리

두 아이들의 물장난 치는 모습

몇 십년만의 더위라는 이 혹서도 입추와 말복을 지나며 바람에선 벌써 가을이 묻어 나는듯 하다.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는 추위로 봄에는 바람으로 가을엔 따가운 햇살로 어느것 하나 잔뜩 하니 참아 내지를 못하면서 하루를 살고 한 계절을 살며 이곳 강원도 땅에서의 삶이 한점 한점 웃을 입고 있다.

머칠전 파종한 무, 배추씨가 어느사이 뽕족하니 세상 밖으로 나왔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만큼이나 여린 그 잎들을 보며 어느새 김장이라도 끝내고 난뒤의 뿌듯함까지도 느껴본다.

이곳에서 살아오는 십여년 세월동안 매번 새로운 감동으로 느끼게 되는 흙에 대한 경이로움 쌀 나무(?)조차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며 커가는 도시 아이들에 비해 무감각해질만큼 자연에 취해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영락없는 촌아줌마로 되어가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아직은 다 털어버리지 못한 도회지의 유혹과 일치되어 지지 않는 현실이 짜증날때도 있지만 마음 돌리기에 따라 재벌 못지 않은 가슴의 흥을 지닐 수 있어 위안을 받기도 한다.

매 순간을 투닥대며 싸우면서도 눈에 뜨이지 않으면 서로 찾아대는 두 아이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고 지나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들 아빠 그다지 속 썩이지 않는 牛 君. 이 만큼 부자일 수 있는 사람 있음 나서보라

그래 욕심부리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보자 어느 노스님의 말씀이었던가 마음을 돌리고 비우며 살아보라고 극락(?)을 가보기 위해서라도 비운만큼 채워질 그 무엇인가를 희망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프다.

갈끔하게

○ 횡성문학회 회원

## 존경받는 부모



정진철

“한 집안의 흥망을 보려거든 자라나는 그 집안의 아이들을 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고, 또한 인간형성의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잘못 길러서 타락과 범죄에 까지 이르게 하는 부모도 많지만 대부분의 위인들은 「내가 지금 같이 된 것은 내 어머니 덕분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인간 최초의 스승은 부모이고,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라고 생각된다 유아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빨면서 언어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되며 이 때에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 훌륭한 부모를 가진 것 같이 다행한 것은 없고 어릴 때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것 같이 불행한 것은 없다고 본다.

어릴 때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소년소녀들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찾을 수가 있다.

첫째,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둘째, 희망 또는 인생의 꿈이나 사명감이 없고,

셋째, 나쁜 버릇이 있어 범죄에 빠지기 쉽다.

가정과 지역이 사랑스럽고 의지할 만하고 아름다우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보고, 장차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고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소년소녀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으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르고 지혜롭게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자이다. 만약 부모가 신뢰나 존경심을 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일관성이나 일치성이 없다면 그 권위는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온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오래 계속되면 그들은 만성 욕구불만증에 걸려서 “에라 모르겠다. 놀자.”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므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육자가 바뀐다든지 부모간에 싸움이 자주 있다든지,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든지, 어제와

---

오늘의 취급방법이 다르다면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신뢰해야 할 지 혼란과 갈등,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심하면 범죄의 우려가 많아 지는 것이다.

필자가 청소년 범죄를 취급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년범죄자는 부모의 무관심과 결손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의 결여 등으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부모들이 어린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것은 마치 아이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찢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알아야 하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가정 분위기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착해지고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보이는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어린이 때, 그들이 본 그들의 부모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 지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가 사랑스러우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부모가 미우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애, 민족애, 조국애, 신앙심등의 원산지는 부모의 가슴이라 할 수 있다.

최선의 부모는 성장하는 자녀로 하여금 그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의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누구도 부모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이러한 부모가 되고 성장하는 귀여운 자녀는 스스로 따르는 착한 소년소녀가 되어야 밝은 사회가 형성되리라 믿는 바이다.





# 童話

♣ 거만한 코대왕 / 김 양 수

## 거만한 코대왕



김 양 수

밤새도록 장대같은 비가 내렸다. 산사태가 났으며 집이 무너져 내렸고 흙물이 크게 일었다.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로봇트 하나가 빨려 들어가 이내 바다에 이르게 되었고 외딴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여기가 어딜까?”

로봇트는 두루두루 살펴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모두가 죽어있는 것들뿐이었다. 로봇트는 겁이 덜컥났다. 무엇인가가 금방 달려들어 잡아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쁜 인간들!”

로봇트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조심조심 걸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싫증이 난다고 날 아무 곳이나 버리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말로만 듣던 지옥의 나라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사막처럼 쓸쓸한 벌판을 얼마쯤 걸었을 때,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기분이 들더니 로봇트는 순식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캄캄한 동굴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거울자석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다.

“너는 누구냐?”

말소리만 동굴을 울렸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로봇트도 지지않고 동굴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먼저 물었다.”

작았지만 위엄이 있었다.

“난 코대왕이다.”

로봇트는 인간세계에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동회가 붙여준 이름이 생각나서 그렇게 대답했다.

“코대왕이라고? 그럼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코나라에서 왔다.”

“그런 나라도 있느냐?”

“곧 세울거다. 인간들을 몰아내고 장난감나라를 말이다!”

“저 녀석이 겁도 없구나! 나는 너같이 허황된 꿈을 꾸는 녀석들을 혼내주는 자석괴물이다.”  
모습도 없는 것이 목소리만 굴안에 뱅뱅 돌았다. 로봇트는 앞이 캄캄했다. 움직여 보았으나  
꿈쩍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살고 싶다!”

로봇트는 거울속을 향해 외쳤지만

“웃기지마라! 네 녀석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검은 마음이 거울 속에 환희 비추고 있는데  
내 어찌 너를 살려 주겠느냐!”

자석괴물은 힘을 주어 더 바짝 잡아 당겼다. 온 몸이 부서질것만 같았다. 잠시 정신을 잃었  
다.

얼마만에 눈을 떴을 때 로봇트는 밀림이 우거진 이상한 나라에 던져져 있었다. 날씨는 그렇  
게 덥지도 않았으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자석괴물이 아마 번지수를 잘못 짚고 날 엉뚱한 곳으로 보냈구나’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  
음까지 나왔다. 천국에 오게 되어서 흐뭇하기만 했다. 지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로봇트는 연못  
가에 있는 빨간 열매들을 배불리 따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했다. 컴퓨터 머리에  
혼선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로봇트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헛소리로 중얼  
거리기도 했다.

“저는 나쁜 로봇트입니다. 저를 나무에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로봇트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입만 벌리면 그 소리가 튀어 나왔다. 마침 소풍나왔  
던 외눈박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 녀석아! 여기서 떠들면 안 돼! 말을 한번 할 때마다 1년  
씩 늙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 주고는 로봇트를 연못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거꾸로 매달았다.

로봇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눈만 멀뭇멀뭇 뜨고  
있으니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생각할수록 인간이 미워지기만했다.

사람들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다치면 병원에서 고쳐주면서 갖고 놀다가 싫증이 났다고

---

흙탕물에 던져버린 인간이 자꾸 미워지기만 했다.

아침이 되었다. 고운 새소리에 잠을 깬다. 깃털이 예쁜 새들이 날아가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로봇트를 보더니 떼로 달려들어

“여기 이상한 열매가 달렸구나. 맛이 좀 볼까?”

하면서 부리로 막 쪼아댔다.

“이 녀석들아! 난 열매가 아니란말야!”

참을 수가 없어 입을 열었지만 그 소리는 새들에게

“저는 맛있는 열매예요. 자꾸 쪼아야 맛이 난다구요.”

이렇게 들릴 뿐이었다. 새들이 단단한 부리로 쪼아댈 때마다 로봇트는 아픔을 참느라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새떼들이 마구 쪼아대는 바람에 다행히도 밧줄이 끊어져 로봇트는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맛도 없는게 맛있다고 자랑만한 엉터리 열매로구나.”

빨간 깃털의 새들은 속았다는듯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곳에선 병어리 흉내를 내야겠구나.”

하면서 로봇트는 밀릴 속으로 들어갔다. 보기에는 천국같았지만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한참만에 다다른 곳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으시시한 마을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서 돌아서려는데 시체들이 벌떡 일어 서더니 로봇트를 포위했다.

“왜들 이러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겁에 질려 싹싹 빌며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축구공입니다. 어서 멀리 차 주세요”

이렇게 들릴 뿐이었다. 시체들은 식인종같은 몸짓으로 빙빙 돌다가 돌아가며 뱅뱅쳤다. 로봇트는 하늘 높이 떴다가는 내려오고 하면서 온 몸이 일그러졌다. 로봇트가 기진맥진해서 축쳐져 있을 때 시체들은 운동을 잘했다는 듯 이마에 땀을 씻고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로봇트는 지겹기까지 했다. 차라리 죽어 없어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이곳에서 빠져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로봇트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어디엔가는 빠져나가는 문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쯤을 정신없이 뛰었을 때 도착한 곳은 불귀신 마을이었다.

---

“너는 여기 왜 왔느냐?”

불귀신이 호통을 쳤다.

“잘 모르겠습니다.”

로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무어라고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뜨거운 불을 막 뺏아 놓았다. 로보트의 온 몸이 불덩이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급한김에 로보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 냇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냇물은 섭씨 100도나 되어서 끓는 물이었으므로 들어가나마나였다. 더 후끈후끈 달아오르기만했다.

로보트는 물에서 나와 아무곳으로나 갈팡질팡 막 뛰었다. 속이 타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뛰다 까마득한 벼랑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겨우 의식을 차렸을 때, 로보트는 동희 손 위에 있었다.

“코대왕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거야.”

동희는 너무 기뻐서 로보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망가진 로보트를 가슴에 껴안으며 “코대왕아, 나는 지난번 장마때 널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아파 했는지 너는 모르꺼야 아빠에게 얘기해서 널 고쳐줄게”

이렇게 다독거렸다. 로보트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동희네 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천막이 쳐져 있었다.

- 
- 1953. 2. 22 평성군 산전리 출생
  - 정금국, 원주중, 원주고, 춘천교대 졸업
  - 1984 강원일보 신춘문에 당선, 아동문학평론 동화추천
  - 강원아동문학회 사무차장
  - 푸른나무 동인
  - 한국아동문학인협회원
  - 한국문인협회원
  - 저 서/생각하는 배나무(아동문예사 발간)
  - 근무처/춘천군 추곡(오향) 국민학교
  - 주 소/춘천시 효자1동 낙원아파트 가동 509호

## 주부문예

- ♣ 자화상 / 안 은 자
- ♣ 우리아이 / 임 희 경
- ♣ 질서 / 이 효 자
- ♣ 자화상 / 김 흥 기
- ♣ 우리아이 / 박 명 순
- ♣ 자화상 / 이 희 숙
- ♣ 우리아이 / 이 정 재
- ♣ 자화상 / 김 정 순
- ♣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에게 / 박 선 희
- ♣ 감사의 기쁨이 있는 얼굴 / 원 남 이
- ♣ 자화상 / 이 인 숙



## 자 화 상

안 은 자  
우천면 우항1리

물빛 닦고자  
강가에 서고  
하늘을 닦고자  
우리러 본다.

나만의 언어와 빛으로  
채색되어 지면  
미완성의 그림이여

어머니를 닦고자  
몸부림치고  
동심을 닦고자  
벌거벗어도

물질과 욕망에 흡수당하고  
부끄럽도록  
작은 모습만이  
남아있어

오던 길 되돌아 볼  
여유도 없어  
내 아이가  
나를 그리고 있다.



## 우리 아이

임 회 경  
황성읍 읍상2리 275-8

우리 아이가 누구더냐!  
내 뱃속서 나와 우리 아인가  
한 지붕 아래 살아 우리 아인가  
온 조선팔도 아이, 다 우리 아인 시절 있었네  
그때 아이 어딜가나 형님이고, 아우 이었고, 먹을건 부족해도,  
조선팔도 모두 내집이었지.

온 동리아이 다 우리 아인 시절 있었네  
온 동네가 다 내집 이였고, 놀이터 따로 없이 오라는데  
없어도 갈곳 많았지  
가난해도 꿈이있고, 희망 있었네!

내 뱃속서 나온 아이  
우리 아인 지금  
문 밖만 나서면, 모두가 남  
오라는데 많아도 갈 곳이 없네

할머니의 할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이는 그저 아이 이지요

어른의 보호 필요한, 아이 이지요  
우리아이, 남의아이 따로 있나요  
우리아이, 남의아이 구별없는 세상  
그것이 인간의 천국 이지요.  
행복의 시작 이지요.

## 질 서

이 효 자  
형성읍 읍상3리 38

내 유년 꿈 동산 위에 집 한채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 다오. 두껍아……”  
하루의 이야기 속에 언제나  
집이 있는 것 처럼  
이 땅엔 뿌리같은 순서가 있다.

눈 감아도 국화는 피고  
귀 막아도 귀뚜라미 우는  
자연의 질서  
古木에 까치가 집을 짓는 것도  
무언의 질서

홀연히 떠오르는 달  
눈동자 영근 샛별도  
질서대로 육신을 거둔다.

바르게 보듬으면  
관절염에 굽어지는 등 허리서도  
한 점  
살점이 되어 박히고  
버리면  
청초한 눈, 바위같은 권한에도  
한 알  
불행에 씨로 떨어진다.

질서는 내 몸을 씻는 신앙이네  
순서는 생명을 지키는 사랑이네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하나, 둘  
시간은 나누긴 좀 불편 했지만  
묵묵히 지켜온 약속이  
여문 햇살로 내리면  
분신의 발자욱 까지도  
너울 너울  
나비되어 날아간다.

## 자 화 상

김 홍 기  
평성읍 북천리 137-5

곱고 청초했던 그 모습  
시간속에 묻히고  
만지면 터질듯하던 그 몸매  
보이지 않는 세월이 휘감아 갔네.

나를 없애고 너를 남기기 위해  
혼신의 힘 달아 버렸고  
스쳐간 허망한 시간들  
속 끌어 애태우고 있네.

어렵디 어려운 세파속에서도  
들녘의 알곡은 여무는데  
골이 지고 슬픈 나의 모습  
누가 어디서 보상해 줄까!

삶의 애착이 용솨음 치면  
난 자연의 섭리와 순리에 순종하며  
꽃은 활미꽃이되 장미꽃처럼  
생을 열렬히 살으려나.

## 우리 아이

황성음 김풍리 박 명 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언덕아래 읍내 유치원생들이 가을 나들이를 온 모양이다. 환한 웃음소리와 마냥 즐겁기만한 표정들의 넉넉함이 낙엽 뒹그는 이 삼일공원 안에 가득차다.

문득 이 시간 학원에서 부족한 글과 숫자공부의 고사리 손놀림에 바쁠 막둥이를 떠올려본다. 오늘 아침

“세영아 유치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세수하고 밥먹어.”

“싫어. 유치원 안가. 더 자고 싶은걸...”

그 대답에 나는 순간 무어라고 설득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버스시간은 십여분 밖에 남지 않았고 마음은 급했다. 어제는 누구 누구 유치원 친구도 안왔다는 등, 하루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등 TV광고에서나 나오는 아니, 제 아빠가 자주 쓰는 말로만 알았는데 우리집 꼬마도 전이가(?)되었다. 있는말 없는말 갖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처방전을 다 동원해서 겨우 집 밖으로 내밀었다.

요즈음 매스컴에 방송되는 흉악한 사건을 들을라치면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면서 가정이 아닌 학원 학교교육에만 맡기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 취학전 보통 2년 아니면 3년동안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보내야 신세대 감각에 앞서는 세태들 말이다. 우리아이는 고집스럽게도 1년만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큰 딸애도 그랬듯이 저 나름대로 뛰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므로써 커가는게 무에서 창조를 이루어내는 기쁨이 더하지 않을까?

작년 작은애 여섯살때의 일이다. 방바닥에 장난감을 벌려놓고 놀다가 치우지 않는다고 아빠께 꾸중을 듣고 울음이 터졌는데 운다고 또 혼나다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마당으로 나와서 울며 하는말이

“아빠는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우면서.....”

하며 계속 운다. 아빠에게 야단 맞는 보복이라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

하였더니

“저기봐. 담배꽁초를 마당에 버려서 자연보호 해야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이를 얼싸 안았다. 기특하고 기상천외한 명답이지 않은가. 동문서답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아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는, 단순한 몇번의 자연보호 운동 실천이라는 반복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자연발상이 그 대답을 만든 것이다. 읍내 석강유원지등에서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쓰레기를 줍던 지난날의 산교육의 효과를 나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였다. 말보다는 실천이라는 행동의 본보기가 우리아이로 하여금 일상의 습관적 반복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길들여지나 보다.

내 어릴적 도회지 시멘트 건물의 무표정한 삭막함에 외가집 시골의 냄새가 마냥 좋아서, 아니면 철없는 로맨티시즘이었을까? 방학때가 되면 그곳으로 내려가 지내던 고향은 아니지만 내 원래 태어난 고향이었던 것같이 푸근함과 안락함을 맛보면서 이 다음에 나는 시골에서 살기로 마음 먹었고 그 뜻을 이루고 살면서 지금은 웬지 조금은 텅 빈 가슴으로 남을때가 있다.

머칠전 큰애가

“아래집 회영이네가 이시간 읍내 아파트로 우리도 이사가. 응?”

한다. 그 물음에 대답은 한결 같다.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왜가니. 왜 가?”

내심으로는 어른들의 욕심만 채우면서 한시간씩이나 걸리는 학교 통학에 찌는 더위와 추위에 다닐라치면 그 말이 나올만도 하지... 하면서 말이다.

몇해 사이에 우리마을에도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어 가지만 아직 우리는 승용차의 꿈도, 일류 메이커의 옷이랑 신발이랑 뒷전이고 주말마다 외식에 여행도 먼나라 얘기고,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든 서울외가집 나들이에 불만을 터트리면서도 잘 참고 착하게 밝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우리아이」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 들국화 한아름 꺾어 푸근한 향기로 대신해 전해 줄까나?

## 자 화 상

갑천면 매일리 596번지 이 회 숙

나는 잘 웃는다.

그래서 나를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곤 한다. 그것이 내가 이로올때도 물론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내 부모님은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셨지만 낙천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 이셨다. 그래서 어렸을적 부터 우리들은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한편 웃음이 헤프곤 했었다. 그로인해 부모님께서 종종 주책없음을 나무라기도 하실 정도였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하지만 나는 잘 웃는다는 그 한가지만으로 나의 인상을 또는 나의 모습으로 결정짓는 것에 다소 불만을 갖는다.

나는 내 자신 항상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많은 물질이나 남편과 아이들의 훌륭한에 있지않고 항상 넉넉하게 당당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다. 내 소견으로는 내 자신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그 무엇보다도 긍정적일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돌보느라 그 누구라도 혹은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그것은 최대한으로 내 형편 안에서 활용할 뿐이다.

우리가 듣는 얘기중에 나이 사십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냥 스쳐 버릴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내게는 항상 다시한번 음미 하고픈 명언이다.

모든이에게 살아온 세월만큼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연륜을 타인이 신뢰할 수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확신한다. 스스로를 채우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칫 오만이나 비굴함을 내 보일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 배움이 모자란 나를 채우는 일이며 사회에서 확실한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

다행히도 나는 결혼을 일찍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있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남편이 있다. 더 더욱 다행한것은 아직도 내겐 식지않은 열정과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음이다.

나는 감히 이 땅의 모든 주부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그냥은 살지 말자고.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요즈음처럼 마음 아프고 험악한 세상에 옳은 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채워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선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노년의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한다. 지나온 세월에 미련이 없도록 내가 아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을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를 그려본다. 이것이 상상속의 환상이 아니기 위하여 나는 항상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내 얼굴에 내 모습에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말이다.



## 우리 아이

청일면 유동2리 이 정 재

아들아이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이든 백지와 연필만 있으면 척척 그럴듯하게 그려낸다.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라 투정도 심하고 때론 짜증도 잘 부리지만 난 이뻐 죽겠다.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아주 생기 넘치고 발랄한 아이다. 하지만 항상 시험보고 나면 풀이 죽는다.

“엄마 나 이등 밖에 못 했어” 나는 금방 활짝 웃어준다.

“어때, 우리 정균이는 잘 하는게 더 많은데 뭐”

아주 어릴적 3~4살 정도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하던것이 습관이 되 버렸다. 벽에 걸려 있는 달력 뒷장들과 우편으로 오는 안내장 뒷면이 온통 그림 투성이였었다. 이내 학교 들어 가면서도 여전히 그림은 그리고 싶어한다. 숙제 하다가도 힘들면 쓴다는 것이 스케치북 앞이다. 미술지도를 정말로 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시골이라 그림학원에 보내기도 무리인것 같아 속이 상하던 참에 2학년 부터 학교에 미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여러모로 보살펴 주셔서 아이에게 자신감과 보탬을 많이 주었다.

아들아이는 꿈이 화가란다. 멋진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단다. 물론 국민학교 3학년 짜리의 꿈이라 바뀔수도 있다. 그러나 난 달갑지 않다. 내 예쁜아들을 그 멀고 험하다는 화가의 길로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더 좋은 일들도 너무 많지 않은가. 하지만 반대하진 않는다. 죽이패도 좋고 밥이 꽤도 좋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는데 하고싶은 만큼은 뒤에서 힘껏 엉덩이를 받쳐줄 작정이다.

거실에 앉아 이 가을 중턱의 일렁이는 황금들판을 내다보면서 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만큼 풍요로운 풍경을 우리아들에게 그림 그려달랄까 싶다.

먹지 않아도 배 부르고 내 것이 아니라도 부자가 된 것 같은 이 뿌듯한 아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느낀다면 틀림없이 욕심적이고 소박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 같다. 제 누이가 방학숙제로 그림 한장만 그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면 모른척 빼긴다. 맛 있는것 사 준다고 달래도 모른척이

다. 하지만

“정균아 남의 사정도 들어주는 마음씨 예쁜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는 거야”

더 좋은 약이 없다. 당장에 멧있는 그림 한장이 제 누이손에 쥐어진다.

아이아빠는 학교졸업 하면서 바로 소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아이도 질세라 동물에는 보통 관심이 아니다. 심지어 TV에 “신비로운 동물의 세계”를 보려고 1주일을 버틴다고도 한다. 그림도 거의 동물그림이 많다. 소는 더 멧들어지게 그린다. 학교에 그림 출품 이라도 하는 날이면 전날밤은 온 식구가 완전히 그림가족이다. 물 떠다주고 붓 씻어 주고 잘못된 그림 지워주고 너석 잘 때까지 있어 주어야 할 것 같아 지키고 있다. 결과는 항상 뒤틀전이다.

“엄마 상 못타도 상관 없지?”

상이 뭐 대수냐는 식이다.

아빠랑 진땀개를 끌고 운동장에서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 할 수가 없다. 아빠랑 알통이 누가 많이 나왔냐고 힘 주어 내미는 걸보면... 아빠랑 팔씨름 하면서 지지않으려고 바둥대는 모습을 보면 난 픽 웃는다. “너석 남자 흥내는 다 내고 있군” 맘 흘리며 두엄을 치우다가도 아들이와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걸 보면 정말 좋아 보인다. 중요한 애깃거리가 있으면 아빠에게 먼저 달려간다. 둘은 잘 통하나 보다. 점점 아빠의 모습처럼 닮아 가면서...

저들이 있으므로 난 무엇도 부러울것 없는 행복 그 덩어리 일테지.



## 자 화 상

청일면 춘당리 김 정 순

“야! 너 장난감 치우지 못해! 김진명! 김진규!”.

최악의 목소리를 만들며 아이들을 호달군다.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멍칫 내 모습을 온화하고 자상하게 탈바꿈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장난감을 가장 잘 치우나 엄마가 볼 거예요.” 누가 지은 노랫말인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치워 주세요”. 대충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불러주면 아이들은 짜증스럽게 소리지를때와는 달리 좋아라 하면서 장난감을 주워담는 척 한다. 어디까지나 “척”이지만 아! 정말 짜증스러운 이 자리 하루에도 몇번씩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야 하는 나. 가끔은 내 삶에 내 모습에 짜증도스럽지만 삶은 내가 개척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갓집 말머느리는 아니지만 3형제중 둘째인 아버님 슬하에 7남매의 맏인 중책인 자리에 앉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지 6년째. 큰 아들이 5살. 작은 아들이 3살. 무엇보다도 시집오면서 두 아들을 어른들 품에 안겨드려 나로선 더할나위 없이 기뻐다. 왜냐하면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집안으로선 두 아들에게 시달림이 보통은 조금 넘지만 아들을 낳는것이 부모님께서는 최선의 기쁨이자 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친구들과의 이야기중에 내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 이런 생각이 원시적이니 꼭 막혔느니 하지만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모가 원하면 가능한한 그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음대로 안되지만 그러기에 필요한 두얼굴의 이야기.

우리 두 내외는 중매로 만나 조금은 성급한 결혼이었기에 연애시절도 없었다. 그러나보니 서로가 성격도 차이가 많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관념의 차이도 심하여 조금만 양보하면 될걸 가지고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 많았다. 결혼이후 처음 부부싸움,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티각태각하다 싸움이 되어 눈물까지 왈라 솟구치는 순간 밖에서 어머님께서 부르시는것이였다. 나는 순간 깜짝 놀라 거울앞에서 눈물을 닦고 얼굴표정을 고치며 제법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정말 너무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언제 싸웠냐는 등 문을 열고 나왔더니 힘들게 일하시다 말고 갈증이 나서

---

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신듯 발이 더러우니 냉장고에 가서 얼음물을 줌달라 하셨다. 얼른 물을 한컵 드리고는 새 참으로 준비하던 호박전을 재빠르게 부쳐 쟁반에 간장이랑 저분이랑 챙겨 가지고 발으로 나갔다. 문전옥답인 우리 농토가 나에겐 더 없이 편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님의 등 언저리에 “아버님! 참 드세요!” 하면서 아버님을 부르고 나니 뒤따라오신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어디갔니? 일하다말고.” 하신다. 나는 얼른 “모르겠어요. 전화하러 방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불러 올게요.” 하며 뛰어들어오다 말고 먼저 드시라고 손짓하며 들어와 문을 열고 눈빛을 마주하고 빨리나와 부치기 드시라고 재촉까지 했다. 그런 내 모습에 남편을 웬일인가 싶어서 “말 안할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지껄이며 내 손을 잡아 주었다. 우린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발으로 나가 다정스런 우리가족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날 남편은 나에게서 굉장한 이중을 느꼈나보다. 그러나 이중일지라도 그 훗날에 부딪히고 싸움에서도 어른들에게만은, 자식들에게만은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부딪히는 것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겐 노출을 안시키고 씩-바뀌버리는 내 표정 내 얼굴모습에 남편을 무척 호뭇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란! 한 가정에 시집을 오면 핵가족과는 다르지만 만며느리로서의 어른들을 모시고 살려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때마다 내 얼굴을 바꿔가며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어른들과의 생활에서 짜증스러울지라고 순간 참고 싶어도 좋은척, 좋아도 좋은척 그저 항상 내 모습을 진실에서의 좋은상을 생각해 보면 삶에 지치고 지혜이며 내생활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한다.

이제 결혼생활 6년째. 가끔 진솔한 이야기를 할 양이면 어떤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하는것도 몇년이라하며 쉽게 자기네 삶을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 얼굴에 여자일지라도 두 얼굴의 어머니, 두얼굴의 며느리, 두 얼굴의 아내로 우리가정에서 사랑받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다.

##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에게

황성음 옥동리 박 선 회

친진난만한 우리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며 이 글을 띄운다.

오늘은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퇴색되어 마음마저 우울해지는 흐린날이란다. 이런날엔 따뜻한 엄마품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자장가를 들으며 살포시 눈을감고 잠들어야 할 네가 직장생활 하는 엄마와 떨어져 차가운 실리콘 젓꼭지를 빨며 혼자 나뒹굴다 피곤에 지쳐 잠을 자겠지! 맞벌이 하는 부모를 둔 너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구나. 신토불이란 말과 같이 우리 몸에는 우리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일 좋은 것 처럼 아이에게는 엄마젖만큼 좋은 양식이 없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엄마품에서 따뜻한 모유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우유로 대신하는 네가 이 다음에 커서 이 엄마를 책망하더라도 달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단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해도 엄마를 반기는 네 모습에서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풀린단다. 할머니 품에서 아무탈없이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 행여나 할머니 할아버지 품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다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면 어쩌나 걱정할때도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엄마의 지나친 노파심 이겠지.

사랑하는 아이야

출근준비에 정신없이 아침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는등 하는등 헐레벌떡 현관문을 나설때 엄마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못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때면 이 엄마는 하루에도 몇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다. 하지만 한순간의 고통이라 여기며 감내하고 울먹이는 너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출근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 어린 네가슴에 뼈뚫어진 생각과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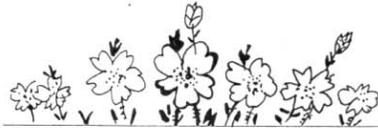
유난히 머리가 길고 술이 많아 이제 겨우 2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세네살박이 아이라 보이는이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너지만 아직까지도 대소변을 못가려 은근히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아가 음악에 대한 기본소질이 있는 걸까? 신나는 음악소리가 나올때마다 으쓱으쓱 어깨짓을 잘하는 것을 보면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

아이야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할것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할 것은 너를 갓난아이때부터 엄마보다 더 아끼고 보살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또 늘 그분들을 공경해야하며 이 세상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만 이글을 마친다.



## 감사와 기쁨이 있는 얼굴

강림면 월현2리 윤 남 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봉사 만들지 말고 어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목이 메여 울먹이시며 나를 쳐다 보신다. 원인모를 병에 이제 바쁘게 공부를 해도 갈지 모를 대학입시를 앞두고 앞의 글씨가 보이지 않아 안과를 찾아온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나 또한 가지고 있는 눈이지만 나는 항상 눈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바로 아래 여동생은 쌍거풀 눈에 보조개 까지 언제나 함께 다니기에는 내가 한참 처지는 자세였다. 한번은 속상해서 어린나이에 엄마에게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드는 내 눈에 이제는 글씨조차 볼 수 없게되자 모든것을 다 잃은것 뿐. 식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고 슬픔이 내 모든것을 감쌌다. 조퇴를 하고 들어선 곳은 기독교병원 안과였다. 검사결과도 뚜렷치 않고 몇일이 지나면서 나의 모습은 또 달라져만 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다 헛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얼굴을 비롯, 목에서 다리까지 아픔이 시작되었다. 엄마에게 이끌려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기에 지치다 집에 오는 오늘 해는 병원에서의 하루가 나의 전부였다. 그래도 열등감에 책에도 문혀 보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이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아주 슬픈 여고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창 예민한 성격에 투병생활을 해야했고 대학입시에 선 학생이었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양이 바로 그때의 내모습 이었던 것이다. 이기심과 경쟁의식 속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만족할 점수는 아니었다. 어느 과를 가야하나 갈등의 연속이었다. 고모의 권유로 내성적인 나는 유아교육과를 선택했다.

남 보다 잘나지도 못한 얼굴에 늘 병색이 돌고, 나 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던 내가 겨울방학동안 피아노레슨을 받기 위해 피아노 학원을 들어 섰다. 그곳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는곳 이었다. 감사와 찬양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학원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이제부터 나의 얼굴과 나의 모든 육체와 환경, 내게 속한 모든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겹게 보냈던 1년반의 긴 투병생활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렇게도 못생겨 보이던 내 얼굴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분께 감사할 뿐이었다. 지금도 비록 작은

---

눈이지만 안경 쓴 분들을 보면 미안하기만 하다. 시력은 남못지않게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오독하게 세워주신 코, 정말 그분은 기막히게 잘꾸며 놓으셨다. 혼자 거울을 보며 흐뭇해하는 내 모습이 이제는 여고시설보다 더 예뻐진 두 아이의 엄마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나의 남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로 변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아침 일찍 원주로 나가 자동차학원으로, 이곳 삼일공원으로 오기위해 일찍 일어나 마사지도 해보며 가을의 색조를 맞춰 두드려보고 찍고 그리고 하면서도 못내 아쉬워 "애들아 엄마 예쁘니?" 하고 물어보니 귀염둥이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제일 예뻐요. 아이 러브유". 하는 것이다. 나를 예뻐해 주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남편이 예뻐 해주기에 나는 오늘도 발걸음도 가볍게 이곳으로 들어선 것이다. 병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는 복음사가 가사가 생각난다. 색조 화장으로 아무리 꾸며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내 얼굴은 여고시설 그때의 비참한 얼굴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리라.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잠자다 일어난 물들지 않은 얼굴을 늘 봐주고 예뻐해 주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 자 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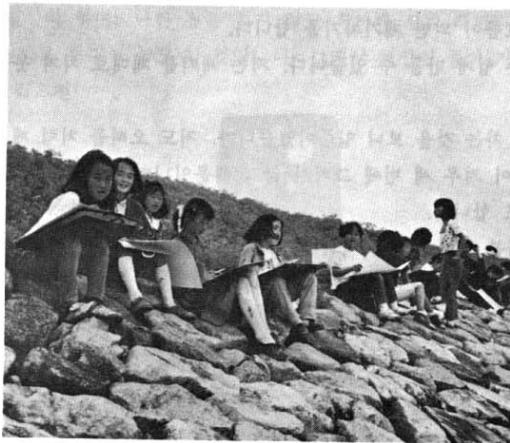
황성을 읊상3리 이 인 숙

파아란 가을하늘을 올려다 보며 상념에 젖어 본다. 유난히 가을이면 내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울 한해도 또 저렇게 나뭇가지의 잎을 물들여 떨구며 저무는데... 무엇을 하며 살았나? 이루어 놓은것도, 이루어진것도 하나없이 또 이렇게 가을은 내게 다가섰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또다시 아침이면 허둥지둥 매일 같은날들이 되풀이 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 예전에는 당당하고 멋 멋하다고들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 당당함이, 멋 멋함이 점점 사그라들며 주눅이 든다. 그런 내 모습이 싫어 몸부림치며 사회속에서 아주 미약한 내 존재를 느낄때마다 헤메곤 한다. 매일 대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항상 웃으며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때론 그들이 떠나고 나면 미치도록 공허하고 외롭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그런 생각속에 나를 찾아 헤메던 이 가을 어느날. 누군가 내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인숙씨는 이쁘지 않은 얼굴이지만 향기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숙씨를 좋아하고 칭찬 하나 봐요." 그 이야기는 정말 이 가을 나를 찾아주었다. "그래 향기있는 여자, 나는 향기있는 여자다! 향기가 있어, 사랑 받을 수 있는 여자로.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 향기를 남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여자로 살자. 그게 바로 나였으니까!".



# 학생문예

- ♣ 정월대보름 / 최 윤 경
- ♣ 오곡밥의 악몽 / 이 지 혜
- ♣ 연에 마음을 담고 / 박 혜 빈



## 정월대보름

형성국민학교 5학년 최 윤 경

정월 대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날 저녁에 뜨는 달이 가장 밝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연을 날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을 날려 본 적은 없었지만 만들어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울 방학 과제로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가오리 연은 만들기가 무척 쉬우며 방패연 보단 잘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패 연은 만들기가 좀 까다로우며 줄을 엮을 때 균형을 잡지 않고 하는 바람에 거꾸로 날았습니다.

그리고正月 대보름이 되면 제기차기를 합니다.

제기는 집에서 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기를 제대로 차지 못합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오빠들이 제기를 차는 것을 보니 일품이었습니다. 저도 오빠들 처럼 제기를 잘 차보고 싶습니다. 최고 신기록이 겨우 세 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쥐불 놀이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쥐불 놀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반 남자 아이들은 밤이 되면 공터에서 쥐불 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쥐불 놀이를正月 대보름 전 날인 음력 1월 14일 밤에 한다고 합니다.

正月 대보름이 되면 아침에 처음보는 사람을 보며,

“내 더위 사 가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올 해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조금이나마 더위를 타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그리고 오희밥을 먹습니다. 오희밥은 다섯 가지의 곡물이 들어가서 오희밥인것 같습니다.

---

콩, 팥, 밤, 조, 참쌀 모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만 들어간 오곡밥을 먹지 않습니다. 먹는다 해도 쌀밥만 골라 먹습니다. 콩도 싫어하고, 팥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은 맛있어서 잘 먹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꼭 참고서라도 오곡밥을 먹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럼 깨물기입니다.

땅콩, 호두, 잣 등을 깨물어 먹는 것입니다.

어젯 밤에는 큰 댁에서 대보름 날 먹을 땅콩을 조금만 남겨 놓고 다 먹어 버렸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엄마는 대보름 날 까 먹는다고, 오래 전에 호두를 구해 오셨습니다. 대보름 날이 오기 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젠 안심입니다. 대보름 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보름 날 저녁이 되면 마당에 나가 달이 뜨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달이 뜨자마자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올 해에도 공부 열심히 하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전에는 신발을 뒤집어 놓고 잘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이 들어 가지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 오곡밥의 악몽

성북국민학교 이 지 혜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 오니 작년 정월 대보름이 생각났다.

대보름 전날,

"엄마. 호두 사 오셨어요?"

"엄마 엄마, 땅콩은요?"

정월 대보름 하니 먹는 거 밖에 생각이 안났다.

"딩동"

"앗 아빠다!"

아빠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그 비닐봉지는 배가 부른지 뚱뚱해 보였다. 얼른 가지고 와 풀어보니 부럼과 오곡밥에 넣을 재료가 들어 있었다.

내 동생과 나는 오곡밥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싫어하는 콩, 팥, 나물 등 때문이다.

밤이 늦어 잠을 자는데 무서운 꿈을 꾸었다. 오곡밥 생각을 하며 잤는데 꿈에 오곡이 커져 커다란 밥그릇에 가득담겨 나를 쫓아오는 것이었다. 그 밥 그릇은 내 몸집의 두배 정도였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길을 헤매고 있는데 3갈래의 길을 만났다. 가운데 길을 가려는데 오곡밥이 3길에서 모두 나오고 있어 소리를 지르다 깨어났다. 일어나니 부엌에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그 냄새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오곡밥이었다. 꿈을 생각하며 오곡밥을 겨우 먹고 학교로 갔다. 친구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다보니 어느새 저녁, 얼른 집으로 달려갔다. 저녁을 먹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한 자리에 모였다.

"망치"

"신문지"

바로 부럼을 깨물기 위해서였다. 땅콩 호두를 망치로 깨며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였다.

어느새 비닐봉지에 찻질만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캄캄한 밤 하늘에 떠 있는 오늘의 스타 달. 우리 가족은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달님께 말이다. 그리고 그 날에 있었던 일을 반성도 해 보았다.

오곡밥에 쫓기던 그 날의 꿈. 이번 대보름엔 그런 꿈을 다시 꾸지 않도록 하겠다.

## 연에 마음을 담고

대동여자중학교 박혜빈

매년 이맘때쯤이면 내 동생 준석이는 연을 하나 사온다.

“너 연 만들 줄 알아?”

“그냥 만들면 되겠지!”.

자기방으로 쑥 들어가 기척이 없다.

문을 열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면 잘 만들지도 못하는 연을 자기편엔 좀 잘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재밌기만 하다.

“내가 도와줄까?”

“싫어, 누나가 도와주면 더 이상하게 된단말이야.”

“요게!”

방해 된다며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는 동생이 그저 알밋기만 하다.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가겠다.”

엄마는 약간 불만스러우신 듯한 목소리로 우스개 소리를 하신다.

그 다음날이면 연을 날린다.

연을 날리며 좋아하는 준석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준석이가 연날리기를 좋아하게 된 건 어려서부터였다.

집에서는 가끔씩 돌아가신 아빠가 연을 만들어 날려 주셨고 큰댁에 가면 큰아빠께서 만들어 주셨다.

나도 가끔 연을 날리고 싶은 때가 있다.

속상할때나 슬플 때 연에 모든것을 담아 날리면 후련해지기 때문이다.

아빠가 정성껏 만들어 주셨던 연을 생각하며 이 연이 그 연이라 생각하고 연을 날리면 나의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모든 슬픔과 기쁨, 즐거움등의 용어리들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아빠에게 전해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잘함」에 있어 늘 인쇄하신 엄마와의 충돌과 요즘 부쩍 커가는 동생과의 다름에서 속상할때마다 아빠가 생각나게되고 아빠를 생각할때마다 연을 날리고 싶다.

저 멀리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연은 아빠에게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준석이도 연을 날리는 건지도 모른다.

---

며칠 후엔 준석이와 연을 날리기로 했다.  
계획이 취소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그 계획에 설레임이 있다.  
난 연을 못만들어서 내 연은 동생이 만들어 주기로 되어있고 날릴때만 따로 날리기로 했다.  
이번에 연을 날릴때는 좀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더 높이 날릴 것이다.  
이제는 준석이나 나나 중학생이기 때문에 점차 학교생활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게 될 것이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전보다 더 힘차게 더 멀리 날릴 것이다.



---

# 戲曲

♣ 꿈으로 가는 열차 / 李 併 馥

## 꿈으로 가는 열차



이 병 복

### 서 설

서기 21세기 초엽의 어느 날 이 지구촌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도래한다. 기이한 현상이란? 작은 풍문이 거대한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 풍문의 주제를 가칭 <꿈으로 가는 열차>라 명명하고 그 실현상을 가상의 형태로 표출 해본다.

### 무 대

이 작품의 무대는 복합적인 여러 장면을 소화시키기 위한 공간활용의 염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무대의 뒷면으로는 꿈으로 가는 열차의 사실적 형상을 담고 어느 지점을 선정 작품이 내포하는 21세기 가상적 신의 모습을 그린다. 아울러 각 장면마다는 한 두 가지씩의 상징성 있는 집기가 첨가될 것을 감안 측면쪽으로 장의자 하나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 본 문

막이 오르기 전 어둠을 가르는 고요한 색채조명은 2039년이라는 영상 글씨를 막 위에 수놓는다. 이어 서서히 막이 오르면 무대는 잠시 靜적에 가까운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 흐르는 가운데 무대 전면으로는 다양한 차림의 21세기 시민들 모습이 스친다. 시민들 모습이 사라지면 음악과 조명은 서서히 강도를 더하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 강한 터치와 더불어 강렬한 명도의 조명이 꿈의 열차에 투영될 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듯한 장중한 북소리가 세 번 울린다. 북소리의 여운이 가실 즈음 무대엔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알리는 환희의 멜로디가 흐르고 꿈의 열차는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서서히 부상한다. <또는 그런 느낌을 준다.> 뒤를 이어 중후한 노령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한다.

---

## 소 리

중생들이여! 21세기의 신 시대인들이여! 마음을 열어 경건히 들을 지어다. 태초를 수용했던 무한의 능력자요 이땅의 영원한 지배자인 神의 이름으로 전하노니 그대들 앞에 도래한 오늘의 현상과 추정되는 내일의 사실들을 가름지우고 아울러 새로운 미래에의 세계를 도안하고자 꿈으로 가는 열차를 운행하노라!

### <효과음악>

#### 1 막

<조명이 새로워지며 무대는 어느 공원을 연상하게 된다. 무대 가장자리의 벤치에는 두 남자가 잡지를 뒤적이며 가끔씩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반대편 무대에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나오는 두 여자의 대화>

여자 1 어머! 언니, <잠깐 멈춰서며> 그 얘기가 정말이야?

여자 2 글썄 그렇다니까.

여자 1 설마 그럴라구?

여자 2 모르는 소리야, 나도 처음엔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여자 1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바라진 문명시대에 꿈이란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부터가 너무 이상스럽게 들리잖아.

여자 2 그래도 믿어야 돼. <확신에 찬 어조로> 믿음이 중요한 시기야.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 법이거든.

여자 1 그렇기는 하지만..., <남자들을 가리키며> 혹시 재네들도 알고 있을까?

여자 2 아마 아직은 모를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이미 공표된 비밀이니까.

여자 1 언니, 그러면 한번 이야길 해 볼까?

여자 2 안돼! <몸으로 제지하며 단호하게> 해 봐야 소용없어, 제까짓 것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

여자 1 그래도 남자들인데...,

여자 2 너는 어째 그리 주견이 없냐! 그저 매사가 남자 신봉이야.

- 여자 1 그래도 긍정할 건 해야지.
- 여자 2 이런 한심한 계집애! 지금은 21세기야. 네가 말했듯이 해바라진 문명시대란 말이야. 너 같은 계집애가 있으니까 아직도 남녀의 비중을 달리하는 거야.
- 여자 1 언니 꼭 사소한 일일까지 남녀의 편차를 개입시키더라.
- 여자 2 이런 멍청한 계집애! 이게 왜 사소한 일이야? 이 이야긴 그렇게 내놓고 할 얘기가 아닌 아직은 비밀 이야기란 말야, 비밀 이야기!
- 여자 1 언니두 참, 믿을만 하니까 그런거 아냐,
- 여자 2 믿어! 애가 이젠 한술 더 뜨네 <객석을 향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 믿을 사람이 있니? 눈알 돌리면 코 베어갈 세상인데 믿긴 누구 믿니, 너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여분의 오관이라도 있단 말이나?
- 여자 1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막해!
- 여자 2 얼씨구, 애 말하는 폼 좀 보게,
- 여자 1 언니, 내 폼은 지금히 정상이야, 정말 이상한 건 언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서둘러 장벽을 쳐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야?
- 여자 2 애가 왜 언성을 높여, 그래 너는 내가 꼭 무엇을 얻거나 지키자는 애기로 들리니?
- 여자 1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소용없어, 아마 지금은 어떠한 해명이 있을 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거야.
- 여자 2 어쩔 어쩔, 애가 배운다는 것이 꼭 그렇게 맹~한거만 배우니, 생각 좀 해 바라.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양심에 투자를 하니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지 않는 말아야지.
- 여자 1 언니, 서류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중요한 건 언니의 발상 자체부터가 단견이라는 거야, 이견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이해타산이 아니잖아, 좀더 거시적이고 광의적이어야 하는 거란 말야,
- 여자 2 호호호... 참 좋은 시력을 지니셨어, 그래 그 좋은 눈으로 겨우 19세기 유학자의 답습이나?
- 여자 1 <감정을 가라 앉히며> 언니, 편향의 눈은 늘 편향만을 보게 되잖아, 다양한 시각을 생각해 봐, 선하고 진실함이 천대받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야, 그 진리를 모르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실이 어렵다는 건 진실을 지향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
- 여자 2 이 한심애야, 다양한 시각은 오히려 네가 가져야 돼, 너는 지금 세상이 다시 창조돼야

---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인간의 본질이 불변한다면 세상 또한 동일선상에서 해석해야 돼, 결국 사람이나 세상이나 다시 창조되는 것이 아닌 개편되는 것이야, 선과 악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건 선과 악은 불가분의 관계야, 끝이 있을 수가 없어, 늘 시대를 따라 개편되며 어울려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설사 그것이 조금은 편향적이라 해도 그것을 부정하고 또 지나친 배척은 순리를 역행하는 일이야, 모난 돌이 정을 받기는 매사 일반이다, 알아 먹겠냐, 이 한심애야?

여자 1 아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인간이란 본질의 개념은 순용이 아닌 지향체니까, 이 세상 또한 얼마든지 좋은 세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그러기에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로 유통되는 진실이야, 요는 사람들의 의식과 노력이 문제라고.

여자 2 그래 이 맹추야 진실도 좋고 노력도 좋다, 아니, 다 이해한다. 허나 순리란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돌아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 과도 위에 뜬 가랑일 신세라고, 끈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듯이 세상에 끈은 길 또한 없다는 걸 알아야지!

여자 1 언니!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거야, 왜 진실을 왜곡하려 들어!

여자 2 그래 이 기집애야 엄청나게도 인간답구나. 네겐 그게 인간다운 건지 몰라도 시대는 결코 인간답게 봐 주질 않아, <힘을 주어> 잘 들어 뒤, 오늘날 이 땅에서 극단적의식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중국엔 추구하는 그 의식에 의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아주 모질고 은밀하게 말야.

여자 1 어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언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야 악마!

여자 2 휴~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점 한다는 소리가..., 애, 애, 안되겠다. 너는 도저히 구체불능이야, 제명에 죽고 싶다면 꼭 붙어다녀라, <여자 1의 손목을 잡아끈다.>

여자 1 언니! <손을 뿌리치며> 그럴 수는 없어, 결코! 진정이야, 순리와 순용이 이땅의 처세고 처세의 실종이 곧 종말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여자 2 <성난 소리로> 그래, 「하지만」 뭐야 이 기집애야! 오라, 악마의 유혹을 뿌리쳐 보자 이거냐? 무슨 돌도사 같은 소리야! 너 지금 동화책 보냐! 엉!

여자 1 <감정을 가라 앉히며> 언니, 하나가 둘을 부정하면 하나는 영원한 하나의 수치로 남을 수밖에 없어, 하나가 둘을 긍정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는 하나가 아닌 장대한 수 개념

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야.

여자 2 호호호..., 하나가 둘을 긍정해? 참 딱도 하다, 난 이제까지 순진해서 불쌍한줄만 알  
왔지 이렇게 무지한줄은, 오늘 또 새로워지네.

여자 1 언니! 도대체 왜 그래!

여자 2 도대체라니, 너야말로 도대체다, 도대체 긍정할 둘이 있어야 긍정을 하던 말던 할 것  
아냐, 이 멍청한 년아!

<이때 벤취에 앉아 있던 두 남자 슬며시 다가서며>

남자 1 아, 아, 고맙하신 숙녀분들께서 왜들 얼굴을 찌푸리시나?

<남자 2 여자 1의 곁으로 다가가 슬며시 손목을 잡는다.>

여자 1 어맛! <기겁을 하며 뿌리치고 여자 2의 곁으로 달아난다.>

남자 2 오! 아직도 이렇게 순진한 양이 있었다니~,

남자 1 하하하..., 하, 이거 가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남자 2 역시 김형은 놀라운 식도락가라니까,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뻔  
했잖은가 말일세, 하하하...,

여자 2 <가소롭다는 듯> 호호호, 너희들 뭐야, 건달이야 정보원이야?

남자 2 <여자 2를 쳐다보며 새삼스럽다는 투로> 아니, 이건 어느 우리에서 굴러온 똥돼지지?

남자 1 후후후, 그래도 어디서 정보원 소리는 들어 가지고...,

여자 2 형편없는 자식들! 좋은 말로 할 때 냉큼 꺼져!

남자 2 <신문 속에서 성급히 칼을 뽑아들며>호호호, 이 미옥한 똥돼지야, 지망생이란 꼬리만  
떼면 당장이라도 정보원이다. 알아 보시겠냐?

여자 2 호호호..., 구제불능이 도처에 널렸군, <한 손으로 가슴을 열어 보이며> 이 미련한 곰  
새끼들아, 이게 무슨 상표인지는 알겠지?

남자 2 진 진짜 정보원!

<남자들 놀라는 사이, 여자 2의 빠른 손놀림과 동시에 가벼운 탁음에 두 남자 가슴을 움켜쥐  
며 쓰러진다.>

남자 1 <쓰러지며> 아, 너무 경... 경솔했어,

여자 2 <쓰러진 두 남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던져주며> 그 누구도 시류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가라, 애송이들아,

여자 2 <겹에 질린 여자 1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며> 똑똑히 들어? 앞으로 어떠한 대립에 있

---

어 내 기준의 한계를 넘을 시엔 나는 단연코 너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가는지에 대하여는 너의 상상에 맡기겠다.

<여자 2, 여자 1의 어깨를 잡아 강하게 밀치고 <이때부터 마임으로> 여자 1 거부의 몸짓을 보이자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급기야는 여자 1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사라진다.>

## 2 막

<무대는 암시적 어둠을 내포하고 그 속에는 은밀함이 함유되어 있다. 음향 또한 그런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벤취 주변에는 세 소년이 모여 조심스런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협상중이다.>

<무엇인가 일이 순조롭지 않음에 소년 1 언성을 높인다.>

소년 1 새까! 그래 얼마를 바라는 거야?

소년 2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한 장!

소년 1 한 장? 야 이새까, 한장이 뉘집 애 이름이나!

소년 2 <강력한 어조로> 새까! 그럼 정보는 뉘집 폰대 이름인 줄 아냐?

소년 1 하~, 이새끼 이거 순 날강도잖아!

소년 3 새까, 너 지금 한장짜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거나 하고 씨부리냐?

소년 2 휴~, 이거 알만한 새끼들이 신경을 끊네

소년 3 새까, 이 시장의 상법 1조 1항은 바로 고객에 대한 예의와 신용이야.

소년 2 후후후 영성한 새끼, 이 시장에선 법도 기회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율법으로 통한다는 사실 정도는 어린애들도 그저 미루어 짐작으로 알 수 있단다.  
호호호..., 왜? 틀린 말이나?

소년 1 <앞으로 나서며> 이새끼 이거 거래고 뭐고 손좀 봐야겠어!

소년 3 <빠르게 제지하며> 새까! 흥정에도 조율이 있는 거야, 첫음이 벼락소리면 다음 음의 키가 없잖아?

소년 2 후후후, 그렇다면 유감스럽게 됐군, 다른 고객을 찾아보는 수밖에....

소년 1 호호호, 떠날 수만 있다면야....

소년 3 <소년 1을 제지하고 주머니에서 지폐 한장을 꺼내주며> 특별 케이스다 마!

소년 2 <특이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며 소년 3을 향해> 마, 너는 왜 돌부처 상이야? 듣고싶

지 않다는 거냐?

소년 3 야 야, 뭐라 뭐라, 아주 지독한 놈이다.

소년 1 <소년 3의 독려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폐 한 장을 건네주며> 새끼, 말해 봐!

소년 2 <고개를 돌리며> 꿈으로 가는 열차의 처녀운행을 제3광장에서 출발한다지 아마,

소년 3 제3광장이면 그리 먼 곳도 아니군, 그 밖에 또 다른 정보는 없나?

소년 2 <시큰둥한 표정으로>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

소년 1 새끼, 그럼 뜬대이지 말고 빨리 말해!

소년 2 마, 이걸 하나 하나가 모두 가치로 환산되는 정보야!

소년 3 새끼, 그래 이번엔 얼마야?

소년 2 <허공을 바라보며> 두 장, 필요없다면 그만둬도 좋아, 네놈들도 어차피 프리미엄을 붙일 건 뻔한 일이니까, 이걸 동종의 의미와는 별개의 일이야,

소년 1 이새끼 이거 「뻑」하고 아구리만 벌리면 돈이네

소년 3 새끼, 정말 지독한 놈이군,

소년 2 이미 내 뜻은 충분히 밝혔다고 보는데..., <떠나라 하자 소년 3 급히 두 장의 지폐를 건네주고 소년 1도 투덜대며 지폐를 건넨다.>

소년 1 새끼, 어서 말 해봐!

소년 2 <희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걸 정말 중요한 정보야, 꿈으로 가는 열차가 꿈의 역까지 도착하기까지는 30년이란 세월이 걸리고 그 사이엔 도합 세 번을 정차하는데 <손가락으로 표현하면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꿈의 역이지, 그런데 말씀이야..., 그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는데..., 아직 웬만한 정보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의미있는 일이지. 아마 한, 석 장 가치는 될 거야. <소년 1, 3을 의미있게 바라본다.>

소년 3 하! 새끼, 정말 대책없는 놈이군.

소년 1 새끼! 너 지금 그 말 제정신으로 뱉은 거냐!

소년 2 새끼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너희들은 주객을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소년 3 야 야, 내가 졌다 졌어.

소년 1 하! 나 참, 이렇게 돈 좋아하는 회한한 별종은 난생 처음 보네, <소년 1, 3 체념한 듯 석 장씩의 지폐를 꺼내준다.>

소년 2 <미소를 가다듬으며> 짜식들, 그래도 마 네놈들은 행운인 줄 알아, 아~ 그 핵심 사실이 뵈고 하니, 5년 역과 10년 역은 열차는 정차를 하나 승객은 하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만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15년 역은 승차와 하차가 자유지만 그곳은 생활엔 아무런 감응이 없는 일종의 4차원적인 세계란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해선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무형무중의 세계인 것이지, 더우기 재미난 것은 꿈으로 가는 열차와 현실로 돌아오는 재귀 열차가 동시에 정차하는 지점이라더군, 그래 꿈으로 가길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현실로 환원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이기도 한 곳이지, 다만 현실로 환원됐을 때 그는 이 시대의 잔재적인 위상에 대하여 모든 물질 가치가 사라진 30년이란 소비적 세월과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노쇠를 감수해야만 된다더군

소년 3 새끼, 그야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않다면야 그보다 더한 불평등이 어디 있어, 명색이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짓인데,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정보는?

소년 2 없어, 내가 가진 정보의 모든 것이야,

<소년 2 떠나려 한다.>

소년 1 잠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간다.>`

소년 2 무엇이 아직 남았... 아, 안~돼, 사, 사~람~살~려!.....,

<소년 1 흥기를 뽐아들자 소년 2 사람살려를 외치며 달아난다, 소년 2 도망가는 과정에서 돈을 흘뿌리고 소년 2를 쫓던 소년 1 흠어지는 돈을 주워들며 광소한다. 그런 소년 1의 뒤로 소년 3 슬며시 다가가 소년 1을 흥기로 쓰러뜨린다. 소년 1 쓰러지며>

소년 1 시... 실~수~였~다!.....,

소년 3 호호호... 새끼, 이 삭막한 세상에 그래도 웃다 돼지니 행복한 놈이군

<언제부터인가 무대의 한쪽 구석에는 한 소년이 팔장을 낀 채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소년 3이 소년 1의 몸에서 돈을 챙겨 일어서자 소년 4, 한 걸음 무대 중앙으로 걸음을 옮긴다. 소년 3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를 확인>

소년 3 기, 기관 정보원!

<소년 3 반사적으로 달아나고 달아나는 소년 3을 향한 한 발의 선명한 총성이 따른다.>

소년 3 <쓰러지며> 역시 무~서~운~놈~들~이~야.

소년 4 <소년 3의 몸에서 돈과 소지품을 챙긴 뒤 쓰러진 1, 3을 향해> 호호호 가소로운 자식들!

<소년 4 유유히 사라진다>

3 막

<경쾌한 리듬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골프채를 든 귀족풍 차림의 세 청년이 등장한다.>

남자 1 너희들도 그 소문 들었지? 꿈의 열차라는 것 말야,

남자 2 그래, 아주 대단한 소문이던데.

남자 1 어떤 부류의 꿈일까? 길몽일까, 흉몽일까?

남자 2 꿈이 아닌 현실일 수도 있겠지, 사회가 하도 어수선 하니까 말야,

남자 3 짜식들 신경 접어라, 운치 깨진다.

남자 1 누가 아냐, 혹시 또 묘하고 별난 운치가 나올지.

남자 2 그래, 혹 신중 휴회론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남자 3 뭘 모르는군, 누가 뭐래도 인생은 현실을 적절히 운용하고 구가하면서 사는 거야.

남자 2 새로운 유희창조도 현실의 적절한 운용법이라고 보는데?

남자 3 모르는 소리, 새로움의 모색에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설불리 움직였다간 공연히 현실의 입지마저 불안정해진다고.

남자 2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걸?

남자 3 후후후, 경솔하긴,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지, 허나 갖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변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일세, 내 생각엔 지금은 그 둘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남자 1 그래 맞아, 지당한 말씀이야.

남자 2 듣고 보니 그렇군, 공연히 모험을 할 필요야 없겠지,

남자 1 그렇고 말고, 역시 작은 회장님 처세술은 알아 모셔야 한다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아~ 오늘도 낭만의 태양은 떴습니다. 오~ 이 위대하고 사랑스런 자유여! 그대의 이름 위에 내 뜻을 얹으리라!

남자 3 짜식, 능변스럽긴,

남자 2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놀이로 풍요로운 유희를 만든단?

남자 3 짜식들,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 둔 묘안이 있지.

남자 2 묘안, 그래 그게 뭐가?

〈남자 3 미소로 답한다.〉

남자 1 자!, 자못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짜자잔!~

〈남자 3, 남자 1, 2의 얼굴을 모아놓고 귀속말로 잠시 무어라 속삭인다.〉

〈남자 1, 2 탄성과 함께 떨어지며〉

남자 2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남자 1 그래, 바로 그 놀이고 그 맛이야!

〈남자 1은 기쁨으로 충만된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감싸쥐고 빙글빙글 돌아 객석의 여자를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곤 또 다시 웃음을 참지 못해 이번엔 남자 2와 어울려 웃다가 퇴장한다.

남자 3도 따라 퇴장하다 관객을 향해 돌아서며〉

남자 3 〈관객을 향하여〉 예로부터 사내는 허명을 키우고 계집은 허영을 쌓는다고 했지, 으하하하...!

〈청년들이 사라진 반대편에서 세 명의 중년 남자들 등장〉

남자 1 공연한 짓거리야, 안그런가 김 사장?

남자 2 이를 말인가, 도대체 신이란 존재도 알고보면 허황된 데가 많아,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남자 3 그 얘기엔 나도 동감일세 부정은 더 큰 부정을 낳게 마련이거든, 어차피 기존의 틀이 구조적인 모순이라면 그 모순을 합법화시켜 주는 편이 오히려 현실적인 거야.

남자 2 그렇고 말고, 인식 자체만 해도 그래, 평등 평등을 부르짖는 작자들이란게 알고보면 모두가 하찮은 허접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잖은가 말이야, 그들의 내면에 정립됐다는 가치의 실체라는 것은 하나같이 구진한 진열장 식이라니까, 가령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100원은 단순한 100원짜리 동전 한닢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야, 100원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실체로서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저 평등만을 부르짖지 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남자 1 그건 그래, 흔히 부르주아를 부조리의 표상으로 오인하는 것도 그러한 편견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가,

남자 2 맞아! 바로 그러한 오인적 인식이 이 사회의 부조리인 것이야,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그러한 사회적 개념을 재정립해야 돼, 물질의 연대조성을 해서라도 말이야,

남자 1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

- 
- 남자 3 무슨 소리!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해 왔어. 가진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보네, 물질의 가치가 세상을 먹어버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야, 이제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명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스러운 것이 없어,
- 남자 1 글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지 않던가, 더구나 아직도 이 사회엔 가면의식을 중시하는 성향이 짙은데...,
- 남자 3 모르는 소리! 어느 짐승이든지 고삐를 매면 처음엔 발광을 하는 법이야, 허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숙명인 듯 양순 해지거든 부정하건 인정하건 세상은 이미 가진자의 것이야, 우리가 먹은 거라고!
- 남자 2 맞아! 우리가 먹은 거야, 神! 웃기지 말라고 해! 세상은 우리꺼야, 우리가 먹은 거라고
- 남자 1 음..., 먹은 거라! 후후후, 그래 먹은 건 먹은 거지, <들변스런 표정으로> 그래, 이제 저 세상은 우리꺼야 우리가 먹은 것이라고!
- 남자 2 하하하, 역시 자네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일세 그려,
- 함 께 하하하..., 저 세상은 우리꺼야! 우리가 먹은 거라고!

#### 4 막

##### <세 명의 중년 남자들 등장>

- 남자 1 <침통한 표정으로> 정녕 난해한, 아니 기이한 일이군,
- 남자 2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
- 남자 3 이 시대의 식자층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야.
- 남자 1 옛 말이 조금도 틀린데가 없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 남자 2 시대의 기득권에 논리가 과학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상을 초래한 인과응보적 귀결이야,
- 남자 3 그래, 흔히들 시대의 과학론을 말하지만 과학만이 절대적 가치로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 과학이 있게 된 동기의 이면에는 지능과 인식이란 힘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저변의 역사와 역사를 창출시킨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흔한 일로 치부해 왔던 거지.

---

남자 2 <수금의 표정을 지으며> 모든 인간이 삶의 가치를 정상에 두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분쟁의 씨앗을 잉태했던 거겠지, 어제밤 꿈에는 한 현자가 나타나 이렇게 묻더군 「세상엔 무서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냐?」하고 말야, 그래 나는 통례적으로 「예, 미친놈 칼 든 것 하고 무식한 놈이 펜을 든 것이죠.」 그랬더니 그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군, 「무식한 놈! 임마,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야, 현대에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째는 극단적 욕망이 의식을 지배할 때이고 둘째는 그 의식이 과학을 표출할 때야,」

<일동 소탈한 웃음>

남자 1 하여간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그 요지경으로 범벅이 된 이 시대를 조화롭게 풀어나가 기란 인간의 능력으로 애시당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몰라 <사이> 아마 그것은 애초부터 神만의 몫이 아니였는지도 모르겠군, 그렇다고 시대의 식자층이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 2 물론 그 조화로움의 길이 산술적인 방법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 차라리 인식의 부재상태라면 더 쉬울 수도 있고 말야, 허나 욕망을 우선에 둔 혼돈의 가치관에서 오는 병폐의 하나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에의 접근은 전무하다는 거야,

남자 1 그래, <한숨을 동반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아니, 생명의 자체 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실질상의 행복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왜 미처 인식치 못하는 것인지, 왜 꼭 벼랑끝에 밀려서야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는지, <긴 한숨으로 먼 허공을 응시한다.>

남자 2 결국 허위의 날들이었어, 배움이 배움을 알았을 때만이 배움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좁은 인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위험의 중심부에 섰던 거야,

남자 3 그렇다고 그것을 좁은 인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 절망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야, 어느 한쪽이 득세를 한다 해서 대항위치의 물질이나 이념을 영원한 상승이나 추락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또한 부정이나 연연 외면한다는 식은 대체로 쓸데없는 소비의 몸짓일 뿐이지, 때로는 가장 비열한 생의 연명일 수도 있고 말야, 그것도 순간일 뿐인,

남자 1 그렇다면 뭔가? 싫건 좋건 우리는 지금 사회를 향한 선택의 일면을 보여야 한다는 게 아닌가?

- 
- 남자 3 어쩔 수 없는 시대라고 말 할 수밖에 없겠지, 개인이나 가정문제에 일신을 국한시킬 만큼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니까,
- 남자 2 그건 그래, 사회 일원으로서의 당위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할 때지,
- 남자 1 하긴, 개인적으로는 생존의 운신마저 어려운 시대이니 오히려 개인보다 앞서가는 사회관을 지녀야겠지,
- 남자 3 옳은 생각이야, 의식이 존재하는 한 인식의 수용은 어디에나 있다고 보네, 삶의 방법이 단순한 영위의 차원을 넘어 진실과 의행을 추구하고 진정한 가치존재의 의의를 찾는다면, 그리하여 다수의 의식이 하나의 목적으로 승화된다면 최소한 오늘 같은 무력감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다고 보네,
- 남자 2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악의 군집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선의 목적에는 결집력이 없다고 보는데...
- 남자 1 그래, 그건 그저 요원한 원칙일 뿐이네, 이 시대에서 원칙에 투자할 의식을 찾는다는 건 말 그대로 억지일 뿐이네
- 남자 3 <감정적으로> 무엇이 그렇게들 두려운 건가!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고 또 다음 날이 오고, 그래 그 다음 날 다음 날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장의 목적이 人生이고 삶일까? 되돌아 본 과거는 늘상 부끄러움으로 가득차고 썩은 공기속에서 부패된 희망을 꿈꾸고, 누구의 잘못이길 바라고 누구의 책임이길 바라는 그것이 이땅의 선자들에 목적이고 이 시대의 기층인에 너울인가? <사이> 약속은 없었지만 우리에게 이미 가야 할 무언의 약속된 길이 있다고 믿네, 현실보다 더한 현실이 없듯이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시대의 고운 웃음일 수도 있는 거야, 어쩐가 친구들? <격해지는 감정적으로> 자네들의 머리속에도 극단의 소명 의식을 담아보지 않겠나? 단순논리에라도 매달려보잔 말일세 그 편법의 놀이터에서 울 안에 갇힌 민중을 향해 던지는 그들의 낚시줄을 끊어버리고 이 시대의 식자라는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 남자 1 휴~, 다시 말하지만 이 혼돈의 시대에서 옳은 삶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야,
- 남자 2 <남자 3을 향해> 물론 자네의 의식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네,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큰 취약점이기도 하겠지만, <사이> 어쨌든 지금 우리의 의식은 어떤 정리의 단계라고 보아야겠지 <사이> 궁극적으로 탄생의 대칭

은 회귀라는 말을 하고 싶네, 개성과 견해차이로 그 길이 다름으로 인해 시대상황에 명확한 득실을 규명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수 밖에,

남자 1 소원하게 생각지말게나, 옳은 일이라고 무조건 다 좇아 갈 수 만은 없다는 게 이 세상 살이 아닌가?

남자 3 그렇군! <허탈하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언젠가 자네들의 의식이 내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게, 아니,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무리겠지, 아, 한바탕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 후후 그 또한 군내가 들썩한 썩은 비겠지? 후후 후...

<남자 3 씩씩히 퇴장하고>

남자 1 어디론가 또 한 사람이 사라지겠군,

남자 2 <일어서며> 이 자리를 서두르는게 좋겠어?

남자 1 <따라 일어서며> 공감일세,

<남자 1, 2 서둘러 퇴장>

<중년 남자들 퇴장하는 반대편 무대에서 세 젊은이 등장한다.>

남자 1 웬지 공기가 스산해? <주변의 정경을 둘러보며> 사방이 온통 잿빛 구름이야,

남자 2 <한탄조로> 사회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거대한 베일몽치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남자 3 <의자에 앉으며>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사회는 정보화 된 문명의 기틀에 속해 인본주체가 아닌 문명주체로서 신 문명이 구 문명을 주도하는 시대니까,

남자 2 그래, 어찌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저만치 뒤에 있고 문명이 저희들끼리 서로 어우러져 사회를 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남자 3 이제는 사람의 의식도 생산이나 작은 소망의 욕구 같은 정상적인 성장투쟁이 아니야, 이젠 심화된 교조주의나 광신자의 맹종 같은 거라고,

남자 1 문제는 이 거친 흐름을 제지해 줄 비책이 없다는 거야, 그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 수 없는 일들 뿐이잖은가 말일세,

남자 2 어쨌든 인본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거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인간이 주장할만한 영역이 없어 정말 굳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면 고작 마음의 발을 일구고 가꾸는 정도겠지,

남자 3 그것도 그리 용이칠 않다는 게 무서운 현실이지,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면 아예 그들을

- 따라 미쳐가거나 아니면 아주 긴 동면의 꿈을 꾸는 거야, 한 반세기쯤 말이야, 그때쯤이면 이 지상에 또 어떤 바람이 불지 아냐, 하하하...
- 남자 2 꿈이 이상이라? 음..., 거 괜찮은 착상일세 그려,
- 남자 1 사람들, 공담이나 하자고 우리가 이자리에 모였나?
- 남자 2 공담이라니, 이 사회에서 우리의 소진된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꿈이야 꿈! 하하하...
- 남자 3 시체말로 희망이 절벽이지, 인간은 희망이라는 절벽에 선 거고 과학은 희망의 정상에서 비상을 한 거야, 희망을 싸안고 말아야, 이제 그 놓쳐버린 희망을 따라잡는 일이란 꿈이 아닌 현실로는 불가능해,
- 남자 1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론이긴 하지만 대화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운다는 느낌이군,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논리rozum을 요할 시기고 그 선두의 자리매김엔 당연히 짧은 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 남자 3 사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 실존이 없는 허상의 비전제시가 대충 그럴 수밖에,
- 남자 2 아마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확실한 명제라면, 꿈의 기원이고 꿈 속에서의 이상 구현이야, 자 —, 나는 이제 그 꿈으로 가보고자 하네 <편안히 드러누우며 잠을 청한다.>
- 남자 1 <분노해 일어서며> 이런 한심한 작위! 무에서 유를 찾는 건 인간의 본질이고 숙명이야, 물론 그 속에는 수많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이 지능에 대한 보답임을 모르나!
- 남자 2 <슬그머니 일어나 앉으며> 설마, 사람들이여 과거를 회상하고 회개하라! 하는 가두 캠페인을 하자는 건 아니겠지?
- 남자 1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명제가 있다면 바로 시대의 책무야! 꿈의 구현이 아닌 현실시대의 구현이 돼야 한다고!
- 남자 3 어쨌든 이 불모의 현실에 거주하는 우리의 입장정리라면 전체가 서둘러 하나의 약속으로 가는 거겠지, 어제와 오늘은 내일이라는 전제하에 과정되고 너와 나에 앞서 우리나라는 동질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고도 간결한 답이야, 하지만 정상적인 길을 가기엔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 동떨어진 역방향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문제 없는 답을 찾고자 부심하는 거라고,
- 남자 1 문제가 공존되지 않는 사회라니?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네만 풍문에 대한 진위도

- 밝혀야 될게 아닌가?
- 남자 2 꿈의 열차라 했지? 글썄..., 경위야 어떻든 이미 때늦은 촌극이 아닐까? 요는 지금은 神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야, 좀더 새로운 과학이 새로운 도의 문명을 창출할 때가 아닌가 말이네,
- 남자 3 아니, 꿈의 열차는 진보된 神의 문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이제까지 우리 역사의 神이란 모두 가공상의 전설적 神에 불과하거든, 허나 신은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심경을 유통시키는 절대자의 존재로 군림해 왔다는 거야, 누가 뭐래도 「神」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지켜왔던 거지, 그러나 근자에 들어 인간의 영악성은 神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반을 꿈꾸게 되고 급기야는 신의 존재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시점에 이르매 이에 불안을 느낀 神은 더이상 침묵의 형태로는 자신의 위권을 누려 갈 수 없음에 실존에 합류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 남자 1 그렇다면 神의 출현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 문제지,
- 남자 2 물론 군림을 위한 출현이라면 인간에겐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겠지, 허나 이제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神은 군림 아닌 군림, 그 이상의 위치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네 神은 그러한 위상형태에 스스로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고나 할까,
- 남자 3 어느모로 보건 神의 출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야, 인간의 생활범주에 神이란 이원의 개입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우려는 이제까지 이 지상에 「우리」라는 표상인이 누려왔던 가능성 있는 절대권의 상실이라는 거야
- 남자 1 그러기에 연장되는 가능성을 개진해 보자는 게 아닌가?
- 남자 3 역설적이지만 꿈이 아닌 현실로의 모색은 억지에 불과해, 기원이고 바람이지만 인간이 과학을 예측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간이라는 동질로서 상호보완의 가능성 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 남자 1 <힘없이> 정말 그 무엇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데.....,
- 남자 2 인간적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꿈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 남자 1 꿈! 꿈! 하는데 도대체 그 꿈으로 무얼 하겠다는 건가?
- 남자 3 아마 이 시대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면 될 걸세,
- 남자 2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대다수가 부평초가 된 것이야, 그저 바람이 부는대로 물결이 이는대로.....,

---

---

〈조명 어두워지며 주저앉은 세 사람의 모습만 망연히.....〉

5 막

〈꿈으로 가는 열차에 대한 평화시 시 위원회의 비상대책회의〉

〈위원들 웃고 환담하는 가운데 사회자 등장〉

사회자 에~ 친애하는 평화시 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이렇게 우리 평화시 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다름아닌 사회의 불만적 고조와 향간에 떠돌고 있는 속칭 「꿈으로 가는 열차」의 풍문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를 가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사회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의의 원제를 「평화시 제15차 비상대책 위원회」로 발의 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

그럼 식순에 의거 국기와 국가원수의 존영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례〉

에~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런 방면의 전문가 이신 123 박사님을 초빙하였으니 박사님의 기초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박을 향하여〉 자, 박사님 나오시죠, 〈박사 등장하고〉 123 박사님이십니다.

〈위원들 박수〉

박 사 에~ 존경하는 평화시 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원론적인 이야기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고 아울러 이야기의 성격이 전위적이든 아니면 당면한 현실의 반영이든 간에 제 이야기에서 어떤 극단적 해답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에 참고의 자료가 숨어있길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정립된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개념이 있게 됨은 양립적 구도를 좋아하는 인간사회의 음양적 이치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 바로 이러한 상대적 모순을 지양하는 변증법적 논리가 과거 우리 사회의 핵심 주체였었고 또한 발전적 방향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네 삶 속에서 인적이나 물질의 대립이 아닌 정신적 상대성을

---

---

도출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그 지양성에 있어서는 거의 자취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오랜 역사의 진척과정 속에서 어느 시대에 이르러 과학이 현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시대를 단순히 개화시대 또는 문명시대라 명명함은 잘못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 시대는 다름아닌 과학과 첨단이 어우러진 복합 시대인 것이죠, 그 시대 속의 인간에 의식은 이미 과학이나 또는 과학의 부산물에 침전된 과학의 예속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화의 의식문명이 이땅에서 神을 몰아낸 뒤 그 위에 변증법적 논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고 그 시대는 문명을 확고한 시대개념으로 정립시키지 못한 채 서둘러 과학시대에 도립했고 기초가 불안정한 과학문명은 질서를 무시한 변칙과 폐단으로 무장하고 빠른 속도로 시대를 점령하여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게 되자, 그 시대로부터 탈피를 꾀한 인간주체의 위기의식은 다시 신을 요구하게 되니 신은 과학문명에 맞설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적 현실에 다가온 것입니다. 에~ 이러한 시대전도의 개략적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신은 인간을 지배하길 원하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욕망을 지배하길 원하며 그래 중국엔 욕망이 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물고 물림의 도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면 이것은 곧 흩어진 하나일 수도 있는 이 지상의 불변적인 모순이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신을 지배하든 과학이 사람을 지배하든 아니면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든 이것은 사회나 관념자의 지배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의 주체적 성격을 인간의 그릇된 욕망의 산물이 아니냐? 하는 소견과 아울러 이 일은 정제된 욕망이 아닌 인간 의식주체로의 지양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산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을 회안 인지 자료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사의 연설중에도 위원들 시큰둥한 행동을 보였고 연설이 끝나도 위원 한 사람만 박수, 박사 허탈하게 퇴장>

사회자 <불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에~ 123 박사께서는 원론적이라는 가치미명 아래 신과 과학 그리고 욕망의 삼각관계를 지극히 이론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언적입니다만 여기에서 본 사회자는 123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얼마나 현실성 있는 변설로 다가왔는가? 하는 물음과 과연 상황의 대처방안에 부합되는 애긴가? 아니, 들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조차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이미 오랜 옛날부터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은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

---

---

의 사이입니다. 그러한 원론의 시조를 무시하고 이 시대 최고의 식자로 추앙받는 123 박사의 말이 상황인식도 제대로 못한 공담의 성격이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학적인 취미에 길들여진 지식층의 썩은 병폐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여기면서 장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에~ 그러면 이번엔 우리 기관의 1급 정보원이 456 소년으로부터 풍문의 내용에 관한 정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까. <밖을 향하여> 자 이리 나오세요?

<제 2막의 정보 소년들 중 소년 4 재등장, 소년 4 걸어나오며 위원들에게 자료 용지를 돌린다>

사회자 자, 긴장을 풀고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진술해 보세요.

소년 4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에~ 며칠전 제가 놓은 미끼에 한 새끼가 걸려들었습니다. <주먹을 거머쥐며> 저는 그 새끼를 구스르고 죽쳐 사실 모두를 알아냈습니다. 돈이 좀 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린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예 예, 아주 잘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요.

<소년 자리에서 떠나길 주저하자 사회자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소년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자 소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퇴장>

사회자 자~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보소년의 이야길 잘 들으셨지요? 에~ 이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숙안이나 견해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1 <번쩍 손을 들고 있어서> 에~ 위원동지들! 3지구 대표 789 올씨다. 듣자 듣자하니 이거 배알이 뒤를러 못참겠소이다. 이 대명천지에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망령 열차가 우리 지역을 선택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시의 지난 행정사안에 주목시키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소견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간 우리 시 위원회의 실세가 과연 무엇이었나는 것입니다. 반대개념이 어떻고 시민의식이 어떻고 하는 이 모두가 사치성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덥잡은 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까? 원론이건 원칙이건 이번만은 모든 규범을 무시하고 힘으로서 밀어부칩시다! 그리하여 실추된 시 위원회의 명예와 주권을 회복하고 위원회의 강령으로서 시민 통치의 기초를 이룹시다.

위원 2 옹습니다! 저도 3지구 대표 789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찬동합니다. 잘 살건 못 살

건 그것은 전적으로 그 국민, 나아가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은 설사 신이 존재한다 해도 그 神을 능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자신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과학 우선국가를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 언젠가는 스러져가게 마련인 과정의 낙오체에게까지 가슴 아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한 소의는 희생됨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꿈으로 가는 열차가 정차한다는 제3광장을 원천봉쇄하고 기관은 신을 들먹이는 자들을 색출 엄단의 효수를 내려야 합니다. 자~ 위원 동지 여러분! 우리 승리를 쟁취할 힘을 모읍시다!

<여기 저기에서 웁소! 웁소! 하는 연호>

<위원 3이 잔기침을 하며 일어서자 소요가 가라 앉는다>

위원 3 위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같은 잠시의 생각속에 이런 말들이 스치더군요, 「타락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백성의 갈 길은 무엇인가?」하는 물음입니다. <사이를 두어> 물론 타락할 수 밖에는 없는 길이겠죠, <위원들 동요기미>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당한 현실의 조건속에서 희망과 비전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면 과연 우리 앞에 꿈의 열차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병적인 관행들에 의해 사랑의 고갈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없는 사회에서 무슨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마리 길잃은 양이 있듯이 우리 사회엔 낙오된 소수가 있습니다. 길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듯이 우리 위원회의 해결방안 또한 낙오된 소수에게도 동참할 기회를 주는...

위원 4 「광!」 <책상을 치며 일어서다> 아니, 박 위원님!

<중주먹을 움켜쥐며>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위원 5 <위협조로 일어서며> 박 위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허깨비로 보인다는 거요!

<위원들 샷대질로 위원 3을 향해>

※ 이거 아무래도 곱게 못봐주겠구먼!

※ 박 위원 손좀 봐야겠어!

※ 박 위원 사과발언 하시오!

※ 사과발언 해!

위원 3 <사이를 두어> 위... 위원 동지 여러분 시... 실... 실언을 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4 그럼 그럼, 실언이 맞는 얘기야,

위원 5 하하하..., 그럼 실언이 맞는 얘기고 말고,

〈조명은 사회자 얼굴에 클로즈업 되고 사회자 들의 미소를 짓는다.〉

위원 6 〈간교스러운 미소와 음정을 동반해 일어서며〉헤헤...,

위원 동지 여러분! 5지구 대표 321 읍습니다. 헤헤 지금까지의 회의 진행 과정을 주욱 지켜보는데 이 일련의 사건은 우리 시 위원회의 주권회복에 귀착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사건을 맞아 우리 시 위원회에서 3지구 대표님의 말씀처럼 원천 봉쇄의 조치를 취한다면 결과야 어떻든 대외적인 명분 손상을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자 하!~ 〈탄성을 지르며〉 역시 5지구 대표 위원님은 위대한 행정가이십니다.

위원 6 헤헤..., 무슨 과찬의 말씀을..., 에~ 그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묵은때를 벗겨버릴 기회가 왔고 기회는 기회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는 정보가 바로 그 사회의 매체요 주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평화시는 그 정보적 힘에 있어 가회 타 시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 저는 지금의 이 현상을 그대로 조용히 지켜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자 물론 표면적으로만 말하겠죠?

위원 6 예 물론입죠, 그러나 그 속에는 원천봉쇄보다도 더 무서운 암중의 힘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지하에서 움직이던 용공 세력들을 일제히 지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력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슬며시 다가가 그들의 뒤통수에 강력한 철퇴를 먹이는 겁니다. 그들의 근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일동박수〉

사회자 〈감동적으로 일어서며〉 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와 견해의 일치를 보이신 것은 일찌기 없었던 위원회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시 행정부는 위원님들이 내정해 주신 현명한 판단에 힘을 얻어 시 행정 인력과 잠재된 미상적 힘을 풀 가동하여 새로운 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평화시 제15차 비상대책 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

## 6 막

<꿈으로 가는 열차의 형상이 최고조의 명도로 밝아오며 예의 그 노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 리 이 시대의 중생들이여, 21세기의 신 시대인들이여, 그대들은 들었는가? 꿈의 열차의 꿈 같은 이야기를, <복소리 한 번>

오늘의 중생들이여,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신 시대인들이여, 꿈의 열차는 위대하며 또한 영원불멸하다. <복소리 한 번>

이 시대의 중생들이여, 위대한 신의 이름으로 그대들에게 묻겠노라!

그대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중생들이여! 그대들의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생들이여! 그대들은 아는가? 잘 살아야 한백년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질적인 한계라는 것을,

중생들이여! 오늘도 한계로 저무는 실질 속에서 그대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중생들이여! 오늘 그대들의 삶이 한낱 공상불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면 꿈의 열차는 오직 희망을 향한 영원의 이름이여 무한을 실은 자유의 표상이다.

중생들이여! 세월이 흐르면 흐른 세월 뒤엔 무엇이 남겠는가? 무엇이 남겠는가?

중생들이여! 신 시대인들이여! 실질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과 무한을 제공하는 꿈의 세계로 입문하라! 빛바랜 시간의 탈을 벗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창조하라!

중생들이여! 신 시대인들이여! 신 시대인들이여! 그대들은 태초에 神이 있었음을 기억하는가?

신에 영원함을 믿는가? 이제 신의 이름으로서 그대들을 인도하노니, 스쳐가는 시간마다는 헤안에 눈을 뜨고 옮기는 걸음 걸음마다는 미로의 길을 밝히듯 서광의 빛이 따르리라!

중생들이여! 신 시대인들이여! 神의 이름으로서 그대들의 심안에 희망의 기적을 울리노라!

자~ 꿈의 열차여 기적을 울려라!

---

〈기적소리〉

〈한쪽 구석으로부터 남루한 차림의 소년이 등장〉

〈신의 형상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잡으며〉

소년 오~ 나의 신이시고 우리 모두의 신이시며 신에 신이신 꿈의 신이시여!

오늘도 신을 추종하는 한 중생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식을 지녔으며 어떠한 사고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열일곱 소년이며 이 사회의 어느 외진 구석에서 비천한 신분을 안고 편견의 모체로 자생하는 한 소년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기사 저같이 보잘것 없는 일개 소년의 실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굳이나 알 필요도 없고 나 역시 사람들의 입가에 험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나 문제는 그들이 모르는 나는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설사 있다한들 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상상의 내일을 가져올지 제 자신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현실이 싫습니다. 늘 꿈이길 바라고 꿈이라 생각합니다.

오~ 신이시여! 언젠가 이 사회에서 연게 될 나의 이름에 대하여...

오~ 신이시여! 두렵습니다.!

갈등은 밤낮없이 걸도는 나의 전신을 물어뜯고 이제는 이 여린 의식에도 그 섬뜩한 칼날을 들이댁니다.

오~ 신이시여! 광활한 태양 아래서도 하루 해가 기울어간 어둠 속에서도 제 꿈은 늘 비운의 꿈이란 것을...

오~ 신이시여!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 하였는데 작금의 비판에 시대는 무엇을 낳았습니까? 과학의 기상 아래서 숨을 조리는 〈관객을 향해〉 저 속물의 군상들이 보이십니까? 권력과 배금의 이름은 내일의 희망을 거머쥐었고 이제는 사랑도 시대적 유행의 한 소관사항일 뿐입니다.

오~ 신이시여! 이 절망의 배경 속에서 힘없는 중생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어야만 할까요, 사랑과 진실을 찾아 19세기 동화속의 삶을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

---

까? 끝간데 없는 하늘가 어디선가는 늘상 찬바람만 불어오고 하루같이 검침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힘없는 중생은 오늘도 막연히 애원으로서 신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오~ 나의 신이시고 우리 모두의 신이시며 신에 신이신 꿈에 신이시여! 이 무지한 중생의 세계를 굽어 살피소서! 이몸을 굽어 살피소서!

<소년의 기도 소리가 절정에 이를 때쯤, 세 소년이 무법자 같은 행동으로 들이닥친다.>

소년 1 하! 이 새끼 이거 어느새 예까지 토졌네?

소년 2 하하하, 제까짓게 토겨봐야 독 안에 든 쥐지 별 수 있겠어? 안 그러냐 요놈아?

<기도하는 소년의 뺨을 발길로 장난스럽게 때린다>

소년 <분노해 일어서며> 정말 왜들 이러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폄박할 권리가 어디있어!

소년 1 어쭙, 참새가 죽어도 썩 한다더니<일어선 소년을 발길로 차 쓰러트린다.>

소년 3 <지도자 품으로 나서며> 요즈음 우리 조직내에서도 부쩍 권리 찾는 놈들이 많아졌단 말야, <쓰러진 소년에게 다가가 발길로 가슴을 밟으며 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 소년의 눈 앞에 들이대며>자- 똑똑히 보거라, 이걸 네가 우리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한 문서가 아니더냐?

소년 그 그건...

소년 3 왜 말을 못하냐? 어려울 때는 조직을 팔고 편안할 때는 자유를 찾는다. 후후후... 사람이 그러면 못쓰지, 호호호...<1, 2를 향해> 애들아! 끌고가서 정신나게 손좀 봐 줘라!

<소년 1, 2 힘차게 대답하곤 소년을 끌고 나간다.>

<소년 3도 따라 나가다 관객을 향해 돌아서 종이쪽지를 흔들어 보이며>

소년 3 여러분들도 미래의 사회는 증명의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하하...

## 7 막

<비밀 결사 조직 "자유전선"의 회의장면>

<각종 무기와 깃발을 휴대한 일단의 무리들의 운집한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리의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회자 자 자, 동지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

---

에~ 오늘 우리 자유전선의 지도부층에 모임은 근간에 도래한 꿈의 열차라는 애매모호한 동기적 기회부여로 말미암아 하부조직내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의 힘에 대한 사회발현의 문제를 놓고 찬반론에 붙여 동지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지도자 동지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 사람 손을 들고 일어선다〉

사회자 예 2지구 조직책 동지 말씀해 주십시오.

2지구 동지 여러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밥은 먹고자 것듯이 힘은 쓰기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같이 어두운 곳만 감도니 뜻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우선 모양적으로 시덥지 않습니다. 자유전선의 사회발현을 제안합니다.

사람 1 2지구 조직책 동지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사람 2 사회 발현을 찬성합니다.

〈사람들 다수 동조〉

〈한 사람 손을 든다.〉

사회자 예, 2지구 조직책 동지 발언하십시오.

지 구 에~ 동지 여러분? 저는 좀더 관망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어느 일에서 건 성공이란 것은 과정의 산물입니다. 바로 그 과정의 척도는 정확한 상황인식에서 표출된 선후적 판단기준과 용기있는 결단의 추진으로 이뤄져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 볼 때 당면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인식이란 우리의 부정확한 힘 외엔 별로 뚜렷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적도 모르고 관조체인 시민의식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 또한 분명한 가시적 표현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대의 변수인 꿈으로 가는 열차의 실체 또한 모릅니다. 그것이 정녕 꿈으로 가는 열차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모조품 미끼인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으로 우리의 보잘것 없는 힘을 발현한다는 것은 어두운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 3 옳은 말이오!

사람 4 그래요, 공연히 개죽음을 할 필요는 없소. 〈사람들 다수 동조〉

사회자 예 11지구 조직책 동지 말씀 하십시오.

11지구 에~ 2지구 조직책 동지의 말씀이나 7지구 조직책 동지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냥

---

---

있자니 모양이 사납고 나서 보자니 사실 뒤가 켜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렇게 의견대립이나 벌이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정은 지도자 동지에게 맡깁시다.

사람들 ※ 옹소!

※ 지도자 동지에게 맡깁시다

※ 현명한 생각이요. 지도자 동지를 모셔요

사회자 11지구 조직책 동지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도자 동지를 모십시다.

사람들 그럼시다.

옹소! 옹소!

<한 청년 무대밖으로 뛰어 나간다>

사회자 곧 지도자 동지께서 도착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 동지를 모실 때까지 우리 모두 투쟁의 깃발을 올립시다.!

<우리를 환호하고 각종 무기과 깃발을 흔드는 가운데 합창으로 투쟁의 노래 부른다. 노동가나 농민가 중에서 선곡>

<노래 끝날즈음 한 청년 뛰어들어오며>

청년 지도자 동지가 오십니다.

<지도자,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우리들, 일제히 기립해 구호를 외친다>

구호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지도자, 중후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장중을 둘러본 후 손으로 착석을 유도한다.>

<지도자 연단으로 올라>

지도자 자유전선의 동지 여러분!

자유전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먹을 치켜들며> 자유전선은 위대합니다.!

<우리들 환호>

지도자 자유전선의 동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세월의 덧없음을 탓하지 맙시다.

---

---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의 여명을 밝혀왔으며 머지 않아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엔 환희에 가득찬 태양을 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환호>

지도자 고난의 날들은 추억에 묻힐 것이며, 우리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후손은 자유를 노래하고, 사학은 자유전선을 기록해 줄 것입니다. /

<우리들 환호>

지도자 자유전선의 동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투쟁은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피동자의 의식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세상은 쟁취하는 자만이 소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유전선의 동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의 투쟁 활동 여하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전선의 이름하에 행동하는 양심의 기치를 올립니다. / 투쟁의 깃발을 올립니다. /

<우리들 환호>

<지도자, 선창으로>

구 호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자유전선 만세!  
자유전선 만세!  
자유전선 만세!

<우리들 환호와 함께 투쟁의 노래 부르며 퇴장한다.>

## 8 막

<무대 측면에는 제2휴양소라는 팻말이 보이고 오가는 사람들이나 이구석 저구석에서 명상을 즐긴다거나 소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노인들이다>

<무대 중앙에는 두 노인이 앉아 장기를 두고 있다.>

노인 1 아, 장기두는 사람 어디 갔나!

노인 2 <망연히 먼 곳을 바라보다 한 수 두곤 또 다시 먼 하늘을 바라본다.>

노인 1 허허, 꼭 입적을 눈앞에 둔 노승의 상이군

노인 2 <갑작스런 독백으로> 그래, 이것이 아니야! 결코 가뭇없는 희망의 아니야!

노인 1 허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노인 2 노망이 아니라 깨우침일세 <장기판을 밀치고 일어서며> 최소한 자신에게 만큼은 슬  
직해져야 해! <일어서며 주위를 향해 큰 소리로> 자~아.

여러분!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모두 이리로 모여 보십시오?

<반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 하나 둘씩 모여든다>

자~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저무는 인생을 이렇게 한담이나 소일로 보내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밀어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을 밀어내기 위하여 우  
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까?

<한 노인 앞으로 나서며>

노인 3 <체념조로> 우리는 이미 사회로부터 밀려난 소외인들이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소!

노인 2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소외시켰다 해도 우리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그 누구보다도 사회를  
가장 많이 살았고 많이 아는 최고의 경력자들입니다. 많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하고 많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많이 안다는 것은 곧 가장 올바른 가  
치관에 근접된 선구적인 의식 개념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이 사회에서 과학  
이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점  
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능과 이지를 함유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  
니다. 범의 사후엔 가죽이 남듯 인간의 사후엔 이름이 남습니다. 이름이란 것이 무엇  
입니까? 바로 지능의 표상입니다. 그래 예견의 내일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장래를 기약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아울러 면면히 이어지는 삶의 지향속에서 우  
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가치의 의의를 느끼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역사에 대한 배양  
의 덧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소외계층을 자처한다는  
것은 지능체,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2 힘에 부쳐 주저 않는다>

<잠시의 공백 뒤에 노인 4 앞으로 나서며 노인 2의 말을 받아 잇는다>

---

노인 4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황 노인 말이 맞소이다. 이것은 나도 아니, 나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침의 태양이 싱그러운 것은 새로움을 잉태했다는 증거이고 석  
양이 진한 것은 절정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자신을 외면한  
다고 해서 극락왕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가치로워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불의를 향한 침묵도 불의적 공범임을 자인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  
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의식도 내일을 소중히 여길 연계의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있다면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지금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거친숨  
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성을 버리고 충동적 욕망을 택한 어느 만취자의 걸음걸이  
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 경륜으로 말하는 참된  
이상의 진리를 심어 줍시다!

인간을 가르쳐 줍시다!

<한 노인 일어서며>

노인 5 옹소! 그 말을 듣고보니 지금의 현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소!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 섭시다!

다 수 ※ 그럼시다!

※ 일어 섭시다!

<노인들 호응하여 몰려 나간다.>

## 9 막

<5막의 기초연설을 하던 박사내외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등장>

여 자 여보? 이젠 정말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더구나 당신 같은 분에게는 자칫  
문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 한동안 침통한 표정으로 꿈의 열차를 바라보다가 마음의 결심을 굳힌 듯>

남 자 알고 있소 보이지 않는 암중의 힘이 나의 전신을 향해 옥죄어 들고 있다는 것을, 살  
대 같은 눈빛이 나의 심장에 날아와 꽂히는 느낌도 말이요.

여 자 아니! 그렇담, 당신 정말로...

남 자 그렇소! 오래 시간 갈등을 정리하면서 이 아픈 현실에서 내가 내릴 수 있었던 단

하나뿐인 선택의 길이었소.

여 자 <남자의 팔을 잡으며> 여보! 이진, 이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은 정말 고등 바보군요,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왜 그 혼란 타성이란 것이 쥐 꼬리 만큼도 없는 거죠?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찬란한 배경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당신이 내세우는 그 알량한 양심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위대하나요? <여자 절규하듯> 대답을 해 봐요! 그것도 아닌 당신이 좀더 멋진 용기의 사내라면 한번 소리라도 쳐 봐요!

<여자 흐느끼며 쓰러진다.>

남 자 여보! 여보! <여자를 그러 안는다>

여 자 <떨어지며> 그렇군요, <사이를 두어> 당신은 늘 저에게만은 강해왔어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군요, <사이를 두어> 하지만 저에게 있는 당신은 늘 그 이상이예요, 모든 것이 다~. <사이>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믿어왔듯 지금..., 지금 저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당신의 모든 것을 믿을 뿐이에요.

남 자 미안하오! 내 당신에게 미안이란 말밖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만 내 의식의 방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현실과의 타협을 불허하고 있었소, 그렇다고 그들에게 맞설만한 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내 양심의 표출로 인한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통받는 아픔을 더 이상 지켜 볼 용기가 나질 않았소.

여 자 <한발짝 물러서며 또는 비켜서며> 그만하세요! 지금 당신의 행동을 부화뇌동하다 할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언제나 소신있게 행동했으니까요, 다만 그 진실을 추구할 수 없음이 실존의 희망을 찾아갈 수 없음이 슬플 뿐이에요,...

남 자 여보? 우리 현실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제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은 온갖 욕망으로 부풀대로 부풀어 폭발 직전에까지 왔소. <사이를 두어> 그래, 애초부터 어쩌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위한 약속의 시대에 태어났는지도 모르오. <긴 한숨으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여 자 <감정을 가라 앉히고 먼 하늘을 향해> 그래요, 어쩌면 우린 지금 머나먼 밤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하지만 밤이라고 늘 어둠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 속에는 또 그 나뭇대로의 새로운 별이 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해요.

<두 사람 꿈의 열차를 향해 탐승거리를 짐할 때 조명하려지고, <사이> 다시 밝아오면 삼과 호미를 든 농촌부부 등장>

- 여 자 여보! 현실이 더 중요해요! 이제까지 투자한 우리의 고통에찬 날 들이, 정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행복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 나요?
- 남 자 <쟁기를 팽개치며> 현실, 그리고 미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피폐된 삶을 호도할 수는 없어!
- 여 자 호도하자고는 안 했어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란 것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기억과도 같은 것이기에....
- 남 자 도대체 이 사회를 두둔할 수 있는 게 뭐야! 지난 수년 동안 당신과 나는 정녕 우직 하리 만큼 열심히 일해왔어, 이제 그 투자의 고통이 남긴 소산은 회의를 첨가한 한 숨과 슬픔 뿐이야! 눈두렁 밭이랑에서 굶어진 목소리로 추위를 털어내려 악을 쓰는 이 모습이라고!
- 여 자 <남자의 팔을 잡으며> 여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럴 수록 신념을 갖고 용기를 내야지요.
- 남 자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모르는 소리! 인생이 한 수백 년쯤 된다면 또 모를까, 아 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쇠퇴기야 그런데도 이 모습이 뭐야! 그래 이 모 든것이 조건없는 죄악인가? 아니면 잔피를 모르고 성실히 살았다는 노력의 죄목인 가? 이제 당신과 내게 남은 길은 하나 뿐이야! 우리의 마음에 합일과 꿈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것이야!
- 여 자 <한 발짝 떨어지며> 당신에게 뜻이 있다면 그 뜻은 체계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 났던 그 옛날에도 먼 훗날에 대한 저의 기대가 이것이었을까요? 어느 마음 한 구석 에도 조금의 위안적 안위가 없는, 그래 지치고도 지친..., <여자 울먹인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저에 이 슬픔을 보며 당신은 꼭 이렇게 멀어져야 하나요? 결코 이젠 내가 보았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예요!
- 남 자 여보?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그 누구보다도 진실의 가치를 믿었던 나요, 사랑도 말 이요, 허나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하나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며 나는 정녕 헤어나기 힘든 갈등의 굴레를 벗었소 그리고 그 이어짐으로 어차피 살기위한 삶이라면 <감정 을 키우며> 마음의 고향과도 같았던 이제까지의 상념적 지배의식을 묶어놓기로 했 소 이 시대가 가치로 여기는 모든 실질에 대한 타협의 문이었소, 그들이 합리를 내 세워 희망가를 부른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 그 대열의 선두에서 배덕의 춤을 추 겠노라고, 그러나 그들은 나의 그 구차한 마지막 몸짓마저 외면했소 한때는 양심이

---

라도 팔아 단 몇푼의 행복이라도 지친 당신의 그 어린 가슴에 안겨주길..., 그것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아니오! 그들의 독식이 단순한 독식의 차원이 아니란걸 이제야 깨달았던 말이요! 그들이 그러한 아부마저 외면하는 그 이면에는 정녕 무서운 것이 숨어 있었소, 그들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있소,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의식마저 그들에게 바친다면 당신과 나의 가치는 무엇이 되는 거요? 결코, 결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오!

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현실에의 탐은 이렇게 중도에서 무너져야 하나요?  
남 자 이젠 무너지는 것이 아니오, 단지 영원이란 이름밑에 귀속되는 것 뿐이지, 다만 이 것이 하늘이 내린 은총이나 神의 축복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였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요, <사이를 두어> 또한 떠나는 자의 마지막 기대요 위안이지.

<여자 언제부터인가 울고 있는 가운데 조명 빛을 잃는다.>

<조명 다시 밝아오면은 비틀거리며 입장하는 6막에서의 소년, 헤진 의복이나 탈진된 모습이 그간의 꺾박과 고초를 대변해준다. 소년 무대중앙에 이르러 지쳐 쓰러지듯 주저 앉으며 신의 형상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잡으며>

소년 오~! 정녕 나의 신이시고 우리 모두의 신이시며 신에 신이신 꿈에 신이시여!  
기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뵈게된 이 순간 만으로도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의 환희를 느낍니다. 지금 누군가는 평화의 시대가 살기좋은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공언합니다. 그러곤 그 누군가가 강요된 평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자유스럽고 평등스러운 사람들은 한없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의 내가 그 말에 동의하리라고 보십니까? 수용의 미덕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를 털어 삶의 희망에 근거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죽어있는 시대를 보셨나 말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 자체가 모순이라 해도 모순의 지양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나를 이렇게 몰아온 그 배경에 감사를 드려야 그것이 예의고 규범이란 말입니까? <감정을 가라 앉히며>

저는 아직 제 자신이 누구라는 분명한 답이 어려울 나이입니다. 어찌보면 아직도 유년의 꿈 속에서 즐거운 여행을 할 나이라 봅니다. 그런 내가 현실과 과거의 고난을 곱씹으며 삶의 회이나 생의 환멸을 느껴서야 어찌 이 민주, 이 평화, 이 자유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를 두어>저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이것이 타고

---

난 숙명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 민중의 실질에 모든 것을 불변의 숙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체성의 상실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젠 이 지표면의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명분으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 신이시여!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옳고 현명한 삶의 방법론일까요? 저 세상의 일들에 대해 이미 저의 짧은 생각으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그러기에 저는 신의 은총에 선처를 호소하고 이 길만이 저의 살길임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오~/ 나의 신이시고 우리 모두의 신이시며 신에 신이신 꿈에 신이시여!  
당신의 은총을 바라나이다.

<조명 흐려지며 열차를 향해 거리를 좁혀간다>

## 10 막

<종막을 향한 장면>

<수많은 군중의 구호소리가 들리며 사람들은 무대 위를 횡으로 종으로 뛰어가고 그 와중에서 부딪히고 쓰러지고 절규하고 무대는 아수라장이 된다. 노인들은 젊은이를 부여잡고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젊은이는 이지를 상실한 광기의 눈빛으로 변해간다. 민중해방가가 울리고 군중을 향한 메가폰 소리가 들린다.>

메가폰 소리

시 위원회는 들어라! 시민의 이름으로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시 위원회의 주권이 무엇인가?

위원회가 결코 가진자의 대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행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 위원회는 주체와 객체를 혼돈치 말라, 위원회는 자성하라!

평화시의 복마전 행정부는 각성하라! 너희들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이때 메가폰을 든 한 청년 무대 위로 뛰어오르며>

청년 시민 여러분! 아니, 인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서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일 수 없듯이 오늘의 무사 또한 보장된 내일의 자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시대관이 그릇된 의식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가슴으로... 탕! 탕! 탕!

<다연발의 총소리 무대 밖에서 들려오고 총소리와 함께 청년 쓰러진다.>

<여기 저기에서 총소리 들려오며 시민들의 절규 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더러는 무대로 뛰쳐나와 쓰러지고 더러는 꿈의 열차에 탑승도 한다. 그러길 얼마 후, 무대와 객석을 압도하는 북소리 세 번 울리고 가라앉은 적막속에서 노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 리 중생들이여! 신 시대인들이여! 내 일찌기 그대들의 놀이를 피안의 안목으로 감지하고 있었느니 가관스런 오늘의 현상도 예견하고 있었느니라.

으하하하... 정녕 재미있는 놀이로군. 아! 그래, 승자는 누군가? 패자는 누군가?

으하하하... 그래 그대들은 무엇을 믿는가? 자신을 믿는가? 내일의 사회를 믿는가? 과학의 영원성을 믿는가? 아니면, 믿음에 혼돈이 오는가? 혼돈! 혼돈! 그 혼돈은 무엇인가? 으하하하... 그대들은 천년을 흘러도 우매한 중생의 탈을 벗지 못하리니-, 우매한 중생들이여! 우매한 중생들이여! 으하하하...

자~ 꿈의 열차여 희망의 기적을 울, <탕!/><한발의 선명한 총성에 노령의 목소리 끊기고 꿈의 열차는 조명을 잃는다. 이어 얼룩무늬 제복 차림의 요원들이 기계적으로 나타나 꿈의 열차로 돌진한다.>

지휘자 자~ 아, 21세기 평화시의 특공대여!

선량한 양심을 총동하는 저 망령 열차를 초전에 박살내라! / <탕! 탕! 탕! />

<한동안 희미한 조명속에서 무대는 처절한 아비규환의 참혹성을 드러낸다. 그러길 얼마 후, 어둠던 조명이 다시 밝아오고 보이는 광경은, 무대는 쓰러지고 부숴지고 마치 폐가의 헛간처럼 전상의 상흔으로 가득차 있다.>

<언제부터인가 처량한 조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서진 상흔더미 속에서 6막 9막에서 등장했던 소년이 기어나와 가까스로 몸을 추슬려 세운다.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은 소년 뿐이다.>

소 년 여러분, 이 모진 목숨은 또 이렇게 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흘려갔습니다. 이 어린 가슴에 진하다 진한 슬픔과 깊고 깊은 아픔에 깨적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향해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들만의 안주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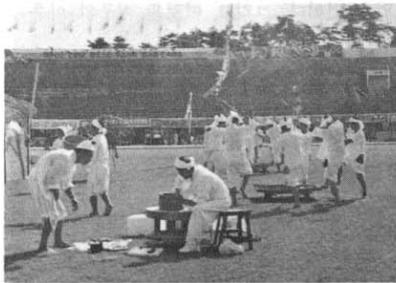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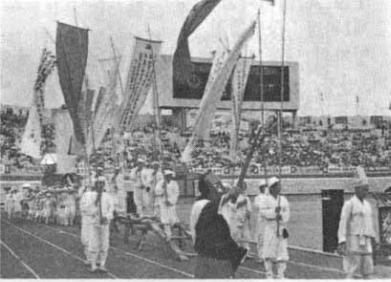
위해 떠났습니다. 죽은 자 말이 없고 산 자 또한 말할 수 없음에 그 누구에게 물어  
볼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어디로 가야만이 따뜻한 인간  
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소년 힘없는 발걸음으로 객석의 중앙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황혼색 조명이 소  
년의 뒤를 따라가다 빛을 잃으며 암전, 그리고 종막〉

〈91년 8月〉

## 황성의 소리모음

황성 회다지소리  
 우밀 어러리타령  
 정금 미나리타령  
 정금 두레농요  
 점말 옹기굽기  
 정금 육레놀이  
 연자매 소리





## 황성회다지소리

### 민요

#### 전승마을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 고증

강선규·노인회 우천분회장  
허구영·정금노인회장

#### 지도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 출연

84 전국대회  
84 도대회

#### 수상내용

84 전국대회 대통령상  
84 도대회 종합최우수상

#### 선소리

양중하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지정('84. 12. 28)

#### 유래

황성회다지소리는 황성지방에 전해오는 민요로 인간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통과중상례시에 불리워지는 노래이다.

한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누구나 한번은 겪는 죽음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초연해 질 수 있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온다고 믿는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갖고 살아왔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의 이름과 어려움을 상부상조 해 왔기에 우리 모두에게 유대와 공감을 일으키며 전승되어 왔고, 또한 그 독특한 회다지 기능요와 함께 하나 하나의 동작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예술적 감각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노래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느린 가락에서 점차 자진 가락으로 넘어가는 음악적인 구성에서나 또한 회다짐의 동작이 두발치기에서 세발치기로 빨라지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놀이의 과정은 상여행진과 회다지 율동 등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색

이 소리의 특징은 노래와 율동이 함께 늦은 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잦은 가락으로 일의 힘듬에 비하여 빠르게 전환되어 가는 것으로서, 음악적 구성에서, 회다짐의 동작에 있어서, 두발치기에서 세발치기로 빨라지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소박하고 사실적으로 재연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율동은 두발치기와 세발치기가 있고 노래말은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구성진 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산역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흥겨운 가락으로 전환한다.

회심곡은 망자의 한을 달래는 한편 상주를 위로하는 기능을 하면서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산역꾼들의 흥과 힘을 돋구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특히 잦은가락이 나오면서 회심곡 세발치기 동작으로 조화있는 율동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구성 및 놀이과정

제1과정 : 상여행진

망자의 액을 달래는 방상씨를 선두로 출연기, 만장, 명전, 공포와 그 뒤에 영여, 상여, 백가마를 따라 상주와 상여꾼들이 상여소리를 내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 입장한다.



황성 회다지 소리

제2과정 : 회다지 율동과 소리

하관이 끝난 후 회를 넣고 다지는 과정으로 여덟사람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 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뒤에 서서 선소리

를 주면 회다지꾼들은 울동과 함께 그 소리를 받는다. 구체적인 놀이과정은 아래와 같다.

· 연회: 회다지꾼들이 선소리에 맞춰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서 서서히 다리를 드는 울동을 반복하는 낮은 가락과 동작이다.

· 청회: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면서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연회과정보다는 조금 빠른 중간다지기이다.

· 방회: 회다지가 절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두발치기와 세발치기의 울동과 소리가 매우 빠르고 회를 굳게 다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에헤라 달회 에헤라 달회

광중원안 6지원님 이내말씀 들어보소  
 광중안에 6지원이요 광중밖에 나혼자인데  
 먼데 손님 듣기 좋게 가까운 손님 보기 좋게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금실금실 놀아보세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3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만은  
 인생칠십 길다해도 우리인생 어찌하여  
 일장춘몽 못면하고 불어귀를 일삼는가  
 천중세월 인증수요 수시건곤 복만가라  
 당상부도 천년수요 슬하자손 만세영이라  
 진소리는 그만두고 자진소리 불러보세  
 초한가를 불러볼까 회심곡을 불러볼까  
 이 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태어났나  
 석가여래 제자되어 칠성님전 명을 타고  
 삼태성의 복을 빌어 아버님전 뼈를 타고  
 어머님전 살을 얻어 이세상에 태어났네  
 한두살에 철을 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모르다가  
 오십평생 지나오니 유수같이 빠른세월  
 오늘날에 당도하여 회고하니 눈물일세  
 어제까지 검은머리 오늘날에 백발되고  
 태산같은 중병언어 명의불러 약을쓰니  
 약덕이나 입을손가 판술불러 점을치니  
 점덕인가 입을손가 무너드려 굶을하니  
 굶덕을 입을손가 애닭고 애타게도  
 이세상 하직일세

(이하중략)

## 우밀 어러리타령

민요

### 전승마을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 고종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허구영-정금노인회장

### 지도

양중하-회다지소리 기능보유자

### 출연

90 도대회  
 91 전국대회

### 수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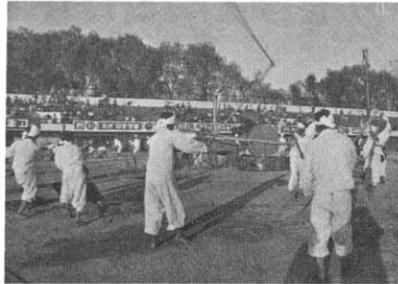
90 도대회 종합최우수상  
 91 전국대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 유래

우밀 어러리 타령은 옛 조상이 살아가는데 있어 농경사회에서 애창되었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리로서 두레일이나 심심계곡에서 나무를 할때 고요함과 정막함을 잇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이다.

이 민요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흥망성쇠를 같이 누려왔던 고향으로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였던 서민들의 울부짖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문명으로 인하여 자취를 감추게 됨은 참으로 애석한 노릇이다. 다행히 촌로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 조상의 넋을 재조명하며 애환과 연정이 담겨져 있는 민속놀이로 재현 전승하고 있다.



우밀 어러리타령

**민요가사**

노랑대가리 열키설키 뒤범벅상투 언제나 저  
 사람 길러서 내낭군 삼나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우리 아버지 말한마디에 울며 불며 받았소  
 보리방아 보리개떡에 인정이 오고 큰 아가  
 씨 그 솜씨가 나는 좋아요  
 진수성찬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서 오시라  
 먼 오시나  
 거미같은 나하나 바래고 나여길 왔소  
 해 달은 오늘 가면은 내일이면 오지 한번간  
 우리님은 왜 아니오나  
 우럭죽박에 능나삼팔로 나를 감지말고 대장  
 부 긴진팔로다 날 감아주게  
 오늘 갈른지 내일 갈른지 분수전망 없는데  
 맨드라미 즐봉숭아는 왜 심어놓았나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뒷집에 김도령  
 데리고 나물 뜯으러 가세  
 어스름 달밤에 귀뚜라미 소리는 정드신님  
 우리낭군의 소식이드나  
 이방아 쪼어 놓고서 시집을 가려네 우리 어  
 머니 그 성화에 나는 못살리라  
 동산에 달 뜨기 전에 남은 일을 다하고 성  
 황당 숲속으로 님마중 가세  
 어러리 고개에다 정거장을 짓고 가는 손님  
 오는 손님 쉬어나 가지  
 후렴 :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정금 미나리타령**

민요

전송마을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고종  
 전용운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지도  
 양중하-회다지소리기능보유자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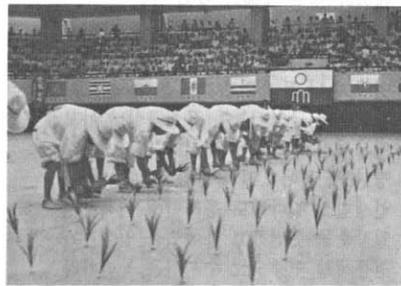
83 도대회

수상내용

83 도대회 우수상

**유래**

횡성 정금 미나리 타령은, 강릉 오독메기, 정선 아리랑과 함께 강원도 고유의 민요로서 이 미나리타령의 특징은 모내기, 벼베기, 김매기 등의 흥을 돋이기 위해 불리어져온 전형적인 민요로 이 같은 민요가 불리어진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으나, 옛날 이곳 주막의 주모에 의해서 불려졌다고 전해온다고 한다.



정금 미나리 타령

이 농요는 김매기, 벼베기, 모내기, 가래질노래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노랫말도 사시사철 권농, 충효등의 여러가지 갈래로 나뉘어 정금지역을 중심으로 농악과 함께 행하여져왔다.

**민요가사**

천하지대본 농사라오 농사한철을 지어보세  
 뒷뜰논은 천석지기 앞뜰논은 만석지기 심어  
 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로 심어주게  
 지어가네 지어가세 점심참이 지어가네 점심  
 참이 지드라도 손을세워서 심어주게

천하지대본 농군님데 우린기쁨 귀할세라  
 이논자리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시화  
 연풍 좋다기는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봄이면 진달래요 가을이면 오곡일세 오실토

실 익은곡식 동산밑에서 춤을추네

천하지대본 농군님네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네 농사  
한철 짓고보고 한복고복 하시리라

해는지고 저문날에 옥창앵도가 붉었으니 시  
호시호 부자네라 원정부자가 이아닌가

## 정금 두레농요

민요

### 전승마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 고종

우용진

### 지도

양중하-회다지소리기능보유자

### 출연

86, 88 도대회

### 수상내용

86, 88 도대회 우수상

### 유래

횡성 정금두레농요는 정금 모심기요인 미나리타령, 논매기요인 단월이, 상사데이 등이 두레일할 때 불러지는 노동요이며 기능요이다.

이는 정금리 앞 넓은들에서 농부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하며 부르는 소리로 우리의 심금에 와 닿는 예술이며, 삶의 소리이기도 하다.

흥겨운 마음으로 일터(들)로 향하는 두레꾼들이 사물놀이에 맞춰 신명나는 춤사위로 입장하여, 모심기, 논매기 등 농사일을 선소리를 주고 받으며 하다가, 한 과정이 끝날때 마다 농악과 어울려 한마당 놀이를 펼친다. 이 소리는 옛날에는 만경두레라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두레를 만들어 농악을 치며 흥겨운 가락에 맞춰 일터로 나가 선소리에 맞추어 주고 받으며 피곤함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일의 능률향상과 화합의 장으로 이어가는 협동 정신의 슬기를 익혔을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까지 가미된 농경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 단월이 가사

어보시오 농군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천하지대본 농사라오	농사한철 지어보세
신농씨의 농사법이	오늘날에 이어져서
후지계 뿌린씨앗	만백성이 다 먹으니
영화로다 영화로다	금실금실 영화로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도덕이 관찰해도
농사없이 못살으니	우리농부가 으뜸일세
공자같은 대 성현도	지진지처 하시었고
신야농부 이윤이는	승군만나 귀히 뵈네
해동조선 생겨날세	명산대천 넓은 들과
면면촌촌 생겨나니	우리들네 으뜸일세
치산치수 하였으니	문전옥답 분명하다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된다
노자노자 젊어서노자	늙어지면 못노나니
어보시오 농부님들	허리잡시 피어보세
당실당실 춤을추어	단월이를 추어보세
어-허 얼-수 단월이야	
아-----어-----	
호-----	(땡이소리)



정금두레농요

## ◉ **점말 옹기굽기**

민속놀이

**전승마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고종**  
 강선규  
**지도**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출연**  
 88, 92 도대회  
**수상내용**  
 92 도대회 우수상

### 유래

점말(占村) 옹기 굽기는 옛날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바리골의 옹기 굽기는 우리의 기능과 노래와 제례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전래의 옹기장이들의 민속이다.

옹기장이들은 사회의 멸시와 가난속에서도 옹기굽는 일에 전생애를 바쳐왔으며 옹기그릇은 우리 서민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요 천민의 호구지책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나의 옹기 그릇은 옛 우리 조상들의 손때와 애환이 서려 있는 민족의 그릇이요 또한 그속에 우리의 전래 민속이 담겨 있기도 하다.



점말 옹기굽기

### 출연과장

작품 구성은 전 5과장으로 입장, 소지반죽 및 성형, 가마치성, 불지피기, 옹기도부 및 한마당 놀이로 구성되었다.

제1과장(입장): 출연기를 선두로 농악사물, 소지반죽꾼, 남너도부꾼, 흙지게, 물지게, 도공, 소리꾼, 화부, 노인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제2과장(소지반죽 및 성형): 선소리에 맞추어 소지반죽 끈은 반죽메로 반죽을 하고 도공은 옹기물레를 돌려 성형을 한다.

제3과장(가마치성): 옹기가 잘 구어지기를 기원하는 치성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고축으로 천신과 지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끝난후 옹기가마 좌우에 술을 붓고 음복을 한다.

제4과장(가마불지르기): 옹기 가마에 불을 질러 옹기를 굽는다.

제5과장(옹기도부 및 한마당놀이): 다 구어진 옹기를 도부꾼이 지게와 머리에 이고 이고장 저 고장으로 팔러나가며 농악사물과 출연진은 신명나는 한마당 놀이를 펼쳐 옹기 구이를 마무리 한다.

## ◉ **정금 육례놀이**

민속놀이

**전승마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고종**  
 양중하-회다지소리기능보유자  
**지도**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출연**  
 88 도대회

### 유래

횡성 정금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엄격한 옛법에 의한 전통성 있는 육례예절이 전승되어 왔었다.



정금 육례 놀이

모든 예식 절차를 주자가례에 근원을 두어 따른 것으로, 육례를 거쳐 예의절차를 밟은 이조영조(李朝英祖朝) 이전까지 풍습을 갖추어 왔던 것이 전승되어 왔다.

고대의 육례라고 하는것은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폐(納幣),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을 말하는데

첫째 : 납채(納采)란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혼인의사 유무를 확인한 후에, 여자쪽에서 그 남자를 채택한다는 의사표시로 예물을 보내는 예며,

둘째 : 문명(問名)은 남자쪽에서 여자의 생모의 성씨를 묻는 예며,

셋째 : 납길(納吉)은 문명한 후에, 남자쪽에서 가조(家朝)에 점(占)을 쳐서 길흉판단을 얻고나서, 여자쪽에 전하고 처음으로 혼인에 관한 구체적인 일을 정하는 예이며,

넷째 : 납폐(納幣)는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예물을 보내고, 혼약성립을 증명하는 예로서 검은비단과 붉은비단을 보냈다. 이것은 음양을 갖춘다는 뜻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다섯째 : 청기(請期)는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혼인날짜의 가부를 묻는 예이고,

여섯째 : 친영(親迎)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아들이는 예이다. 즉 대례인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육례를 거쳐야만 정식부부로서 인정이 되었다.

## 우밀 연자매소리

민요

전승마을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고종  
양중하-최다지소리기능보유자  
이종철

지도  
이종호-정금민속보존회장

출연  
'88 도대회

황성 “우밀 연자매소리”는, 이곳 정금 모심기요인 미나리 타령과, 논매기 요인 단휘리, 상사대이등과 두레일 할때에 불리워지던 노동요이며 기능요이다.

“우밀”은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에서 북방 1km지점인 갑천면과 경계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써 전설에 따르면, 삼한의 하나였던 진한의 마지막 태기왕이 신생국인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군부에 쫓겨 호위군으로 장졸을 이끌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피난길에 올라, 이 마을을 지나다가 지형지세를 살피기 위해 잠시 머물던 곳으로서 “우밀”이란, 이 마을의 지형이 우물처럼 생겼다는 데서, 그 말이 점차 변형되어 “우밀”로 불리어 지게 되었으며, 태기왕은 이곳에 터를 잡아 놓고 농지를 일구고, 군사 훈련장을 만드는 한편, 우밀뒀산 저고리골 절(寺) 부근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신라군과 싸웠다.



우밀 연자매소리

이때부터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많은 사연이 노래로 구전되어 왔다. 이렇게 가을이면 추수를 하여 연자방아를 사용하여 도정을 할 때에 주민이 모여 이러한 농요를 불러 노동의 피곤

함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협동정신의 슬기를 익혔을 뿐 아니라 국민인과 풍년을 기원해 온 종교적 의식까지 가미된 생활문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 황성군 전통민속마을

□우천면 정금마을

황성군 우천면 정금마을은 신라에 패주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그 설욕을 꿈꾸며 진을 치고 싸웠던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서 황성군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13km지점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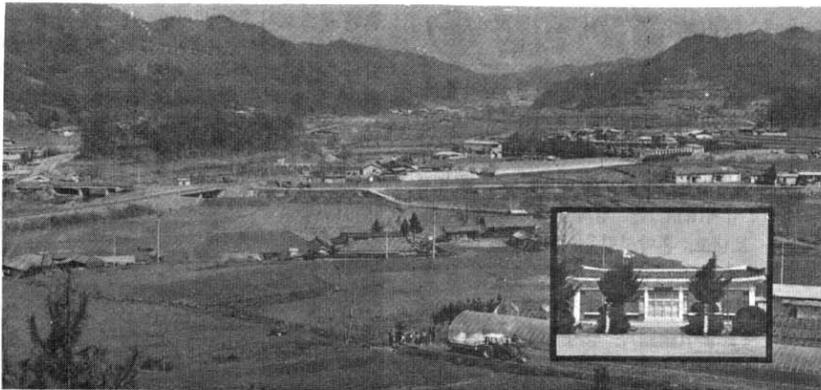
현재 이지역은 정금 1, 2리의 2개 마을로 나누어져 있으며 172가구에 1,17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과 강릉 즉,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내륙 교통수단인 경강국도가 이 마을을 관통하여 번창하기도 했었던 곳으로, 독창적이고 또한 배타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 영서·

영동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 고장 고유의 습합문화를 탄생시켜 1984년도에는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황성 회다지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정금농악, 정금미나리타령, 어러리타령, 정금 두레농요 등 많은 전래민속을 온전하게 전승시켜 오고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이 마을에는 정금향토민속관이 있어 전통민속 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태기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보전전승에 온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 대례 (친영) 흘기





7. 行交拜禮

- |              |                          |
|--------------|--------------------------|
| (1) 嬪東婦西 相向立 | 신랑은 동편 신부는 서편에 마주선다.     |
| (2) 兩家親 華燭奉星 | 양가의 (부) (모)가 촛대에 불을 밝힌다. |
| (3) 嬪跪       | 신랑은 꿇어 앉는다.              |
| (4) 嬪先再拜     | 신부가 먼저 재배한다.             |
| (5) 嬪興婦跪     | 신랑은 일어서고, 신부는 앉는다.       |
| (6) 嬪答一拜     | 신랑은 답례를 일배한다.            |
| (7) 婦興嬪跪     | 신부는 일어서고 신랑은 꿇어앉는다.      |
| (8) 婦又先再拜    | 신부가 또 먼저 재배한다.           |
| (9) 嬪興婦跪     | 신랑은 일어서고 신부는 앉는다.        |
| (10) 嬪又答一拜   | 신랑은 또 답례로 일배한다.          |
| (11) 婦興      | 신부는 일어난다.                |

8. 行合卺禮

- |                |                          |
|----------------|--------------------------|
| (1) 嬪婦 各就座     | 신랑신부는 각기 상앞에 앉는다.        |
| (2) 執事 各斟酒     | 집사가 표주박에 술을 따른다.         |
| (3) 婦先授盃于嬪 後揖  |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 (4) 嬪授之 舉飲     | 신랑은 술잔을 받아 마신다.          |
| (5) 執事 授箸于嬪    | 집사는 신랑에게 절(箸)을 준다.       |
| (6) 嬪舉肴        | 신랑은 안주를 든다.              |
| (7) 嬪授盃于婦 後揖   | 신랑은 신부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 (8) 婦受之 舉飲     | 신부는 술잔을 받아 마신다.          |
| (9) 無舉肴        | 안주는 들지 않는다.              |
| (10) 執事 各斟酒    | 집사는 각기 표주박에 술을 따른다.      |
| (11) 嬪先授盃于婦 後揖 |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 (12) 婦受之 舉飲    | 신부는 술잔을 받아 마신다.          |
| (13) 無舉肴       | 안주는 들지 않는다.              |
| (14) 婦授盃于嬪 後揖  | 신부는 신랑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 (15) 嬪受之 舉飲    | 신랑은 술잔을 받아 마신다.          |
| (16) 無舉肴       | 안주는 들지 않는다.              |
| (17) 執事 又各斟酒   | 집사는 또 각기 표주박에 술을 따른다.    |
| (18) 婦先授盃于嬪 後揖 |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 (19) 嬪受之 舉飲    | 신랑은 술잔을 받아 마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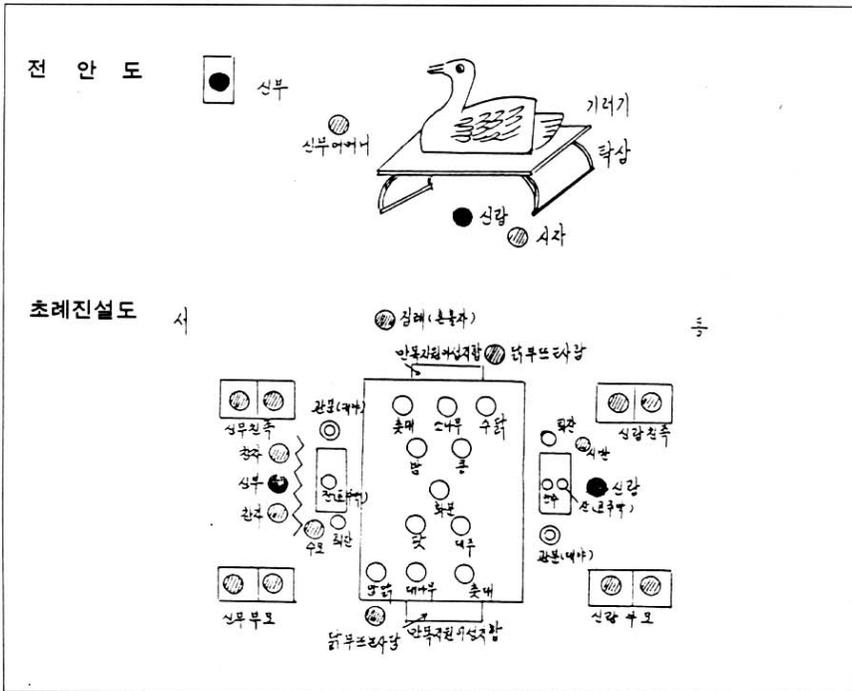
- (20) 無舉肴                    안주는 들지 않는다.
- (21) 嬪授盃于婦 後揖       신랑은 신부에게 술잔을 드리고 읍한다.
- (22) 嬪受之 舉飲            신부는 술잔을 받아 마신다.
- (23) 無舉肴                    안주는 들지 않는다.

9. 成婚宜言文朗讀

10. 來賓祝辭

11. 嬪婦退場

12. 大禮畢



## 解 說

### 1. 奠鴈禮 (전안례)

新郎이 大禮(親迎)을 올리러 新婦집으로 갈때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기러기를 전(奠)하는 儀式

※ 기러기 : 기러기는 隨陽之鳥라하여 陽을 따르는 吉鳥로서 夫婦有別하고 守節하며 和睦하게 해로하는 새라는 點과 秩序를 尊重하여 鴈行의 紊亂함이 없다는 點과, 가는곳마다 흔적을 남기고가는 習性이 있듯이 사람도 世上에 태어났던 보람을 남기고 가기를 매어세하는 뜻으로 본받을점이 있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자를 보내거나 신랑이 갈때 納幣때를 除外하고는 언제나 기러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였음.

### 2. 관세례 (관세례)

新郎과 新婦가 婚禮를 올리기前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뜻으로 맑은물에 세수하고 수건으로 닦는 儀式

### 3. 交拜禮 (교배례)

新郎과 新婦가 서로 만나 二姓之合을 이룬다는 뜻으로 尊重하게 人事하는 儀式

### 4. 合卺禮 (합근례)

新郎과 新婦가 함께 생을 먹고(共牢而食) 표주박(卺)을 둘로 자른 잔으로 술을 마셔 두몸이 한몸으로 합하고 尊卑를 같이 하여 서로가 尊重하고 사랑하기를 맹세하는 儀式

### 5. 大禮(親迎)時 使用하는 諸物의 根源

가. 松竹 : 男女의 節操, 長壽, 繁茂를 象徵

나. 콩 : 子孫의 繁昌을 象徵

다. 딸 : 家庭의 諸煩惱를 없애고 和平되게 함을 象徵

라. 닭 : 文, 武, 勇, 仁, 信의 오덕을 상징

頭載冠文也, 足搏距武也, 敵前敢鬪勇也

見食相和仁也, 守時不失信也

- 마. 촛불 : 新家庭의 將來의 앞길을 밝혀주며 祝福하는 뜻
- 바. 표주박(卷) : 옛날에 使用했던 술잔
- 사. 花盆 : 大禮席의 美化
- 아. 청사초롱 : 옛날에는 大禮를 日沒後에 올렸기 때문에 新郎의 앞길을 밝히는데 使用되었다 함  
오늘날에는 大禮를 낮에 올리기 때문에 어둠을 밝힌다기보다 將來의 앞길을 밝혀주고 祝福하는 意味라고 함이 어떨까?
- 자. 연지곤지 : 고려초엽에 強勢한 元나라의 武力侵犯이 빈번했을때, 그들의 비위를 마쳐주고 환심을 사서 侵犯을 막으려고 그들의 風俗인 연지 곤지를 찍게 되었다고 傳해지고 있음.

## 婚 禮 解 說

吉禮의 之禮라고 하는 것은

첫째, 順序로 男子便에서 女子便의 婚姻할 意思의 有無를 確認한 後에 女子便에 그 女子를 採擇한다는 意思表示로 禮物를 보내는 納采 禮며

둘째, 順序로는 男子便에서 女子의 生母의 姓氏를 묻는 問名の 禮이고

셋째, 順序로는 問名한 後에 男子便에서 家廟에 占을 쳐서 吉凶判斷을 얻고나서 女子便에 傳하고 처음으로 婚姻에 關한 具體的인 일을 定하는 納吉의 禮이며

넷째, 順序로는 男子便에서 女子便에 禮物를 모내고 婚約의 成立을 證明하는 納幣 一名 納徵의 禮인데, 禮物로는 검은 비단과 붉은비단을 썼는데 이것은 陰陽을 갖춘다는 뜻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다섯째, 順序로는 男子便에서 女子便에 婚姻날짜의 可否를 묻는 請期的 禮이고

여섯째, 順序로는 新郎이 新婦를 親히 맞아드리는 親迎即大禮인 것이다.

以上 說明한 吉禮의 之禮는 아마도 李朝 英祖朝 以前까지는 婚禮의 唯一한 基準이 되었을 것으로 推測이 된다.

그러다가 李朝 英祖朝의 大學者인 李紱가 四禮便覽을 編纂하므로써 이것이 우리나라의 家禮의 基準이 되어 왔었는데 이 四禮便覽에 依한 婚禮節次는 之禮보다 簡素化된 婚禮로 變貌하게 되었다.

그 婚禮節次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議婚을 하고, 두번째로 納采를 하고

세번째로 納幣를 하고, 네번째로 親迎을 하는 順序로 婚禮節次가 簡素化되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婚禮는 어떻게 變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번째 順序로 議婚인데 通婚의 경우를 살펴보면

- 仲媒人을 놓고 男子便 또는 女子便에서 婚談을 건네는 경우가 있고
- 男子 女子 兩便의 父母가 直接 通婚하는 境遇도 있고
- 婚姻할 當事者들이 直接 通婚하는 경우등이 있어서, 그 어느 경우나 다 容納되는 方法이니 결국 「議婚」은 特殊形態를 갖추지 못한것으로 變貌하고 말았다.

두번째 順序로 四柱 或은 四聲인데 四柱는 新郎의 生年月日時를 規定된 書式으로 적어서 新婦집으로 보내는 禮이다.

세번째 順序는 涓吉인데

涓吉 或은 擇日은 新婦집에서 四柱를 받아 가지고 擇日을 한 後 新郎집에다 알리는 禮이다.

옛날에는 「陽倡陰和」라 「陽이 부르면 陰이 和한다」는 理致에 따라서 新郎집에서 擇日을 해서 新婦집에 알리면 新婦집에서 이에 應하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反對로 變貌하고 말았다.

네번째 順序로는 納幣인데 納幣는 新郎집에서 幣帛과 婚書를 新婦집에 보내는 禮이다.

納幣를 原來는 納徵이라고 불러왔는데 오늘날 와서는 多少 形態가 바뀌어서 納幣라고 부르게 됐다.

納幣는 푸른 채단과 붉은 채단을 靑絲 紅絲로 묶어서 함에다 넣는데 이때에 婚書와 物目을 함께 넣어 보내는 것이다.

新郎집에서 新婦집으로 納幣를 보낼때에는 함진아비와 使者 두사람을 시켜서 보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는 納幣하는날 여러사람들의 新郎친구들이 함진아비를 따라 新婦집에 가서 함을 놓고 新婦집 主人과 흥정을 하고 돈과 음식을 要求하는 弊風이 생겼다.

이런일은 經濟的인 理由에서라기보다 社會氣風과 淨化的인 次元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弊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번째 順序로 大禮인데

大禮를 吉禮에서는 親迎이라고 불렀으나 오늘날 와서는 普通 大禮라고 부르고 있다.

大禮는 다시 奠雁禮, 交拜禮, 合巹禮로 나눌수 있고, 또 交拜禮와 合巹禮를 합쳐서 醮禮라고 부르기도 한다. 大禮式에 使用되고 있는 諸物에 對해서 簡單히 說明하고져 한다.

---

爲先 大禮床 위에 陳設하는 諸物을 살펴보면,  
新郎便으로는 소나무, 수탉, 콩, 대구가 놓이고  
新婦便으로는 대, 암닭, 팔, 밤이 놓이거  
大禮床 兩側에는 두개의 촛대가 놓여있고  
大禮床 中央에는 花盆이 놓여 있다. 그리고 新郎新婦 各 右側에는 맑은 물을 담은 관(관  
분)이 놓여 있다.

- 소나무와 대는 男女의 節操, 長壽, 繁武를 象徵하고
- 콩은 한 家庭의 子孫의 繁昌을 뜻하며
- 닭은 家庭의 諸煩惱를 없애고 和平되게 함을 뜻한다.
- 닭은 文, 武, 勇, 仁, 信의 五德을 지닌 家禽으로서 이 新婦 家庭도 닭과 같이 五德을 지니고 人間답고 幸福하게 살라는 뜻으로 大禮床위에 오른것이라고 봄이 妥當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촛불과 청사초롱은 예산례은 陽倡陰和의 理致에 따라 日沒後에 大禮를 올렸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촛불과 청사초롱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大禮를 낮에 올리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爲해서 使用한다는 뜻은 無意味하게 되고, 新婦家庭의 將來의 道를 밝혀주고, 二生之合을 祝福하는 意味의 象徵이라고 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新婦의 顔白에 찍는 연지 곤지는 元來는 없었던 것이나 高麗初葉에 強勢한 元나라의 武力侵犯이 빈번했을때, 그들의 비위를 마쳐주고 환심을 삼으로서 그들의 侵犯을 막으려고 元나라의 風俗인 연지 곤지를 찍게 되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

#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식사에절

---

## 1) 식사할때 기본 자세

- 식사할 때 식사를 혼자서만 한다면 예의가 필요치 않으나,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 우리나라의 식사 제도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는 여러가지 반찬을 함께 들며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의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 2) 식사 예의로

- ① 어느 좌석이나 식사 장소에서는 먼저 연장자와 상대방에게 편한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
- ② 식사를 가져 오면 연장자와 상대방의 손으로 놓도록 해야 한다.
- ③ 공동으로 먹어야 하는 반찬이 놓여 있을 때는,
  - 공기예다 덜어 놓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덜어 오는 수저는 자신이 먹던 수저로 덜어서는 안되며,
  - 자신이 먹던 수저를 공동의 찬 그릇에는 절대 넣지 말고,
  - 가급적 새로운 수저로 덜어다 먹는 것이 예의다.
- ④ 윗어른이나 상대방보다 먼저 식사를 하면서 윗어른이나 상대방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으로 식사하는 상에다 야채라고 해서 오이, 풋고추, 마늘 등을 놓는 예가 많이 있다.
  - 그리고 옆에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찍어서 먹도록 놓는다.
  - 여기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는,
    - 입으로 한 입 잘라서 먹고는 또 놓여 있는 장에다 찍는다.

- 
- 어찌 자신이 입으로 잘라 먹던 것을 하나도 거리낌 없이 공동용으로 놓여 있는 장에 다 찍는단 말인가.
  - 상식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큰 실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식사 예의에 실례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 꺾고추나 마늘을 입에 대지 말고,
    - 자신이 먹을 만큼 잘라서 장에 찍어 먹고,
    - 또 잘라서 장에 찍어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과히 실례는 안 될 것이다.
  - 옛날에는 한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정도라면 연령이나 지위이든 동격 정도가 되어야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였다.
  - 또한, 그 때는 상이 별로 없었고 두 사람의 겸상 정도가 대부분 이었고, 남녀가 같이 한 상에서 드는 예는 거의 없었다.
  - 한 가정에서도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사상 때문이었던지 부부간에도 남편이 식사를 하면 옆에 앉아서 시중을 들다가 나중에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풍속이었다.
  - 그러나, 개화기 이래 변화가 잦은 지금은 옛날 풍속을 따르기만 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개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녀가 너무 분별이 없어서도 안 될 것이다.
  - 가급적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 공동으로 먹는 찬은 공기에다 덜어서 먹는 것이 좋고,
    - 같은 찬 그릇에서 먹던 수저가 남자들과 같이 들여 놓지 말고 삼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다.
  - 같은 친구간이든지 남자들이라 해도 조심해야 될 몇가지
    -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이 자꾸만 뿜다.
    - 찬 그릇에만 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까지 뿜다.
    - 그렇게 되면 누구나 같이 식사를 하는 순간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공동으로 식사하는 찬 그릇에나 상대방에게 침은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상쾌한 식탁 예의
    - 식사하는 중에는 기분이 상쾌해야 하므로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 경행록(景行錄)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식담정신상(食淡精神爽)이요, 음식이 깨끗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심청몽매안(心淸夢寐安)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꿈이 맑아서 잠을 평안하게 이룬다고  
 했다.
- 식사는 우선 깨끗해야 정신이 상쾌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식사할 때 주의할 예의
  - 연장자에 대한 존경하는 정신으로 대접을 하면 자연 예의를 지키게 된다.
  - 앉은 좌석도 상좌나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앉도록 해야 한다.
  - 식사 상을 차림에도 우선 연장자에게 먼저 올리는 순서로 되어야 한다.
  -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내는 쪽은 주인의 입장이고, 대접을 받는 쪽은 손님의  
 입장이므로 손님은 존경을 해야 한다.
  - 대접을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시는 정신으로 식사를 대접해야 하기 때문  
 에 연장자에게 대접하는 이상으로 예의를 지켜서 대접해야 한다.
- 식사할 때 예의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 대접을 하는 쪽이나 대접을 받는 쪽이나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조금도 상하  
 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 대화가 부드러워야 하고,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말을 할 때에는 절대 침이 튀지 않도록 하고,
  - 표면상으로나 언제나 정결하도록 보여야 한다.
- 식사를 정결하게 하자면,
  - 자신이 먹던 수저로 이것 저것 마구 떠오는 것도 실례가 되고,
  - 자신이 입에 닿던 수저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 술잔을 마시고 돌리는 풍습이 있는데,
  - 상대방에게 권하기 위해서 한 잔 마시고는 상대방에게 권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 있다.
  - 술잔을 권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습성도 시정되어야 하는데,
  - 어떤 자리에서는 냉수를 떠다 놓고 술잔을 한 번 담갔다가 권하는 예도 있다.
  - 권하고자 할 때에는 잔을 내지 않았거든 제가 한 잔 드릴 터이니 잔을 내시죠 하고  
 잔을 내도록 한 다음 권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 여하튼 상대를 존경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 위생에 관한 문제는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 1. 백합영상회 회원 사진전

그동안 지역문화의 선두주자로 우리고장의 정서순화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백합영상회의 열한 번째 사진 전시회가 여러 관계기관과 영상문화 애호가들의 성원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 일 시 : 1994년 10월 18일~10월 13일
- 장 소 : 문화원 2층 전시실

### 2. 태기산 보컬그룹 정기 공연

우리 지방예술의 총애로 자리잡은 태기산 보컬그룹의 제2회 정기공연이 <불우청소년들기>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불모의 지방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일획을 그었다.

- 일 시 : 1994년 10월 28일
- 장 소 : 문화원 대극장

### 3. 정금 마을 문화마을로 선정

84년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횡성 회다지 소리로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인 영예의 대통령 상을 수상, 고장의 명예를 한껏 빛낸 정금 마을이 문화 체육부로부터 95년 시범 문화마을로 지정돼 향토 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 4. 제9회 태기문화제 개최

87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행해온 태기문화제가 9회째를 맞아 정금향토민속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로 성대히 치뤄졌다. 특히 문화마을로 지정된 원년의 의미가 가중돼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

〈행사내용〉

[공개행사]	[문화행사]	
횡성회다지 소리	웃놀이	장기대회
어린이농악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횡성어러리타령	글짓기	짚신삼기
횡성미나리타령	줄다리기	연날리기
농악한마당놀이		

5. 횡성문학 제2집 출간

향토문화의 얼굴로 주체적 성격을 다할 횡성문학회의 횡성문학 제2집이 출간되어 관내 기관장 및 각계인사들, 문화애호가들의 성원속에 성대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일 시 : 1995년 3월 17일

○장 소 : 목화예식장 2층

6. 우천에 반도체 공장 설립 협약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라그룹이 우천지방공단내에 대단위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한라그룹은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대에 22만 8천 85평의 규모에 총 3백 34억 1천여만원을 들여 올 상반기부터 97년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무공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신설될 한라 반도체공장엔 6천여명의 고용인력이 필요해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회 원 명 부

횡성문화원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심진황	횡성읍 읍하4리 380-6 섬강APT 203	자영업	43-7841	
부원장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상업	43-3334	
"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상업	43-2742	
이 사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APT 201호	교사	43-3326	
"	이병현	횡성읍 입석리 188	교사	43-2874	
"	유영길	횡성읍 읍하리 115-5	상업	43-2302	
"	우광수	횡성읍 북천리 태우APT 3동 501	교사	43-1446	
"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공무원	43-7700	
"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상업	43-0694	
"	이종호	우천면 정금리 656	농업	43-2647	
"	이석원	횡성읍 읍상리 346	상업	43-3518	
"	권상철	횡성읍 읍하4리 377-22	상업	43-3258	
"	김광수	횡성읍 읍상1리 356	상업	43-5100	
"	이상천	횡성읍 읍하1리 90-5	상업	43-0811	
감 사	도회관	횡성읍 읍상리 276-3	상업	43-2964	
"	이제구	횡성읍 읍하리 305	상업	43-2434	
회 원	정재혁	횡성읍 읍상리 291-13	상업	43-5001	
"	최강현	횡성읍 읍상1리 346	상업	43-2229	
"	김원영	횡성읍 읍하3리 249-3	운수업	43-3132	
"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	농업	43-3514	
"	박승기	횡성읍 읍하3리 251-53	상업	43-0222	
"	이일영	횡성읍 읍하리	의회의원	43-0808	
"	한상동	횡성읍 읍상리	상업	43-2505	
"	윤재기	횡성읍 읍하리 10	상업	43-2233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회 원	배 광식	우천면 우항리	농 업	42-6043	
"	김 정 응	횡성읍 읍상리 313	약 국	43-2707	
"	임 중 대	안흥면 지구1리 407	농 업	42-4315	
"	정 병 익	횡성읍 입석리 150-6	공 무 원	43-4813	
"	채 금 순	둔내면 자포곡리 407	가사종사	42-1245	
"	강 선 규	우천면 정금1리 849	농 업	42-2854	
"	전 상 국	횡성읍 입석리 65	회 사 원	43-2466	
"	박 흥 선	횡성읍 생운리 157	공 무 원	43-3383	
"	이 봉 회	횡성읍 읍상리 진명빌라 102-302	공 무 원	761-1145	
"	박 태 식	횡성읍 가담리 468	농 업	43-2069	
"	이 병 직	횡성읍 목계리	공 무 원	43-2111	
"	진 연 문	횡성읍 청룡리 226	상 업	43-5544	
"	유 재 준	횡성읍 읍하1리 112	상 업	43-9483	
"	김 승 현	횡성읍 읍하3리 251-54	상 업	43-2773	
"	한 상 국	둔내면 둔방내리 382	농 업	42-1516	
"	전 인 택	둔내면 석문1리 191	상 업	42-1884	
"	황 환 신	횡성읍 읍상리 281	상 업	43-2240	
"	이 장 우	횡성읍 읍하2리 324	자 영 업	43-2723	
"	한 상 태	횡성읍 읍하4리 원흥APT 102-601	사 무 장	43-2670	
"	박 용 규	횡성읍 읍상4리 109	상 업	43-2915	
"	조 중 호	횡성읍 조곡리 355-1	상 업	43-4708	
"	이 복 수	공근면 가곡리 194	상 업	42-3717	
"	고 석 범	횡성읍 읍하2리 재립연립 가동 101	공 무 원	43-4376	
"	방 규 진	횡성읍 북천2리 중앙APT 1-107	공 무 원	43-9661	
"	김 창 식	횡성읍 읍하리 306-7	상 업	43-4900	
"	채 회 승	횡성읍 북천리 태우 APT 1-906	상 업	43-9060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회 원	윤재택	횡성읍 읍하리 94	상 업	42-0009	
"	홍승익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71	
"	양중환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02	
"	이철우	우천면 정금리 507	농 업	42-2665	
"	김윤수	횡성읍 읍상5리 102-2	공 무 원	43-2181	
"	권용환	횡성읍 읍상1리 359-2	교 사	42-7135	
"	윤춘식	횡성읍 읍하리 333	공 무 원	43-3349	
"	고락홍	횡성읍 고향리 61-1	공 무 원	43-2845	
"	정삼영	횡성읍 읍하3리 214-6	공 무 원	43-3130	
"	민영진	횡성읍 읍상3리	건 축 업	43-2965	
"	구본섭	횡성읍 읍하3리 251-54	상 업	43-1000	
"	김영학	횡성읍 읍하리 116-9	상 업	42-0259	
"	남문섭	횡성읍 북천리 126	회 사 원	43-4125	
"	원종춘	횡성읍 읍하1리	상 업	43-3162	
"	이각구	횡성읍 목계리 221	공 무 원	43-2071	
"	임태규	횡성읍 읍상3리 38-11	공 무 원	43-4028	
"	고석용	횡성읍 읍하2리 300	공 무 원	43-2680	
"	정우철	횡성읍 읍상리 517-1	군농협장	43-2818	

편집위원

- \* 정재영
- \* 김정자
- \* 이병복
- \* 책임간사 조임식 : 문화원 사무국장

**어사매 제 11 호**

인쇄일	95. 7. 20
발행일	95. 7. 30
발행처	황성문화원
발행인	원장 심진황
편집	어사매편집실
인쇄	강원출판사

(비매품)

